

#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42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4.20.

발행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김창보 · 최재필

홈페이지 [www.seoulhealth.kr](http://www.seoulhealth.kr) · [www.scdc.or.kr](http://www.scdc.or.kr)

- 코로나19 국내 8명 추가 확진으로 총 10,661명, 서울시 추가 확진 0명 총 624명
- 전 세계 확진자수 2,262,162명(치명률 7.01%), 전일대비 3.85% 증가(영국 5.08%, 미국 4.73% 등)
- 재확진자 163명(4.17.0시) 대구 41.1%, 재발까지 13.5일 소요, 무증상 52.6% 등 2차 전파 여부 단정 못해
- 서울시민 97% 생활방역 전환 필요 인식, 그러나 63.6% 아직은 이르다, 통제 가능 대응체계 갖춰야
- 중대본, 5월 5일 까지 완료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불확실한 감염경로, 세계적 대유행 등 위험요인 존재
- 생활방역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아프면 쉬다', '손씻기', '2회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 지침 준비
- 정부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등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 서울 지하철 '코로나19' 제로 비결 알려달라, 남미 45개국 지하철 운영 협회 요청으로 화상회의 진행
- 교육부 5월 고3부터 단계적 등교 개학여부 다음 주 확정, 오늘 초1~3 온라인 개학, 접속장애 최대 고비

### 1. 발생 현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sup>4)</sup>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sup>1)</sup>	624	2	306	102,531	5,259	97,272	46,648	19,986	26,662
전 국 <sup>2)</sup>	10,661	234	8,042	548,448	12,243	536,205	-	-	-
전세계 <sup>3)</sup>	2,330,259	169,917	598,228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4.20. 0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4.19.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20.04.19. 15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0명, 누적 확진환자는 총 624명

- 입원(격리)환자 316명, 격리해제 306명 /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확진환자 수는 624명
- 4월 19일 00시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는 총 234명으로 치명률은 2.19%이며, 서울시 사망자 2명

● 서울시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2020.4.20. 0시 기준)

※ 확진일자는 서울시 기준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확진일자	계	구로구 교회관련	해외 여행력 (외국인 포함)	확진자와의 접촉력		조사중	통계 미포함 (인천검역소)
				해외 여행자	기타 확진자		
4월 18일(토)	1	-	1	-	-	-	-
4월 17일(금)	2	-	2	-	-	-	-
4월 16일(목)	2	-	1	1	-	-	-
4월 15일(수)	1	-	1	-	-	-	-
4월 14일(화)	5	-	4	-	1	-	-
4월 13일(월)	3	-	2	1	-	-	-
4월 12일(일)	8	-	6	-	2	-	-
4월 11일(토)	2	1	-	-	1	-	-
4월 10일(금)	3	-	2	-	1	-	-
4월 9일(목)	5	-	3	-	1	1	-
4월 8일(수)	11	-	8	1	1	1	-
4월 7일(화)	10	-	7	-	1	2	-
4월 6일(월)	8	-	6	1	-	1	-

● 서울시 주요 발생 원인별 현황 (2020.4.20. 0시 기준)

(단위: 명)

소계	해외접촉 관련	구로구 콜센터 관련	구로구 교회 관련	동대문구 관련 (교회,PC방)	동대문구 관련 (요양보호사)	은평성모병원 관련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종로구 관련	대구 방문	신천지 관련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기타
624	246	98	41	20	8	14	13	10	11	3	28	132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된 것으로,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산발 사례 또는 조사 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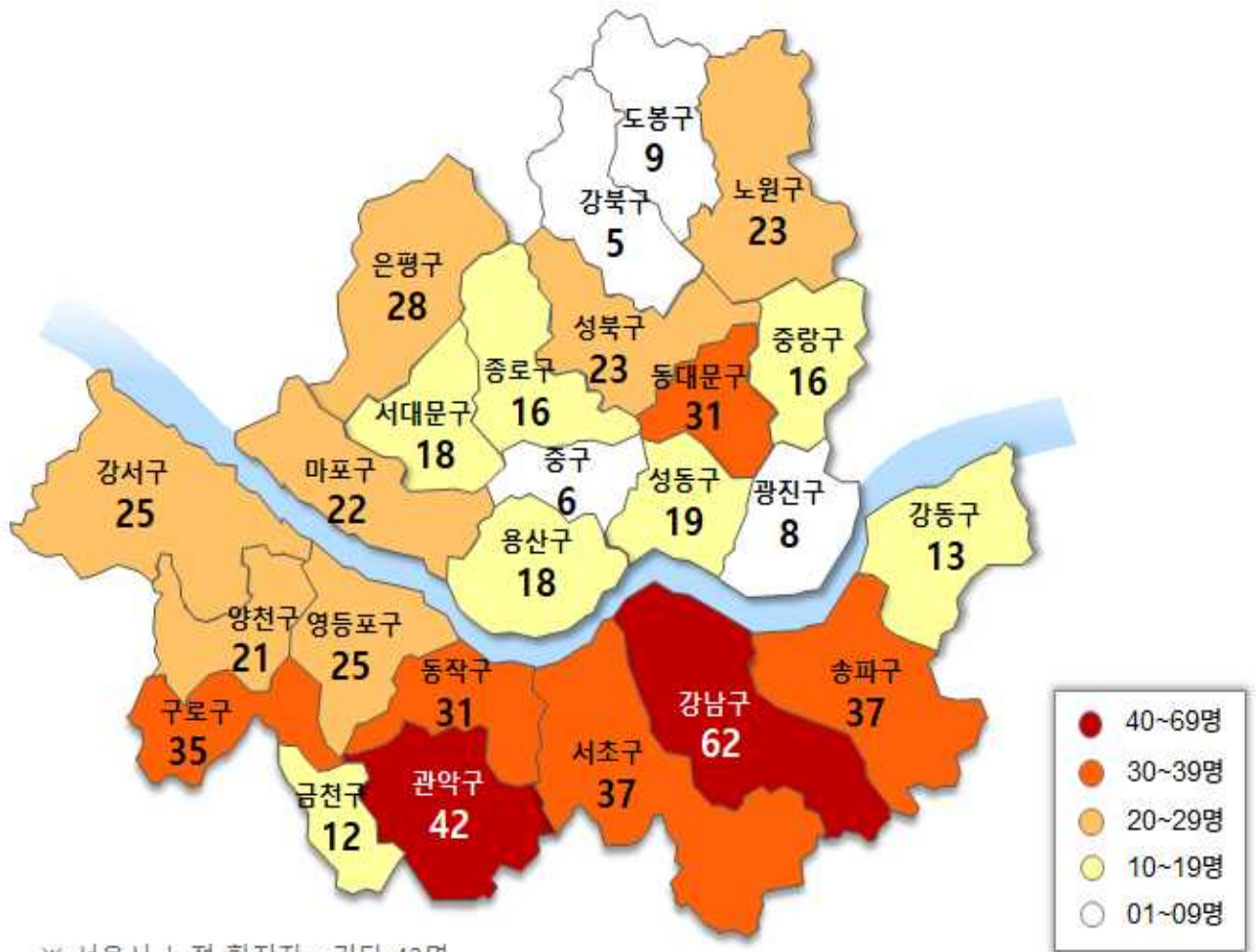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4월 20일 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624명임 (거주지 기준으로 강남61, 관악42, 서초37, 송파37, 구로35, 동대문31, 동작31, 은평28, 강서25, 영등포25, 노원23, 마포22, 성북22, 양천21, 성동19, 서대문18, 용산17, 종로16, 중랑16, 강동13, 금천12, 도봉9, 광진8, 중구6, 강북5, 기타42(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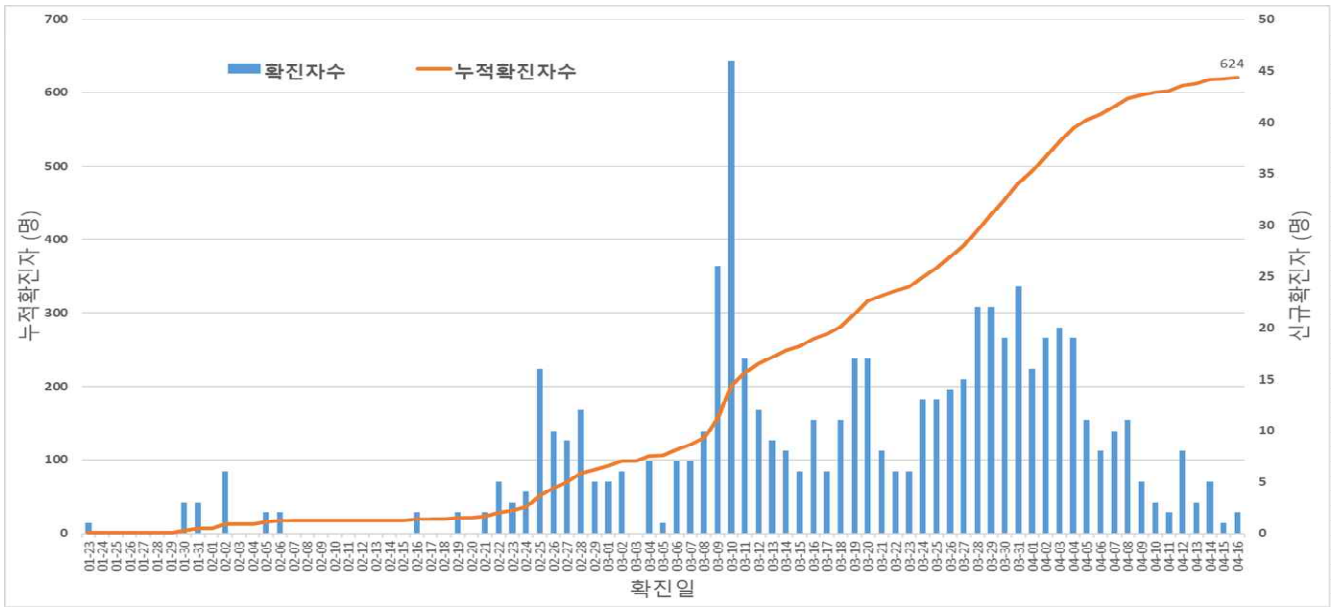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계
누계	16	6	18	19	8	31	16	23	5	9	23	28	18	22	21	25	35	12	25	31	42	37	62	37	13	42	624
4/19																											0



※ 서울시 누적 확진자 : 기타 42명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1.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및 누적확진자 현황(4.18. 22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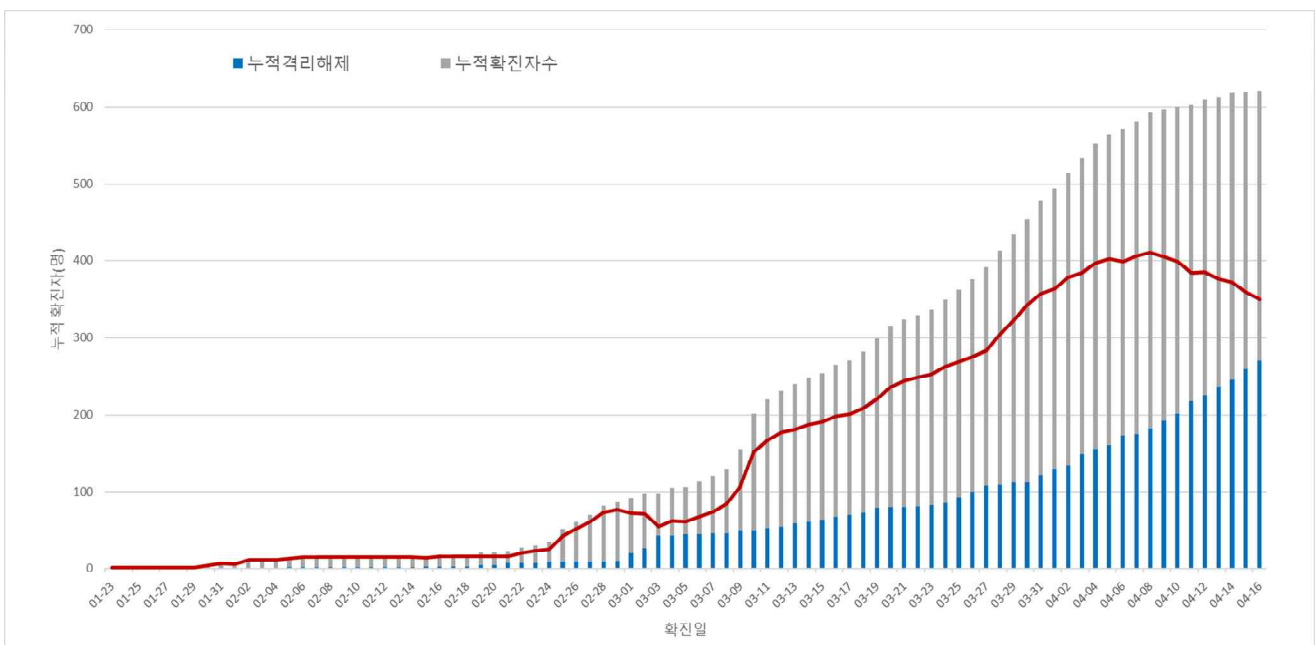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누적환자 총 624명
- 4.16 2명, 4.17일 2명, 4.18일 1명 확진환자 추가: 4명 해외유입 추정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및 누적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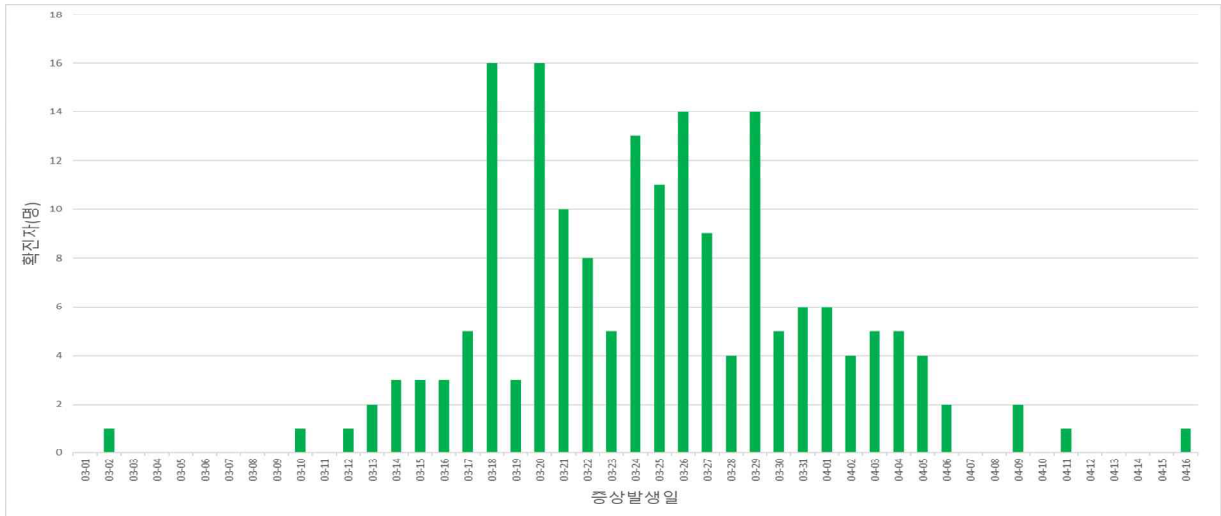
2. 서울시 코로나19 누적격리중 및 격리해제자 현황

- 서울시 총 확진자 624명 중 격리해제 257명(41.2%)
- 4.8일을 기준(410명)으로 격리중인 환자 감소 추세(현재 3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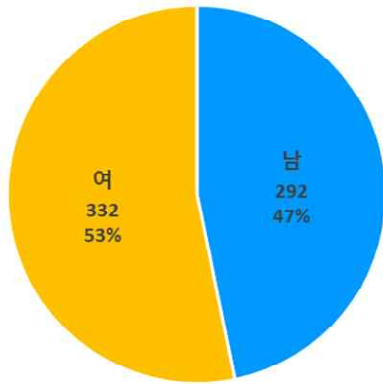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누적격리중 및 격리해제자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3. 확진자 증상발생일 기준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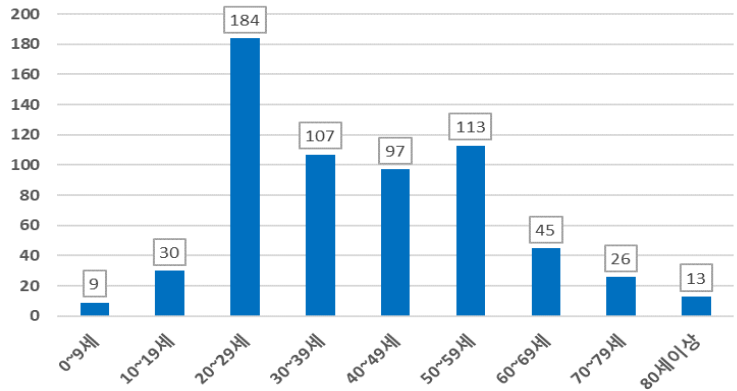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증상발생일 분포현황

### ○ 성별·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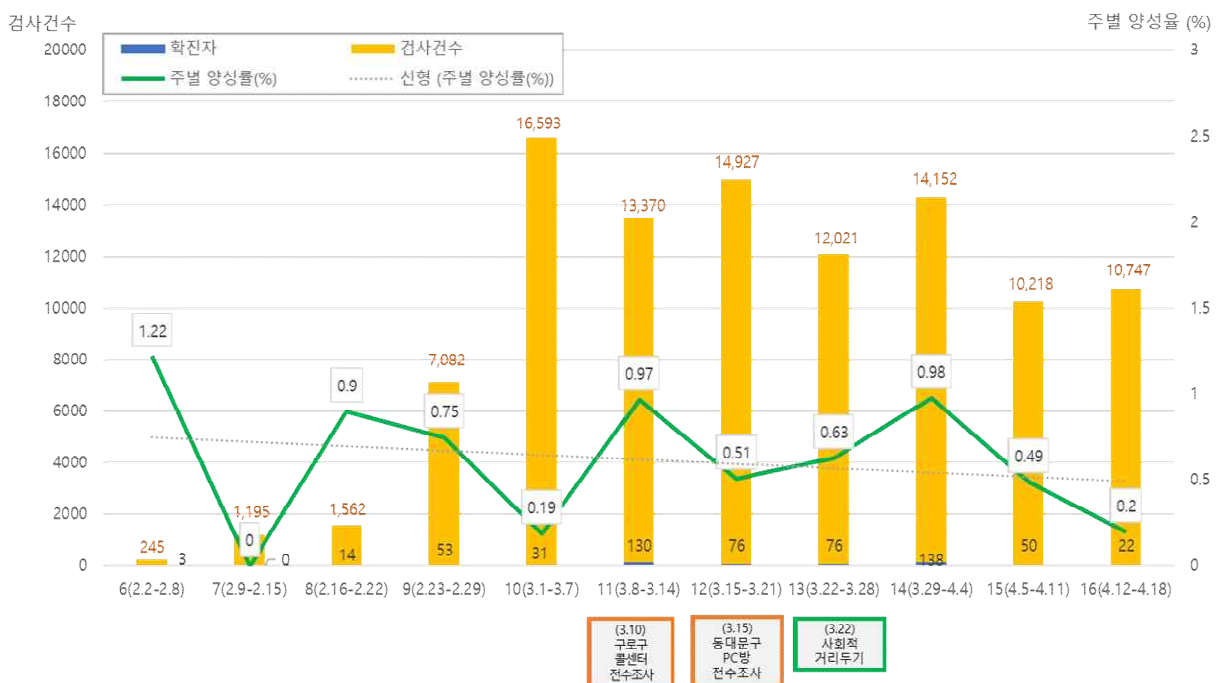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

### ○ 주별 검사건수 및 확진환자 양성률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후(15주) 검사 건수 및 양성률 감소 추세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주별 검사현황 및 양성률

○ 자치구별 확진자 분포 현황(4.18일 22시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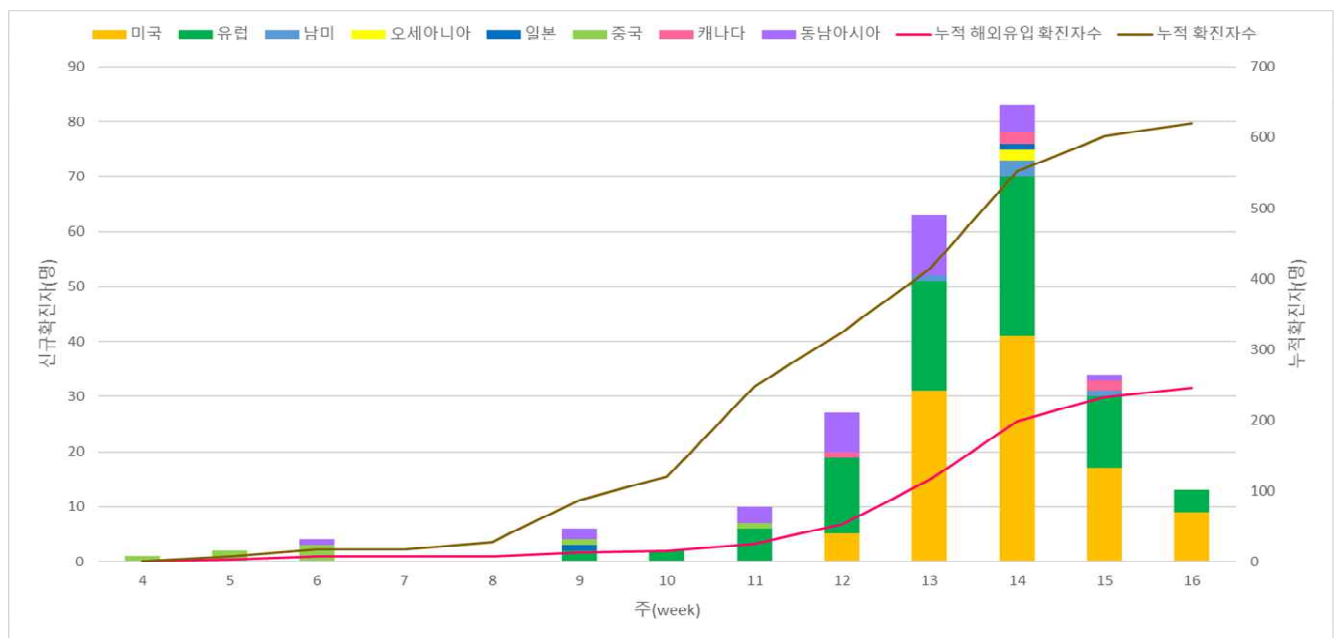
구분	누계	증가현황 (4.14 0시 기준)	해외유입 (%)	증가현황 (4.14 0시 기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서울특별시	624	▲(+6)	249 (39.9)	▲(+4)	6.51
종로구	16	-	4 (25.0)	-	10.91
중구	10	-	6 (60.0)	-	8.22
용산구	19	▲(+1)	13 (68.4)	▲(+1)	8.68
성동구	19	-	12 (63.2)	-	6.35
광진구	8	-	7 (87.5)	-	2.30
동대문구	32	-	7 (21.9)	-	9.40
중랑구	16	-	7 (43.8)	-	4.06
성북구	23	▲(+1)	8 (34.8)	▲(+1)	5.33
강북구	5	-	1 (20.0)	-	1.61
도봉구	9	-	6 (66.7)	-	2.71
노원구	23	-	5 (21.7)	-	4.32
은평구	28	-	6 (21.4)	-	5.91
서대문구	19	-	9 (47.4)	-	6.27
마포구	22	-	12 (54.5)	-	6.00
양천구	21	-	2 (9.5)	-	4.61
강서구	25	-	8 (32.0)	-	4.26
구로구	35	-	3 (8.6)	-	8.73
금천구	12	-	1 (8.3)	-	5.23
영등포구	25	-	8 (32.0)	-	6.94
동작구	31	-	11 (35.5)	-	7.94
관악구	42	-	9 (21.4)	-	8.52
서초구	37	-	24 (64.9)	-	8.73
강남구	62	▲(+3)	37 (59.7)	▲(+2)	11.66
송파구	37	-	22 (59.5)	-	5.59
강동구	13	-	8 (61.5)	-	3.06
기타	35	-	13 (37.1)	-	-

○ 국가별 확진자 해외유입 현황(4.18일 22시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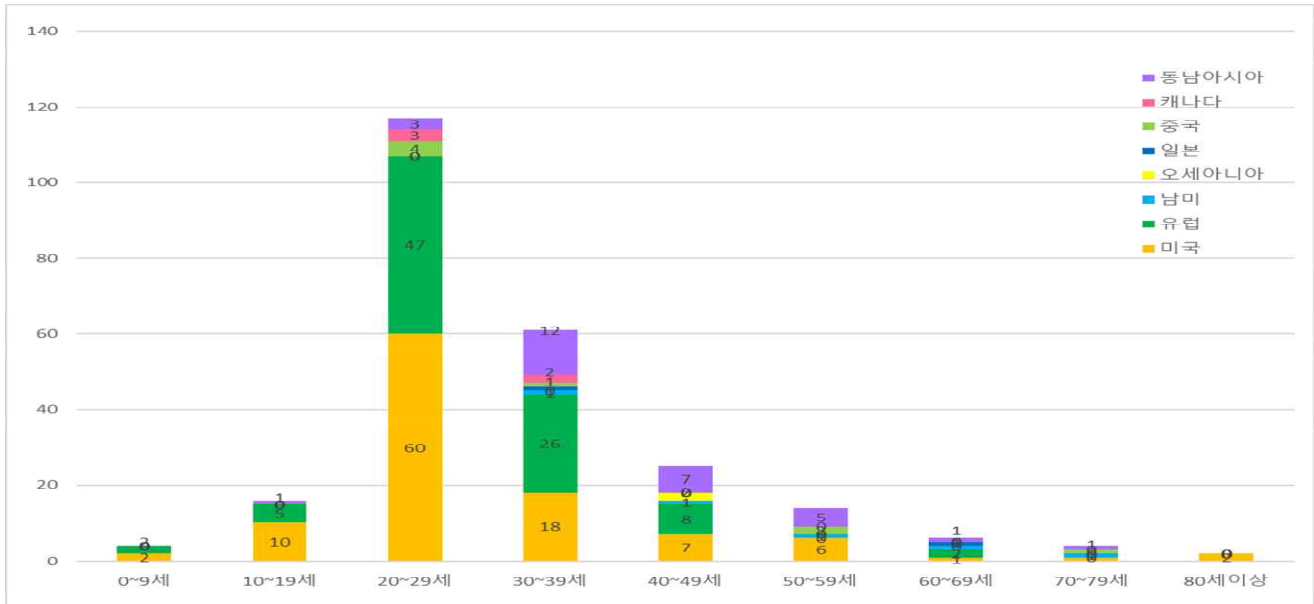
구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남미	오세아니아	합계
누계	107	90	30	8	2	5	5	2	249
증가현황	▲(+4)	-	-	-	-	-	-	-	▲(+4)
백분율(%)	43.0	36.1	12.0	3.2	0.8	2.0	2.0	0.8	100.0



서울시 코로나19 신규·누적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연령별 해외유입 현황 분포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연령별 확진환자 퇴원, 입원, 사망 현황 분포(4.18일 22시 기준)

서울시 성별, 연령별 확진환자 퇴원, 입원, 사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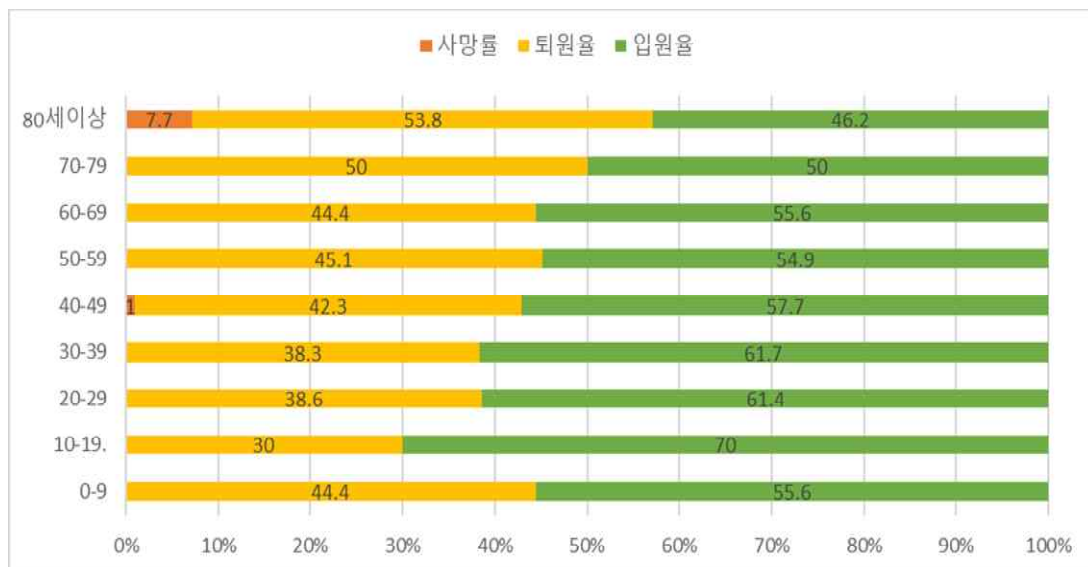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확진자 (%)	퇴원 (%)	퇴원율(%)	평균 입원일	사망	치명률(%)	
계	624 (100.0)	257 (100.0)	41.2	20.4	2	0.3	
성별	남성	292 (46.8)	126 (49.0)	43.2	20.5	2	0.7
	여성	332 (53.2)	131 (51.0)	39.5	20.2	0	0
연령	0-9	9 (1.4)	4 (1.6)	44.4	16.6	0	0
	10-19	30 (4.8)	9 (3.5)	30	19.8	0	0
	20-29	184 (29.5)	71 (27.6)	38.6	18.7	0	0
	30-39	107 (17.1)	41 (16.0)	38.3	18.9	0	0
	40-49	97 (15.5)	41 (16.0)	42.3	21.9	1	1
	50-59	113 (18.1)	51 (19.8)	45.1	22.4	0	0
	60-69	45 (7.2)	20 (7.8)	44.4	22.7	0	0
	70-79	26 (4.2)	13 (5.1)	50	20.2	0	0
80이상	13 (2.1)	7 (2.7)	53.8	22.7	1	7.7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평균 입원일수(전체)= (퇴원자, 비퇴원자 입원일의 합계)/(전체 확진자수)

○ 연령별 확진자 치료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확진자 치료 현황(명, 확진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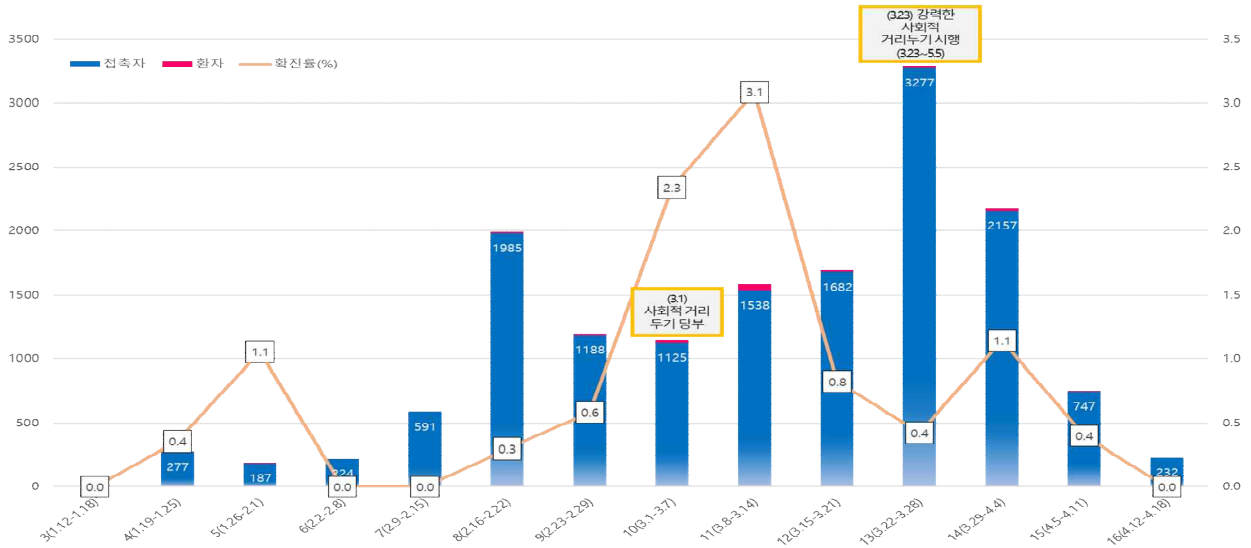
○ 접촉자 분포(4.14일 17시 기준)

서울시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접촉자 분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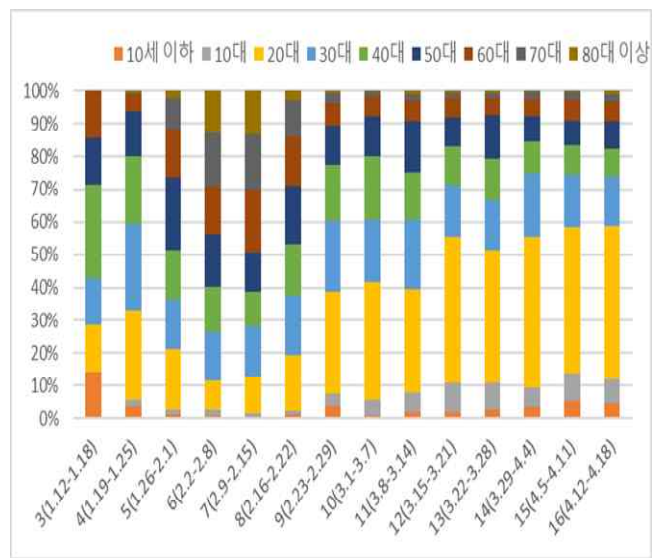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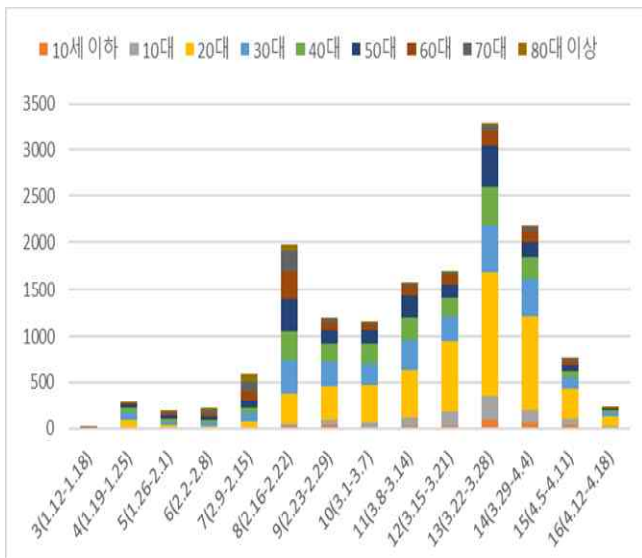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성별		연령(세)									확인불가
		남	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누계	15,001	7,606	7,395	361	857	5,120	2,708	2,027	1,896	1,146	610	231	45
(%)	(100.0)	(50.7)	(49.2)	(2.4)	(5.7)	(34.1)	(18.1)	(13.5)	(12.6)	(7.6)	(4.1)	(1.5)	(0.3)
확진자	150	74	76	6	9	29	15	24	46	12	6	3	0
(%)	(1.0)	(1.0)	(1.0)	(1.7)	(1.1)	(0.6)	(0.6)	(1.2)	(2.4)	(1.0)	(1.0)	(1.3)	(0.0)

○ 주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주별 접촉자 현황 및 확진율 (명, %, 최종접촉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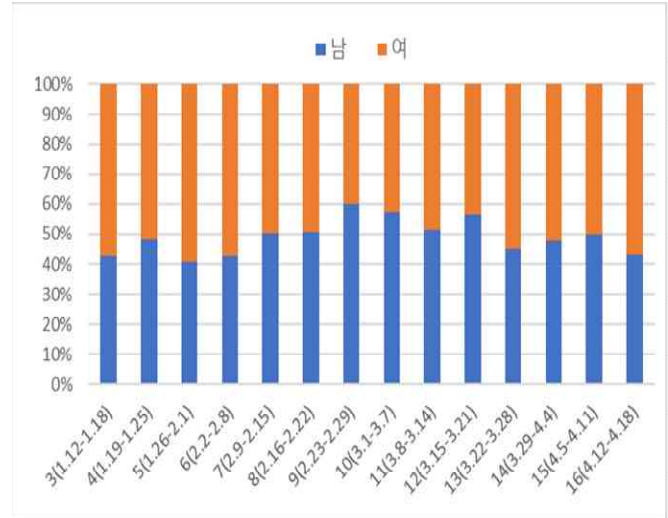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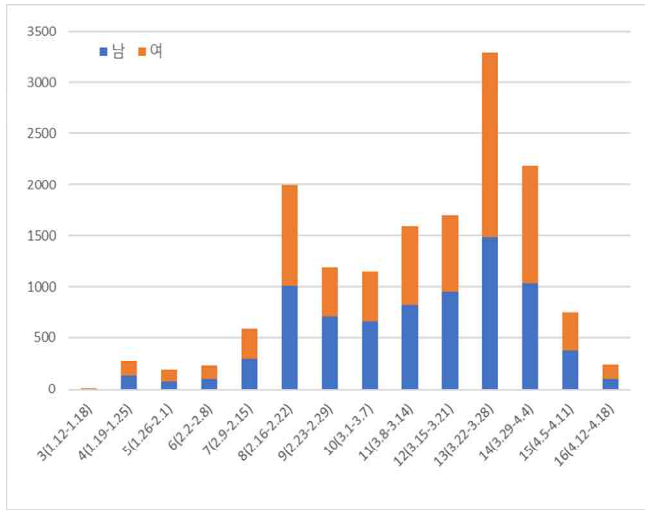
○ 연령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분포(명, %, 최종접촉일 기준)



## ○ 성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성별 분포(명, %, 최종접촉일 기준)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4.19.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차량 이동식	해외입국자 전용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92	44	38	6*	43	5	6	7	25	4	1

\*1개소 감소: 동작구 상담소 운영 중단

※ 해외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운영 개시: 4. 3.(금1) 10:00~ , 잠실운동장 서문 주차장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4.19.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현황		세부현황		
설치 (A+B+C)	검체채취 가능 (A+B)	보건소 내 (A)	보건소 외 (B)	상담소 (C)
44	39	38*	1	5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13개구(중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은평·양천·금천·동작·서초·강남·강동구)

(보건소 내 1개소 운영) 12개구(종로·용산·광진·도봉·노원·서대문·마포·강서·구로·영등포·관악·송파구)

※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1개소: 구로구 가리봉동

※ 상담소 5개소 :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자양보건지소, 세종대, 건국대)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4.19.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 건)

날 짜	진 료		검 체		X-ray	
	계	누 계	계	누 계	계	누 계
4. 18.(토)	1,168	100,237	1,106	73,145	1	1,207
4. 17.(금)	1,477	99,069	1,316	72,039	2	1,206
4. 16.(목)	1,446	97,592	1,337	70,723	1	1,204
4. 15.(수)	1,017	96,146	958	69,386	0	1,203
4. 14.(화)	1,405	95,129	1,227	68,428	1	1,203
4. 13.(월)	1,847	93,724	1,630	67,201	1	1,202
4. 12.(일)	1,270	91,877	1,101	65,571	1	1,201
전일대비 증감	△ 309	1,168	△ 210	1,106	△ 1	1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4.19.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 료		검체 검사		비고
	4.18.(토)	누계	4.18.(토)	누계	
계	1,151	97,968	1,151	58,480	
국가지정	53	14,463	53	7,076	
지역거점	203	15,823	203	12,387	
국공립병원	29	6,337	29	5,216	
민간병원	866	61,345	866	33,801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4.19.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4.18.(토)			누계			비고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계	22	21	-	6,450	5,100	6	
은평병원	4	4	-	875	762	-	3.3. 개소
소방학교	6	5	-	1,474	1,097	2	3.3. 개소
잠실주경기장	12	12	-	2,462	1,611	1	3.3. 개소
이대서울병원	0	0	-	1,639	1,630	3	3.5.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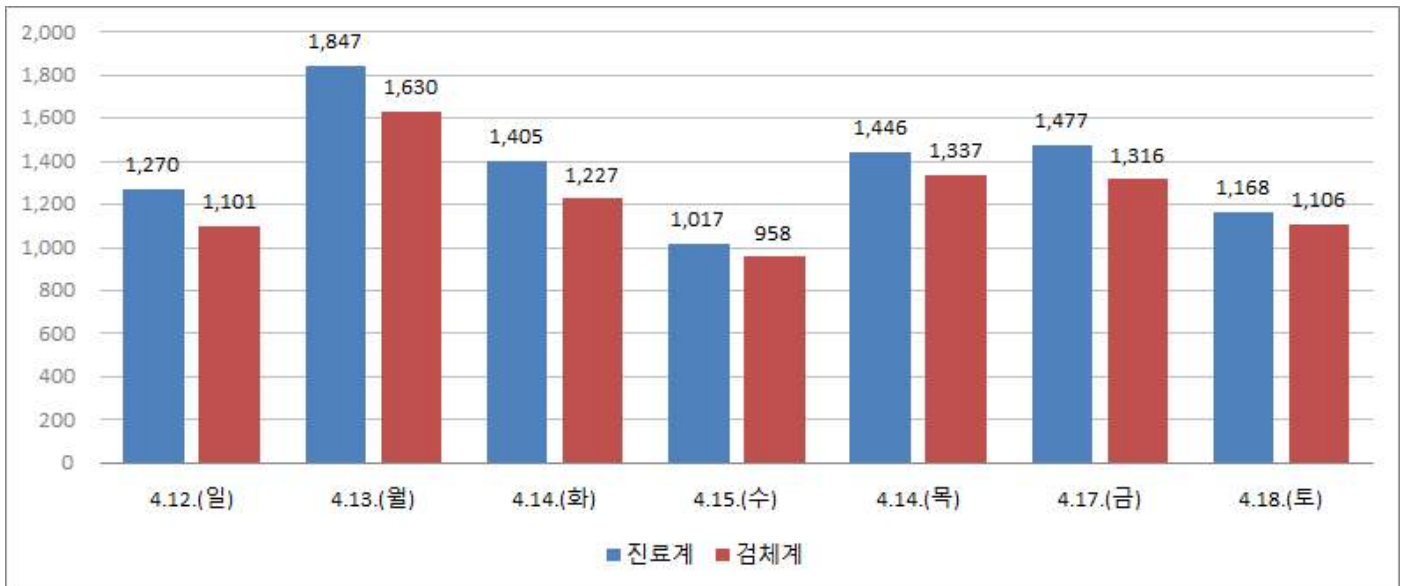
※ 양성건수: 검체 후 통보 되어온 양성반응자수로 검사일과 동일하지 않음

- 해외입국자 검사(4.3.~4.18.) : 누적 72명 / 4.18.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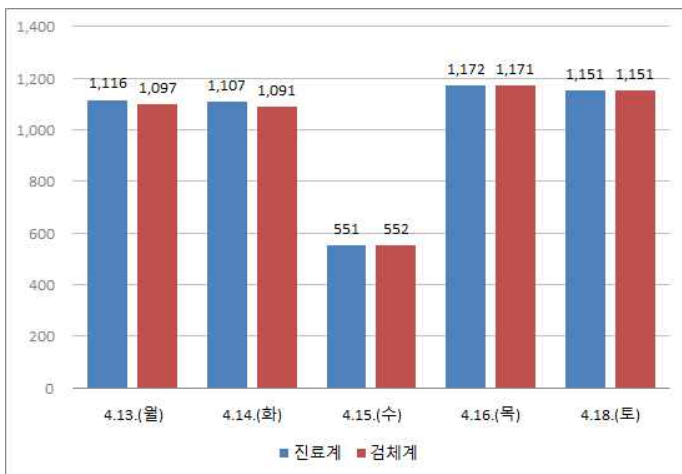
계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86	2	2	1	2	1	1	1	2	1	16	17	40
서초(25)	2							2	1	12	7	1
송파(61)		2	1	2	1	1	1			4	10	39

● 일자별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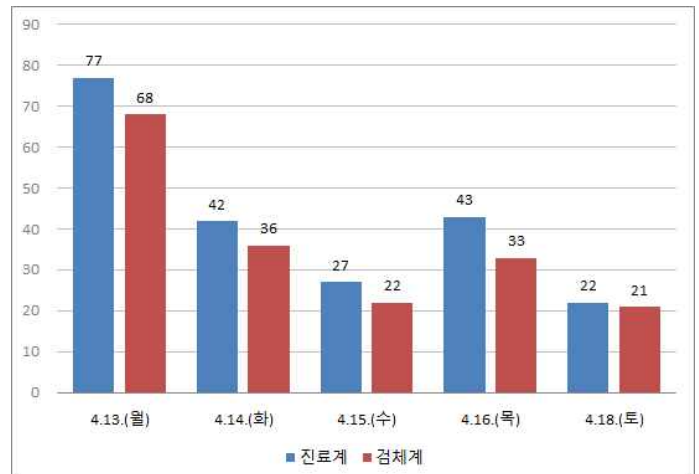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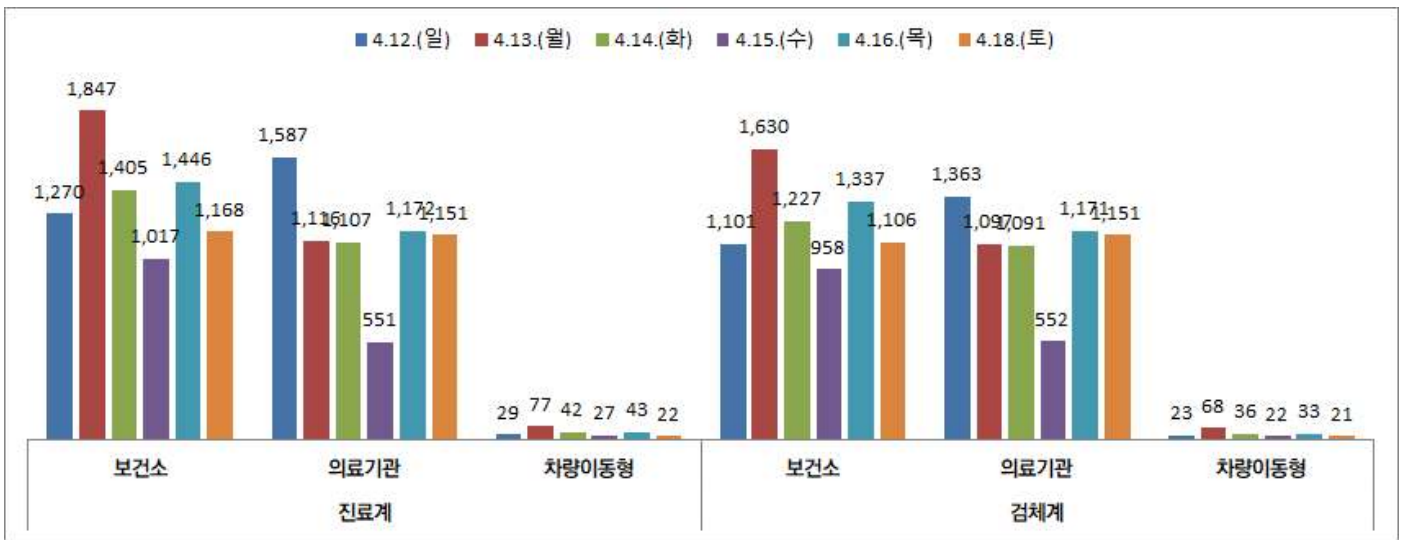
보건의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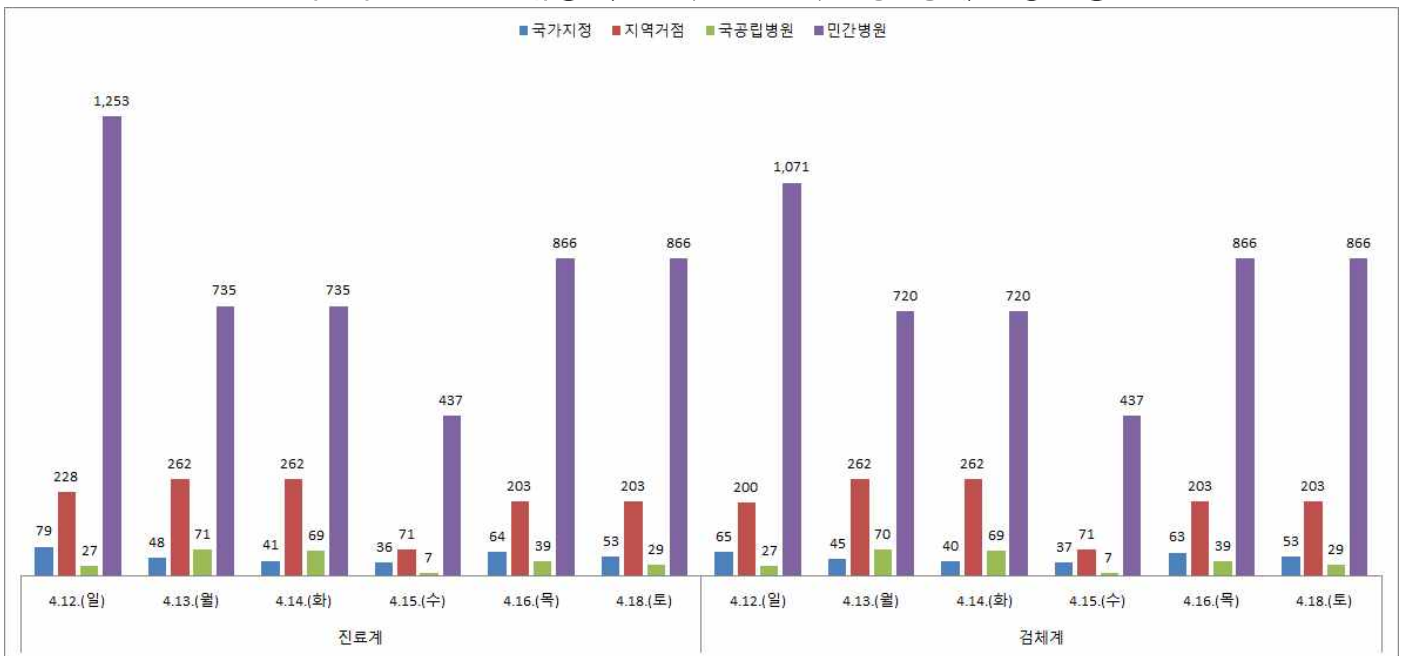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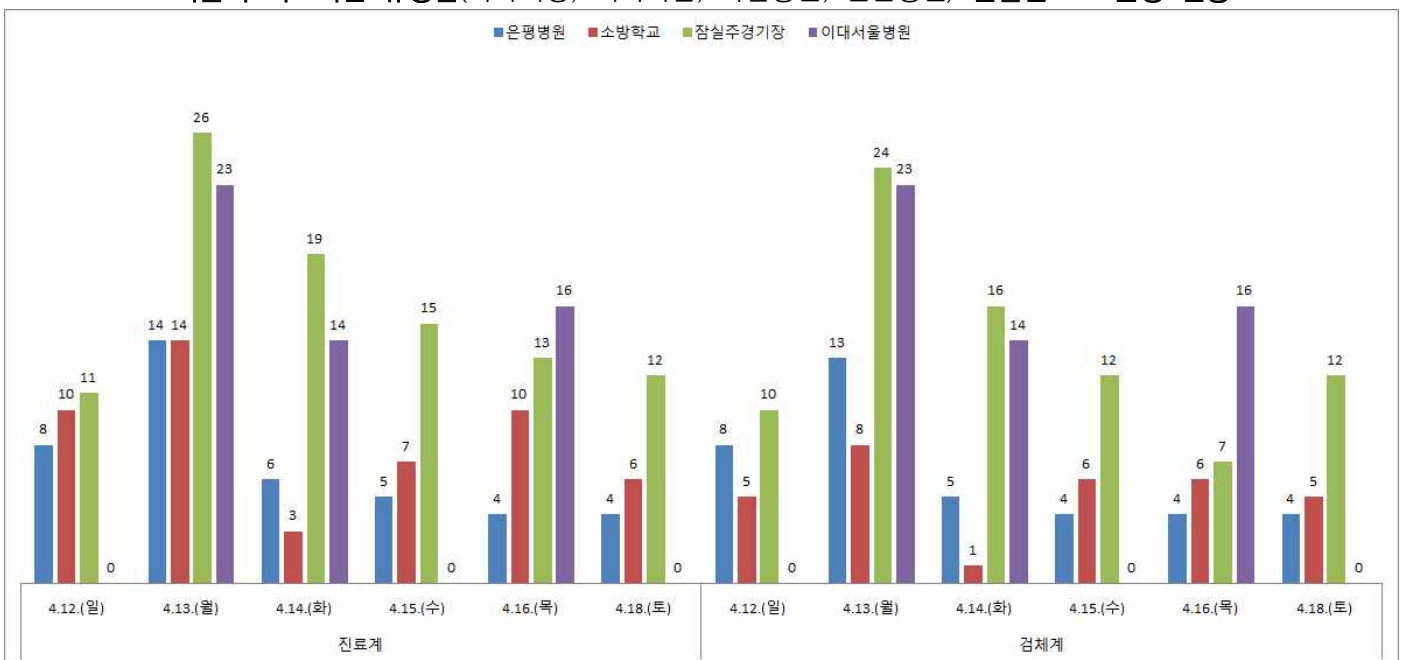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서울시 선별진료소 유형별(보건소, 의료기관, 차량이동식) 운영 현황



서울시 의료기관 유형별(국가지정, 지역거점, 국립병원, 민간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서울시 차량이동형 지점별(은평병원, 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 이대서울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10,661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8명 추가)이며, 이 중 격리해제는 8,042명(전일 대비 105명 증가)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함
- 사망자는 234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2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2.19%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81.1%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9.6%이고, 해외유입 사례가 9.3%임
- \* 전체 확진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은 5,212명(48.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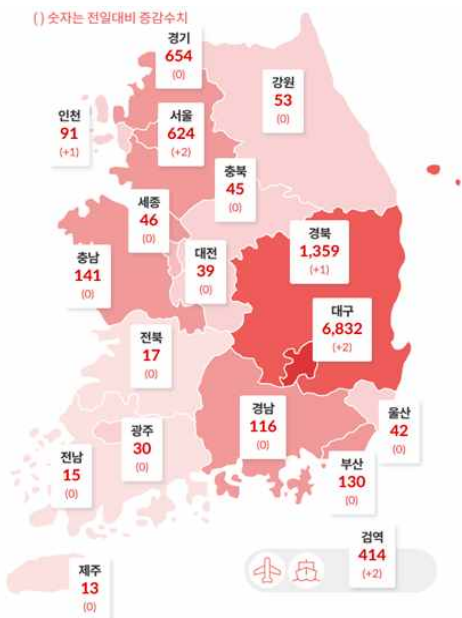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4.19.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4.18.(토) 0시 기준	554,834	10,653	7,937	2,484	232	544,181	13,550	530,631
4.19.(일) 0시 기준	559,109	10,661	8,042	2,385	234	548,448	12,243	536,205
증감	4,275 (0.8%)	8 (0.1%)	105 (1.3%)	△99 (△4.0%)	2 (0.9%)	4,267 (0.8%)	△1,307 (△9.6%)	5,574 (1.1%)

- 새롭게 확진된 환자 8명의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2,385	334	12	928	36	8	14	7	17	270	23	7	19	8	7	251	31	7	406
격리 해제	8,042	288	115	5,743	55	22	25	34	29	370	28	38	122	9	8	1,057	85	6	8
사망	234	2	3	161	-	-	-	1	-	14	2	-	-	-	-	51	-	-	-
합계	10,661	624	130	6,832	91	30	39	42	46	654	53	45	141	17	15	1,359	116	13	414
증감	8	2	-	2	1	-	-	-	-	-	-	-	-	-	-	1	-	-	2
해외 유입	5	1	-	1	1	-	-	-	-	-	-	-	-	-	-	-	-	-	2
지역 발생	3	1	-	1	-	-	-	-	-	-	-	-	-	-	-	1	-	-	-

- \* 4월 18일 0시부터 4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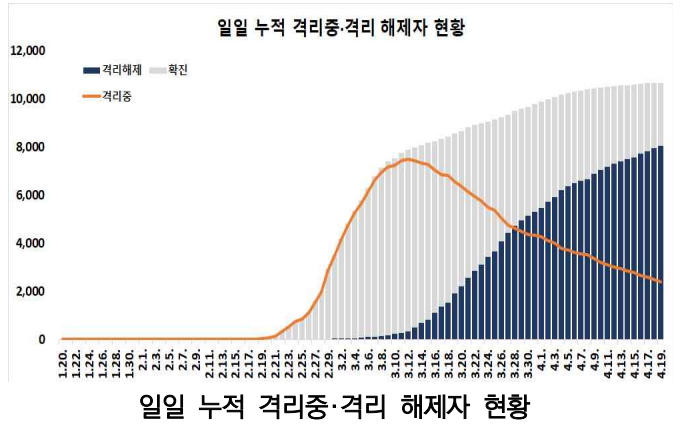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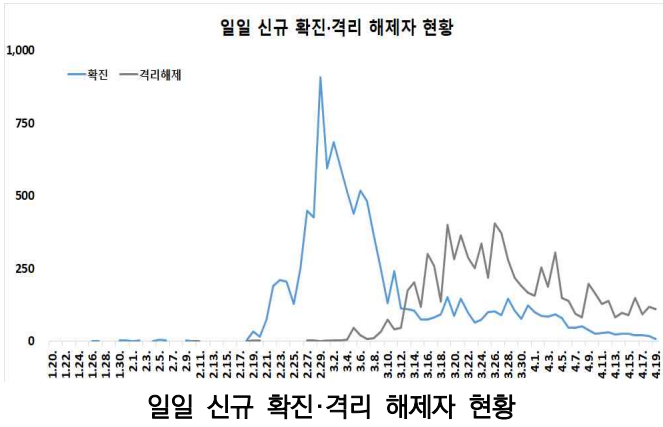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연령별 재양성자 현황

구분	계	(%)
계	179	(100.0)
80세 이상	16	(8.9)
70-79세	7	(3.9)
60-69세	20	(11.2)
50-59세	32	(17.9)
40-49세	25	(14.0)
30-39세	27	(15.1)
20-29세	41	(22.9)
10-19세	6	(3.3)
0-9세	5	(2.8)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4.19.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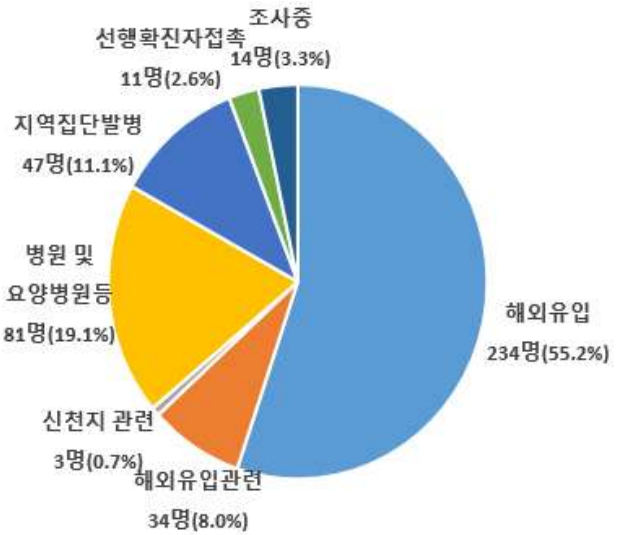


-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10,661명(전일 0시 기준 8명 추가)으로 보고되었고 이 중 8,042명이 격리해제 되어, 격리해제 환자 수는 증가하고,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격리 중 : 4.17. 2,576명 → 4.18. 2,484명 → 4.19. 2,385명 / 격리해제 : 4.17. 7,829명 → 4.18. 7,937명 → 4.19. 8,042명)
- \* 금일 신규 확진자 8명 중 검역과정에서 2명(25.0%)이 발생하였고, 서울 2명, 대구 2명으로 서울·대구가 전체의 50.0%를 차지함
- \* 또한, 신규 확진자 8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5건(62.5%)으로 유럽 등에서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유럽 2명, 미주 3명 / 내국인 5명, 외국인 0명 / 검역 2명, 지역사회 3명
- \* 누적 확진자 10,661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998명(9.3%)으로 확인됨  
· 유럽 439명, 미주 431명, 중국 외 아시아 108명, 중국 16명, 아프리카 3명, 호주 1명 / 내국인 915명, 외국인 83명 / 검역 414명, 지역사회 584명

-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2020.4.19. 00:00 기준)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감염경로 구분	신규환자	(%)
계	424	(100.0)
해외유입	234	(55.2)
해외유입 관련	34	(8.0)
신천지 관련	3	(0.7)
병원 및 요양병원 등	81	(19.1)
그 외 집단발생	47	(11.1)
선행 확진자 접촉	11	(2.6)
조사중	14	(3.3)



\* 4월 5일 0시부터 4월 19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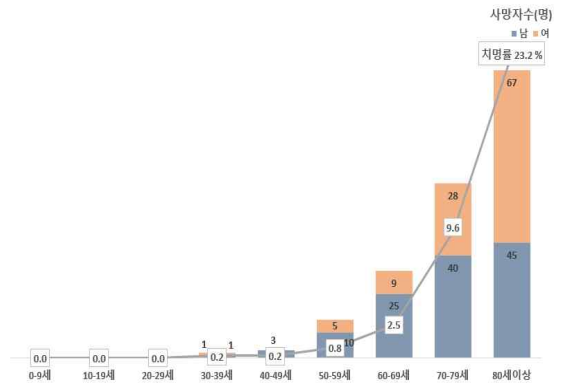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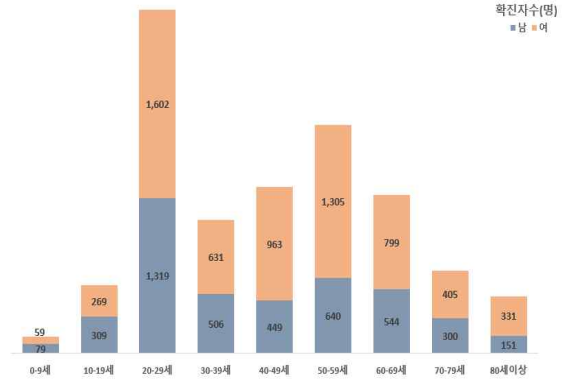
- \*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환자 424명 중 해외유입이 234명(55.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81명으로 19.1%의 비율을 차지함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4.19.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0,661	(100.0)	234	(100.0)	2.19	
성별	남성	4,297	(40.31)	124	(52.99)	2.89
	여성	6,364	(59.69)	110	(47.01)	1.73
연령	80세 이상	482	(4.52)	112	(47.86)	23.24
	70-79	705	(6.61)	68	(29.06)	9.65
	60-69	1,343	(12.60)	34	(14.53)	2.53
	50-59	1,945	(18.24)	15	(6.41)	0.77
	40-49	1,412	(13.24)	3	(1.28)	0.21
	30-39	1,137	(10.67)	2	(0.85)	0.18
	20-29	2,921	(27.40)	0	(0.00)	-
	10-19	578	(5.42)	0	(0.00)	-
	0-9	138	(1.29)	0	(0.00)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국내 확진자는 10,661명, 사망자는 234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2.19%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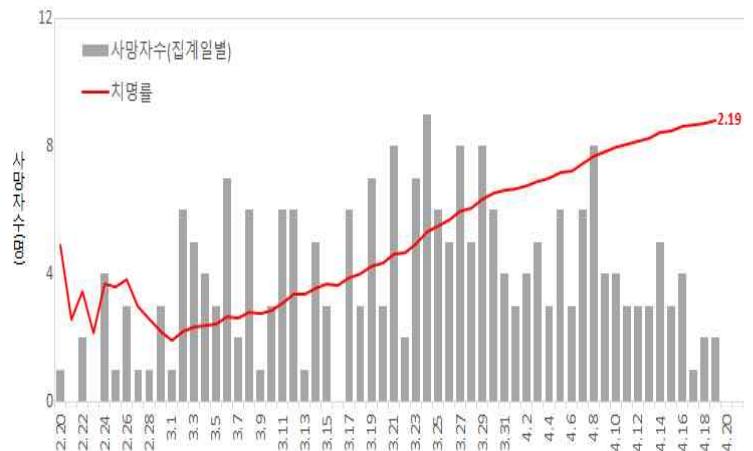
-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6,364명(59.69%)으로 남성 4,297명(40.3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124명(52.99%)으로 여성 110명(47.01%)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4,297명의 확진자 중 124명이 숨진 남성에서 2.89%로 여성 1.73%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921명(27.4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945명(18.24%), 40대 1,412명(13.24%), 60대 1,343명(12.60%) 순으로 나타남
-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14명(91.45%)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482명의 확진자 중 112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23.24%, 70대가 9.65%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위중·중증환자 현황

구분	계	중증 (%)	위중 (%)
계	57	22 (100.0)	35 (100.0)
80세 이상	10	4 (18.2)	6 (17.1)
70-79세	29	12 (54.5)	17 (48.6)
60-69세	12	4 (18.2)	8 (22.9)
50-59세	2	0 (0.0)	2 (5.7)
40-49세	2	0 (0.0)	2 (5.7)
30-39세	0	0 (0.0)	0 (0.0)
20-29세	2	2 (8.3)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일별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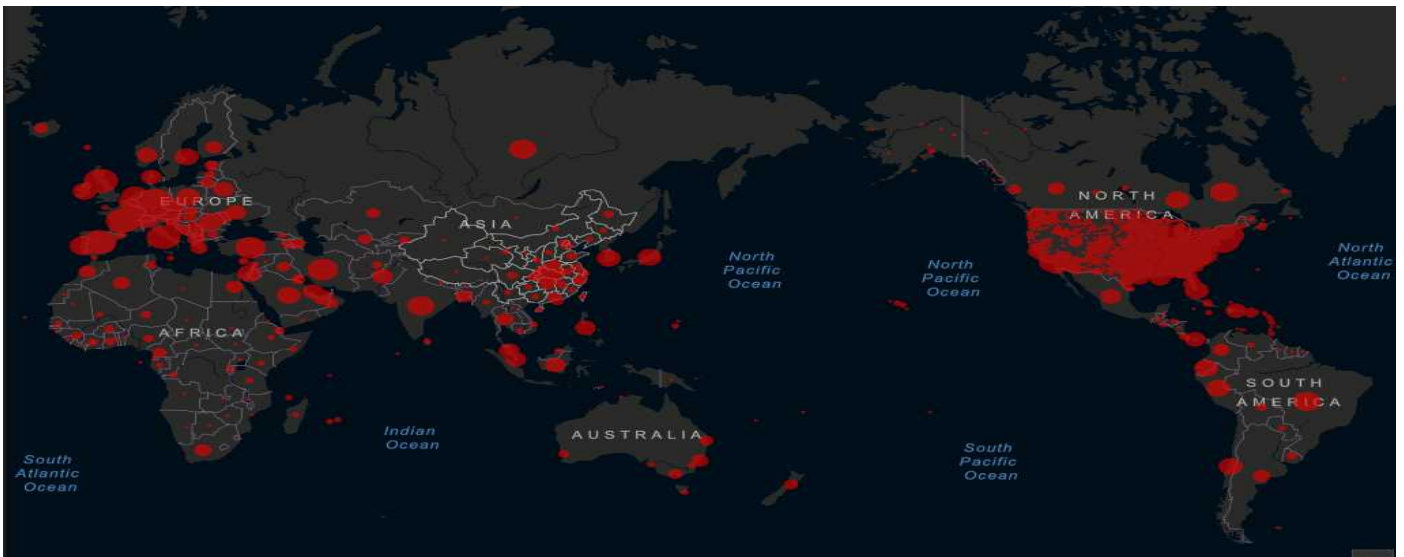
● 국외 발생 현황

- 4.19.까지 보고된 국외 총 확진자수는 **2,262,162명**으로 전일 대비 **3.85% 증가(83,879명 신규환자)**
- 이 중 **158,666 명(6,383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7.01%(전일 6.99%)**로 확인됨

국가 및 지역	확진자수(명,%)		사망자수(명,%)		치명률(%)	증가율(%) *전일 대비
아시아	186,388	8.2%	6,934	4.4%	3.72%	<b>4.90%</b>
중동	129,860	5.7%	6,206	3.9%	<b>4.78%</b>	3.51%
아메리카	859,013	<b>38.0%</b>	44,613	<b>28.1%</b>	<b>5.19%</b>	<b>4.96%</b>
유럽	1,063,405	<b>47.0%</b>	100,425	<b>63.3%</b>	<b>9.44%</b>	2.84%
오세아니아	7,651	0.3%	78	0.0%	1.02%	0.96%
아프리카	10,953	0.5%	265	0.2%	2.42%	<b>6.25%</b>
기타*(섬, 영토 등)	4,892	0.2%	145	0.1%	2.96%	2.09%
전세계	2,262,162	100.0%	158,666	100.0%	<b>7.01%</b>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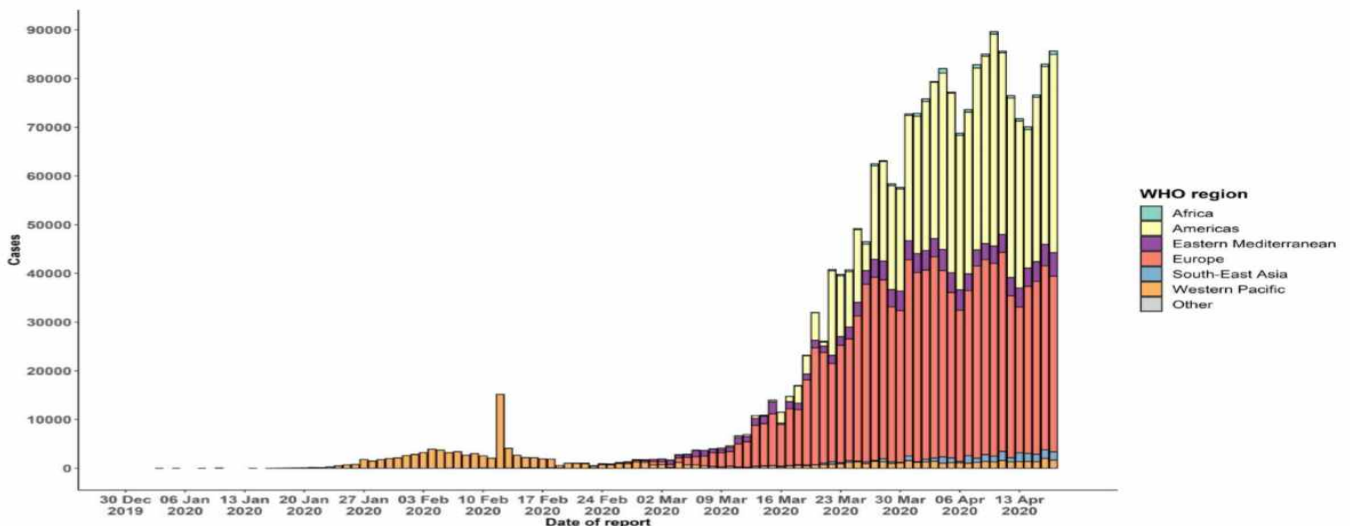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기타 영토는 WHO situation report 기준, \*증가율=(당일확진자-전일확진자)/전일확진자\*100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4. 19.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산 현황 (2020. 4. 19. 기준)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Figure 4. Epidemic curve of confirmed COVID-19, by date of report and WHO region through 18 April 2020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4. 19.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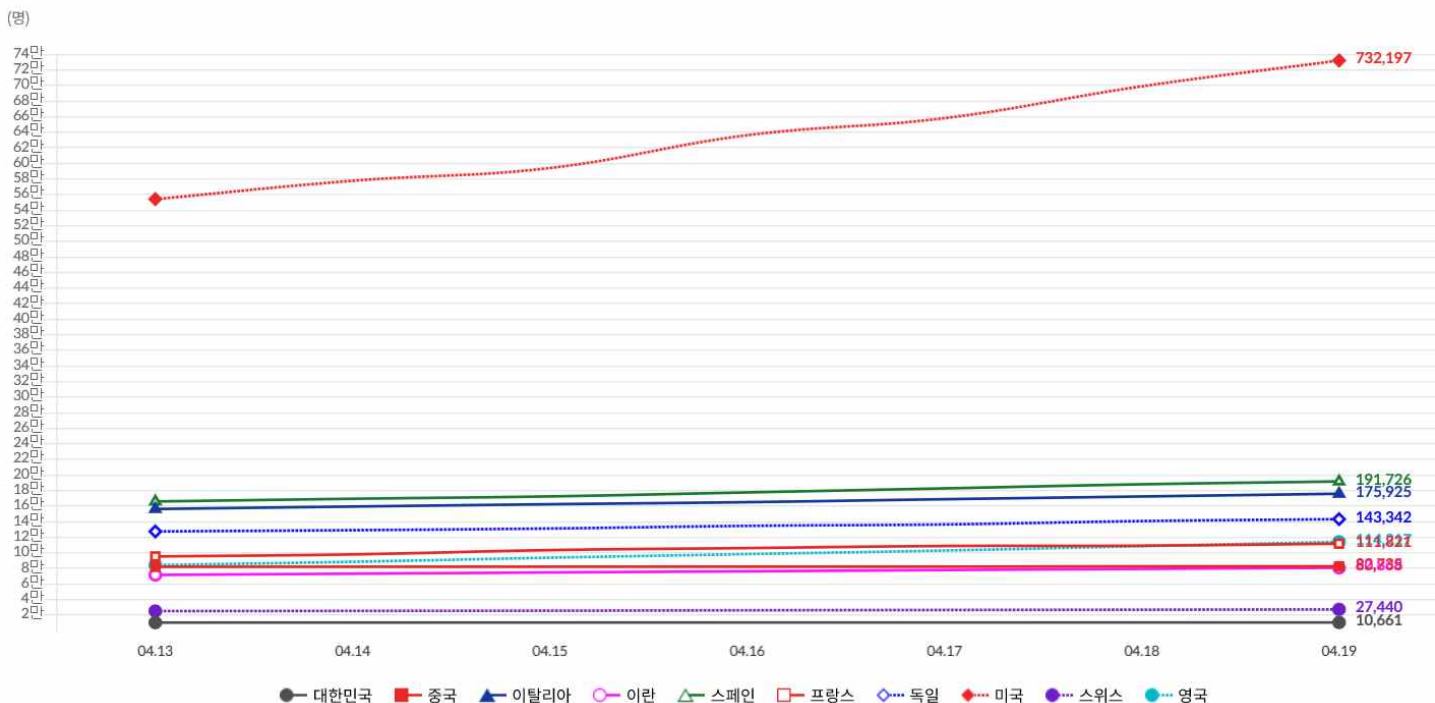
● **주요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4. 19.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치명률은 프랑스 17.28%, 영국 13.54%, 이탈리아 13.20%, 스페인 10.45%, 이란 6.22%, 중국 5.06%, 미국 5.28%, 스위스 4.05%, 독일 3.11%, 한국 2.19%순으로 높았음. 치명률은 유행기간이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할 전망
- 전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영국 5.08%, 미국 4.73%, 프랑스 2.35%, 이탈리아 2.02%, 스페인 1.95%, 독일 1.74%, 이란 1.73%, 스위스 1.34%, 한국 0.08%, 중국 0.02%순으로 높았음

국가	확진자 수(명)							누적 사망자 수(명)	전일대비 확진자 증가율(%)	치명률(%)
	4.13	4.14	4.15	4.16	4.17	4.18	4.19			
미국	554,226	577,842	594,207	636,350	658,263	699,105	732,197	38,664	4.73%	5.28%
스페인	166,019	169,496	172,541	177,633	182,816	188,068	191,726	20,043	1.95%	10.45%
이탈리아	156,363	159,516	162,488	165,155	168,941	172,434	175,925	23,227	2.02%	13.20%
독일	127,574	129,207	131,359	134,753	136,569	140,886	143,342	4,459	1.74%	3.11%
영국	84,279	88,621	93,873	98,476	103,093	108,692	114,217	15,464	5.08%	13.54%
프랑스	95,403	98,076	103,573	106,206	108,847	109,252	111,821	19,323	2.35%	17.28%
중국	82,160	82,249	82,295	82,341	82,367	82,719	82,735	4,632	0.02%	5.60%
이란	71,686	73,303	74,877	76,389	77,995	79,494	80,868	5,031	1.73%	6.22%
스위스	25,300	25,580	25,834	26,336	26,732	27,078	27,440	1,111	1.34%	4.05%
한국	10,537	10,564	10,591	10,613	10,635	10,653	10,661	234	0.08%	2.19%

총 국가수	181	181	181	181	182	182	182			
전세계 총환자수	1,788,348	1,854,196	1,915,819	2,012,810	2,081,151	2,178,283	2,262,162	-	3.85%	7.01%
전세계 총사망자수	112,883	118,036	124,529	133,215	141,770	152,283	158,666			

**주요 발생국가 주간 동향**



● **해외유입 현황** (2020. 4. 19. 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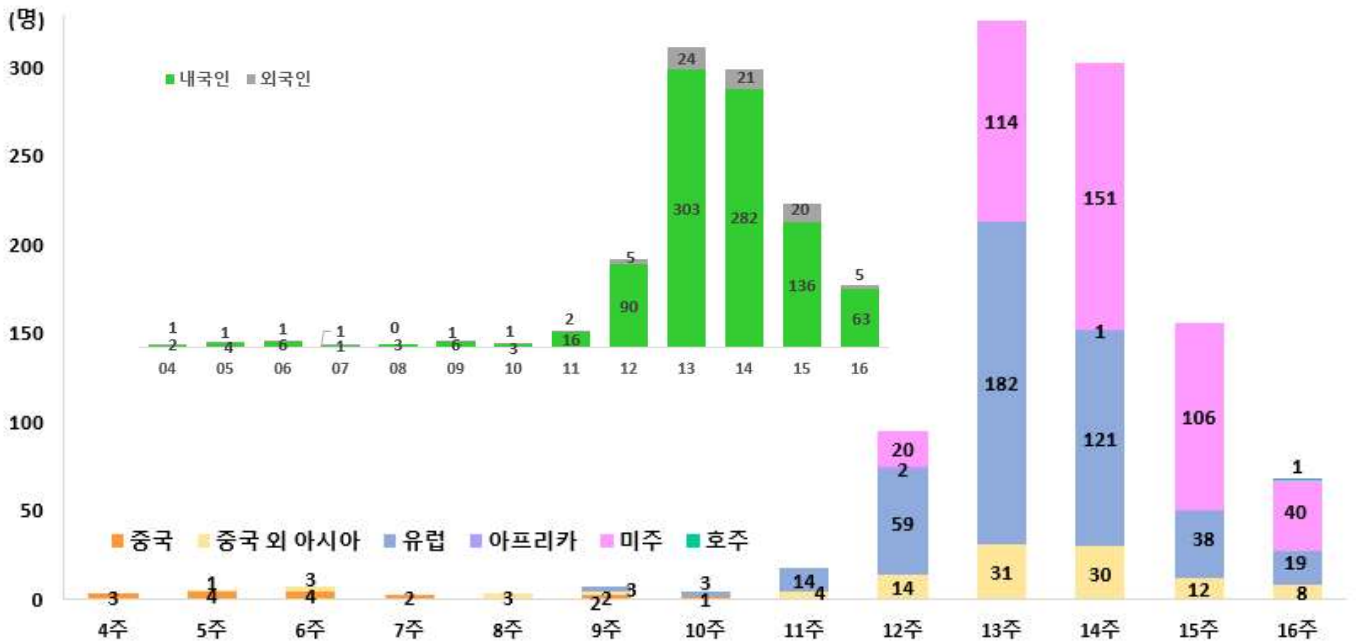
-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유입 환자는 5명이며, 유입 국가(지역)는 미주 3명, 유럽 2명
- 최근 3주 동안 해외유입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해외 입국 서울거주자는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선별검사,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  
·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규정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시 고발 조치 시행

〈해외유입 현황 4.19.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5	0	0	2	3	0	0	2	3	5
누계	998	16	108	439	431	3	1	414	584	915
		(1.6%)	(10.8%)	(44.0%)	(43.2%)	(0.3%)	(0.1%)	(41.5%)	(58.5%)	(91.7%)

확진자수(명)		여행국
중국	16	-
중국외아시아	108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등
유럽	439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등
아프리카	3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주	431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등

해외유입 추정현황(4.19. 0시 기준)



#### ● 서울시민 97% 생활방역 전환 필요...이전에 통제 가능한 대응체계 갖춰야

##### [시민 97% 생활방역체계 전환 필요성 인식, 그러나 63.6% 아직은 전환하기 이르다]

- 서울 시민의 대다수(97%)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시점인 4월 19일 이후에 일상생활을 일부 회복하여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51.3%)을 선택함
  - \* 그 외,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도와 심리불안 완화' (19.8%), '외출 및 신체적 활동 재개 필요' (13.5%)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음
-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점 판단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상관없이 정부가 통제가능한 대응체계가 갖춰졌다 판단할 때'가 36.5%로 1순위로 꼽혔다. 다음으로 신규확진자 10명 이하일 때 33.8%, 30명 이하일 때 19.6%, 50명 이하일 때 9.2% 순이었음
-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4월 19일 부터 바로 생활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가 33.4%, '전환 필요하지만 4월 19일은 조금 이르다'가 63.6%로 아직은 전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생활방역 전환 시 감염우려 여전... 밀접접촉 최소화 동선구축 등 철저히 준비해야]

-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시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무증상 감염 등 원인 미상 감염'(58.5%) 및 '새로운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41.6%)을 꼽았다. 시민 10명 중 3명은 국가통제 불가상황을 우려하기도 함
- 한편 가장 우려되는 시설 및 환경으로는 '유흥 및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46.9%)과 '보육 및 교육시설'(42.2%), 그리고 '대중교통'(35.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향후 생활방역 전환을 위한 준비 사항으로는 혼잡제한 좌석재배치 등 밀접접촉 최소화 동선(30.3%)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개인예방수칙 준수 관리(27.6%),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 대응시스템(17.9%) 순이었음

##### [사태장기화 및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생활방역 전환에 대한 요구로 이어져...]

-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확산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내에서는 올해 7~12월 중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51.8%, 연내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23.2%에 달함
- 한편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시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경기침체'(54.8%)를 전망, 10명 중 2명은 '대량해고 및 파산 등 대공황 수준의 위기'(22.1%)를 예상함
  -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에 대해서는 시민 절반 이상(54.2%)가 연내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 또한 경제 전망에 있어서도 대공황 수준의 경제위기 전망이 34.3%로 국내 수준보다 높아, 국제 상황에 비해서 국내 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관련 시민 불안심리에 대한 심층분석을 위해 감염병, 일상회복, 경제 및 사회관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느끼는 불안감의 수준도 물었음
- 조사 결과, '새로운 집단 감염 및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감 (92.8%)만큼이나, '내수·수출감소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92.2%), '사회변화로 인한 대규모 해고 및 실업률 증가'(91%) 등 경제적 영역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응답자의 48%, 가족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실직한 경우는 17.6%인 것으로 나타남
  -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큰 집단은 자영업자 및 생산·서비스직 등 블루칼라 직업군이었음
  - \* 자영업자의 경우 가계 수입이 감소한 경우가 72.8%, 가족 구성원 실직을 경험한 비율이 25.7%였고, 생산·서비스직에서는 각각 61.3%, 21.7%로 나타났음
  - \* 이는 사무, 관리 및 전문 직종이 포함된 화이트칼라 계층(39.8%, 14.8%)에 비해 유의미 하게 높은 수치임

##### [시민 10명 중 7명 코로나블루 경험, 가장 큰 이유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 한편 시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블루(corona + blue)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함’ (41.9%)이었으며, 그 외 ‘나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34.6%), ‘외부 및 신체활동 제한’(33.1%), ‘경제적 부담 및 불안’(29.5%) 등이 코로나블루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음
- \* 코로나 블루 원인에 대한 1순위 응답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도 관찰됨. 20대와 30대의 경우 ‘외부 및 신체활동 제한’을 1순위 원인으로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0대의 경우 ‘경제적 부담 및 불안’을 1순위로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우리 대처 역량에 대한 높은 신뢰도, 자부심 등 긍정적 정서는 생활방역 원동력 될 것]

- 생활방역단계로의 전환의 기초로서 시민들이 정부 및 사회의 대응 역량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도 조사함
- \*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감염자 치료(89.6%), 감염병 확산 제어(80.6%)와 같은 우리 사회의 감염병 관리 역량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10명 중 7명 이상이 생활방역을 위한 직장·학교·지역사회의 준비(73.5%), 가이드라인 등 정보제공 역량(73.2%), 정부의 행정지도 및 감독능력(71%)을 신뢰함
-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시민들이 경험하는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조사함
- \* 의료진 등 일선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93.7%), 우리 방역 능력에 대한 ‘자부심’(84.5%), 의료산업 등 사회적 발전에 대한 ‘기대감’(82.4%),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국민들에 대한 ‘감동’ (80.3%) 등 다양한 맥락에서 긍정적 정서를 느껴본 적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사회의 대처역량에 대한 높은 신뢰와 긍정적 정서의 경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심리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함

### [시민 76.9%, 서울시 대처 잘하고 있다. 대응 신속성 및 투명성에 대한 만족도 높아]

-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의 대처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임. 전체 응답자의 76.9%가 이번 사태에서 서울시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1%였음
- \* 구체적으로 대응의 신속성에 만족한 비율은 77.8%, 정보공개 투명성 78%, 행정조치의 적극성은 70.2%로 나타남

### ● 서울시 1분기 119구급대 이송환자 줄어…감염병관련 법 개정 필요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분기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며 “특히 3월에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전년 동월 대비 26.98% 줄었다.”라고 밝힘
- \* 지난해 119구급대를 이용한 환자는 339,124명으로 월평균 28,260명임
- \* 올 1월 27,472건 → 2월 21,788건 → 3월 19,676명으로 최근 3년간 구급대 이송 인원이 월 2만 명 이하로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임
-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외부활동이 줄고, 가능한 병원이용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힘

최근 3년간 월별 이송인원 현황 (단위: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	68,936	27,472	21,788	19,676									
'19	339,124	27,093	24,068	26,947	27,598	29,456	28,379	30,380	30,288	28,708	29,117	27,780	29,310
'18	353,574	31,318	25,985	27,843	27,872	30,652	29,739	32,346	32,218	29,122	28,765	27,271	30,443
'17	342,975	27,928	23,188	26,456	27,369	29,188	29,300	30,882	30,489	29,946	28,788	27,607	31,834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한편, 서울시 119구급대는 지난 1월 24일 이후 4월 16일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환자 총 4,553명을 이송했으며, 이중에서 16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음
-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4월 16일 현재 일일평균 의심환자 이송인원은 77명으로 4월 주간 집계에 따르면 2주 연속 평균을 밑돌고 있다.”라고 밝힘
- \* 4월 1주차에는 460명 이송에 일일평균 65명, 4월 2주차 454명 이송에 일일평균 64명이었으며, 확진자도 4월 1주차 42명(9.1%), 4월 2주차 37명(8.1%)으로 감소추세



구 분	누계(명) (1.24.~4.13. 07:00현재)	4월 1주차								4월 2주차							
		소계/평균	29 일	30 일	31 화	1 수	2 목	3 금	4 토	소계/평균	5 일	6 월	7 화	8 수	9 목	10 금	11 토
의심환자이송	4553	460/65	72	57	71	54	71	70	65	454/64	53	65	92	52	66	58	68
확진환자 (비율)	168 (3.6%)	42 (9.1%)	11	6	3	6	4	8	4	37 (8.1%)	6	0	9	9	5	7	1

출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또한,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119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분담을 위해 감염병 환자 이송 전문 장비인 ‘음압형 환자 이송장비’ 28대를 도입하고, 24개 소방서 현장대응단 119구급대와 2개 소방서(서대문, 강동) 음압 구급대에 배치·운영하고 있음
  - \*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운영으로 의심환자 이송 시 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게 되었음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코로나19 감염병 의심환자 병원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후 격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결국 대원이 격리되는 기간 동안 119소방력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
  -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內院)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시 소방재난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인’의 범위에 119구급대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향후에도 감염병 환자 이송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숨김없이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구급대원이 격리되는 일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범위에 119구급대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는 119신고접수 단계에서 국외 방문이력에 이어, 미각, 후각 상실여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사전에 걸러낼 계획
  - \*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외로부터 입국여부를 밝히지 않고 119구급대를 이용했다가 병원이송 후에 구급대원이 격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힘
  - \* 4월 16일 현재까지 현장 활동 등으로 자가 격리 되었던 소방공무원은 총 1,127명이며, 자가 격리중인 소방공무원은 총 8명임

●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2일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국민인식조사(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 병행)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대하여 36.7%가 동의하였고, 63.3%가 반대함
-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동의한 구체적인 이유는 ▲국민이 일상에서도 생활방역 수칙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확진자 수가 충분히 감소했기 때문에 19.6%,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9.1%,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17.7%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66.2%,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4.4%,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13.3%, ▲국민들이 생활방역 수칙에 익숙하지 않아 안내·교육 기간이 필요해서라는 의견이 6.2%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반대한 국민 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적정 시기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국제상황, 백신·치료제 등을 고려한 방역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며 기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 ▲2~4주 후 18.0%, ▲4주 후 10%, ▲2주 이내 5.5%
- 한편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야외 활동 및 스포츠 시설 20.0%, ▲실내 활동 및 스포츠 시설 18.7%, ▲실내 좌석시설 및 숙박시설 9.0% 순으로 나타남
  - \* 이번 조사는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하였고,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p 임

●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 4월 19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9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하여 결정함
- 중대본은 3월 22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였고,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대유행과 해외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지속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이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해왔음
  - \* 중대본은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감소, 집단 감염 건수 감소 등 긍정적인 방역성고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힘
- 하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 \* 또한, 전문가를 비롯한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자체 간담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 의견도 현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성급히 중단하고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 \*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함
- 이에, 중대본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하여,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하기로 함**
-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함
  - \*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하여 공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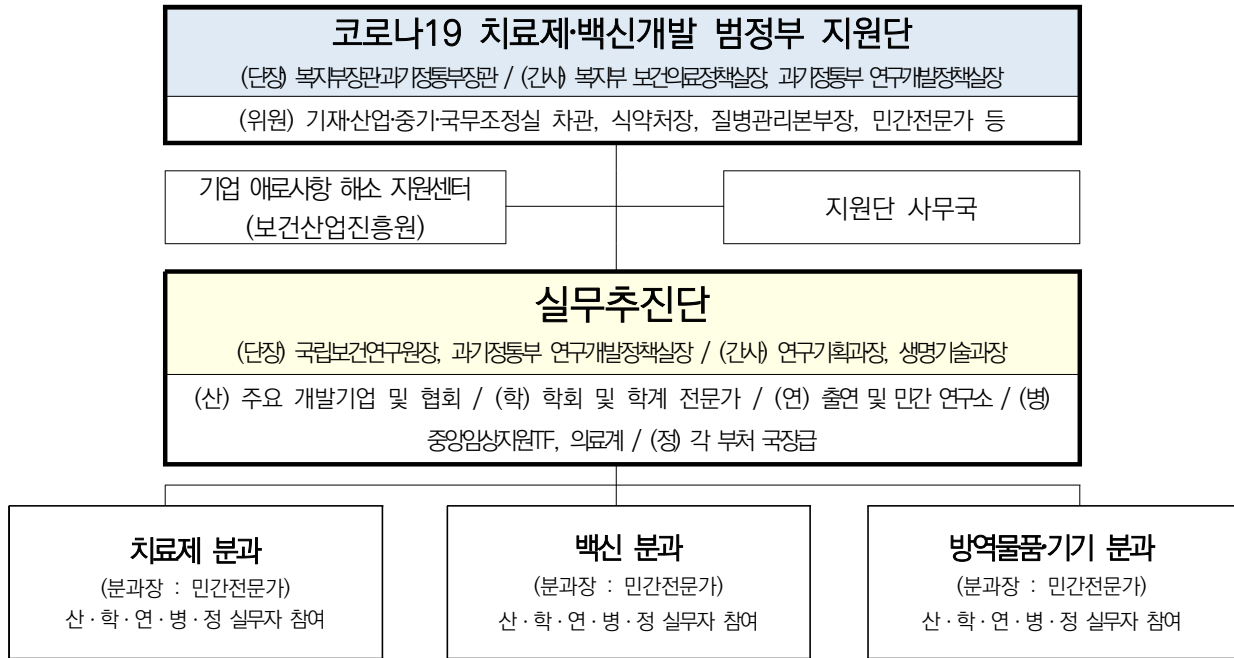
- \*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함
  - \*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체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함
  - \*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또한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힘
- \*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하여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 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 \* 또한,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음
  - \* 다만,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한편, 중대본은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없다고 강조함
- \*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상황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하여 조절할 계획임
- 중대본은 지금까지 우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와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협조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음

#### ●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족과 따로 사는 분들의 공적 마스크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4월 20일(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힘**
- \* 종전에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만 가족용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었으나, 유관부처와 약사회 등과 협의하여 4월 20일(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대리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는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②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③ 임신부, ④ 병원 입원환자, ⑤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임
- \* ①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와 ②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음
  - \* ③ 임신부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요양기관이 발급한 대리구매 대상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음
  - \* ④ 병원 입원환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음
  - \* ⑤ 장기요양 수급자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대리구매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음
- 아울러, 국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약 46만명)의 경우, 4월 20일(월)부터는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음
- \*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지침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또는 거소증
  - \* 건강보험 가입 장기체류 외국인(118만명)은 공적 마스크 기 구입 가능
-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가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마스크 5부제 등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 정부는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 산·학·연·병 합동회의를 계기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함
  - \* 보건복지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공동단장), 관계부처(기재산업중기부·국무조정실) 차관, 질병관리본부장, 식약처장, 민간전문가 등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연구개발, 생산, 국가 비축, 방역 현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상황 분석 및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 실무추진단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의 각 3개 분과별로 산·학·연·병·정 관계자로 구성하고, 각 분과장 및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된 총괄분과를 두어 운영함



- ‘범정부 실무추진단’은 4.17일(금) 오전 8시, 한국프레스센터(매화홀)에서 국립보건연구원장·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정책실장 공동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함
  - \*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연구개발 현황 및 방역물품기기 수급 상황에 대해 점검
  - \*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의 역할과 관계부처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특히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유망 아이টে에 대한 정부 R&D 투자 확대, 기초연구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적 연구개발 지원, 인허가제품화 관련 규제개선 방안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로드맵”을 마련하여 범정부 지원단에 상정할 계획임
  - \*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 산하 3개 분과별(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매주 상시적·집중적 논의를 통해 세부 의제를 발굴하고, 관련 사항을 총괄분과에서 협의해 나갈 예정
  - \* 또한,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될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연계하여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임
  - \* 아울러, 출연(연),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통해 과학기술적 애로사항 해결방안 모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임
- 공동추진단장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 백신의 조기 개발과 방역물품기기의 적재적소 보급이 필수적”이며, “실무추진단이 범정부 지원단을 뒷받침하여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 **생활방역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 조사(2,200명 참여)를 실시하였고,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 마련 과정에서 반영함
- 지난 국민 의견 수렴에 이어,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궁금증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지난 4월 12

**일(일)부터 26일(일)까지 2주간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 중임**

- \* 핵심수칙 : ①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③ 자주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④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 이번 설문조사에는 현재까지 5,135명(4.15일 13시 기준)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생활방역 핵심수칙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음

**생활방역 대국민 의견수렴 중간결과(4.15. 13시 기준)**

주요 궁금증	제안 의견
<b>제 1 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인의 처우(급여, 휴가 등 기준)</li> <li>• 실내에서 가족과의 생활 시 지켜야 하는 행동 수칙 (가족과 분리방법, 고령자 주의사항 등)</li> <li>• 외출 시 기준(가능 범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사업주의 제도 개선</li> <li>• 재택근무 활성화</li> <li>•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 추진</li> </ul>
<b>제 2 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둡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이용 시 기준</li> <li>• 공공장소 등 밀폐 공간에서의 대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배차간격 조정</li> <li>• 공공장소에서의 간격 유지를 위한 테이블 배치, 칸막이 설치</li> </ul>
<b>제 3 수칙)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 할 때 옷소매로 가립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을 씻는 구체적인 사용법 (물, 비누, 소독제 등)</li> <li>• 주기, 횟수, 종류</li> <li>• 소독 제품 성분의 감염 예방 효과, 부작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독제 휴대화(포켓 세정제) 및 공공장소 비치 등 손씻기 환경 조성</li> <li>• 손등 인사법</li> <li>• 마스크 착용 및 옷소매 기침 예절 생활화</li> </ul>
<b>제 4 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합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기에 대한 기준(횟수, 주기 등)</li> <li>• 미세먼지 대처법, 공기청정기 대체 가능</li> <li>• 소독에 대한 기본정보(방법, 제품, 성분 등)</li> <li>• 공공장소 등 외부공간의 이용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독방역용품, 소독제 등 제반 지원</li> <li>• 소독법, 체계적인 소독 관리 등 지속적인 국민 안내 필요성</li> </ul>
<b>제 5 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칙 기준과 범위가 모호</li> <li>• 취약계층(홀로 계신 노모, 장애인 등)에 대한 수칙 이행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사각지대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취약 계층 등)대상 SNS, 비대면 소통 지원, 통화 요금 감면</li> <li>• 서로 밀어내지 않고(혐오, 따돌림, 낙인 등), 마음을 좁힐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li> </ul>

-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 마련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임
- 국민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공식 누리집(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보건복지부 공식 SNS(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 아울러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인터넷 '구글 설문 폼(http://bitly.kr/vAaTwiqv)'으로 접속해 의견을 남기면 된다. 의견을 낸 국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지급할 계획임

**● 국민연금, 위기대응 T/F 가동 등 코로나19 대응**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4월 17일(금) 2020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함
- \*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코로나19 위기대응 현황' 및 '2021-2025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받음
- 기금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9일(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촉된 상근전문위원의 역할과 기대 등에 대해 논의함
-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로 기금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방어해 국민의 노후소득인 국민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함
- 코로나19 위기대응 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월 28일(금)부터 위기대응 특별팀(T/F)을 가동해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모니터링) 있음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산가격이 급락해 목표 비중 등을 고려하여 3월에 총 4차례의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추가 매입함
- 또한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 조달이 국내 외환시장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장평균환율(MAR) 거래 확



대 및 거래일 분산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국민연금의 대응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로서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국민연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전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 올해 하반기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면 기본 방향을 유지하여 국내자산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를 확대함
  - \* 내년까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외채권 유동화를 통해 저평가된 우수 위험자산 매입을 검토하는 등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2021~2025년 중기자산배분(안)은 아직 세계 및 국내 경제성장률 등 구체적 지표가 발표되지 않아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함
- 또한 대체투자 기대수익률 산출방식 개선안, 현행 환헤지 정책의 적정성, 금융시장 과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 자산배분안은 다음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임
  - \*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 축소를 위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해 환헤지 비율 0% 설정, 단, 해외채권에 한해 이종통화를 미국 달러로 100% 헤지

### ● 해외입국자 현황

- 4월 18일(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국적별 내외국인 입국자 현황과 지난 3월 25일부터 외국인 체류자격별 입국자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먼저, 국민 입국자의 경우 4월1일부터 4월12일 사이에 일평균 3,611명이 입국하였으며, 이 중 20~30대 입국자가 1,439명(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 또한 4월13일 이후 국민입국자는 2천명 초반대로 감소하였고, 20~30대 입국자도 1천명 미만으로 줄었으나, 전체 입국자 대비 비율이 높아 해외유학생 등의 입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에는 4월1일부터 4월12일 사이에 일평균 1,332명이 입국하였으며, 유학생 일평균 387명(29%), 단기체류자 일평균 266명(20%) 등의 순서로 나타남
  - \* 한편, 무사증입국 정지 조치가 시행된 4월13일 이후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가 감소(4.1~1.12일 일평균 1,332명 → 4.16일 836명)하였는데, 4월13일 조치의 직접적 대상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큰 폭으로 감소(4.1~1.12일 일평균 266명 → 4.16일 70명)하고 있음
  - \* 특히, 무사증입국 정지 조치가 완전히 적용된 4월15일에는 77명, 4월16일에는 70명이 입국하여 4월1일부터 4월12일 사이에 일평균 입국자 266명에 비해 각각 71%, 74% 감소함

### ● 해외입국자 교통지원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해외입국자가 인천공항에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감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교통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승용차 귀가를 적극 유도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 공항버스와 KTX(전용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항철도와 시내버스의 이용은 금지하고 있음
  - \* 수도권은 전용 공항버스(1일 평균 117회)로 총 38개 지역 거점까지 이동하고, 장거리 지역은 전용 셔틀버스로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KTX(전용칸, 1일 45회)로 거점 역까지 이동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거점에서 보건소자택 등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병 전파가 없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한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심야시간대(22시~07시)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간을 KTX 및 공항버스 이용이 가능한 시간대(05시~20시)로 조정하여 인천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임
  - \* ①해외입국자와 일반인용으로 승강장을 분리, ②방역조치 택시(비닐 칸막이 설치 또는 방호복 착용 등)만 해외입국자 승강장으로 진입하도록 제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 중 승용차나 택시 이용 비율이 평시 대비 약 1.5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보면,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다른 국민과 접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함



- \* 해외입국자 교통수단별 이용현황 (4.1 ~ 4.15, 총 71,862명) : 승용차택시 60%(43,104명), 전용 공항버스 19.8%(14,265명), 셔틀버스 및 KTX 15.4% (11,051명), 전세버스 3.6%(2,611명), 기타 1.2%(831명) 순
- 앞으로도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 스페인 귀국 국민 현황

- 지난 4월11일에 1차로 입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39명 중 12명이 유증상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1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되었음
- 그 외 11명과 무증상자 27명은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되어 총 38명이 임시생활시설(성남 코이카연수센터)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는 중이고, 이후 2차 검사하여 전원 음성 판정되는 경우 4월26일에 격리해제 될 예정임
- 현재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 내 시설관리,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또한, 지난 4월13일에 2차로 입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43명 중 유증상자 15명과 무증상자 28명은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되었음
  - \* 이후 어제(4월17일)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 되어 자가격리로 전환하였고, 4월 28일에 모두 격리해제 될 계획임
- 스페인 귀국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가격리로 전환된 2차 귀국 국민들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관리되며, 매일 어플리케이션, 전화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받게 됨

### ● 우리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남미 국가와 공유

-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를 4월 21일(화) 오전 7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중남미 국가의 한국 감염병 대처·대응 경험 공유 요청 증가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음
- 국내 의료진의 강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되고, 참석자는 대화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남미 국가와의 시차를 고려하여 오전 7시부터 8시 55분까지 개최할 예정임
  - \* 메디컬 코리아 웨비나 사이트: <https://www.ustream.tv/medicalkorea>
- 이번 웹 세미나는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역학분석, ▲코로나19 진단·검사, ▲치료 임상 경험 및 ▲환자·직원 관리 사례 발표 후, 대화창을 통해 참여자의 질문에 응답·논의할 예정임
  - \* 현재 중남미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4.17일 12:00 기준 칠레 의사협회 및 우루과이 보건 당국자 등 240여 명 신청)하고 있으며, 전체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할 예정임
- 신종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선언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각국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험 공유 및 정보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음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각국의 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 웹 세미나」를 지난 4월 9일(목)에 진행하였으며, 당시 75개국에서 1,111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 국가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인 동시에, 한국 보건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함



전 세계 코로나19 현황 진단 및 주요 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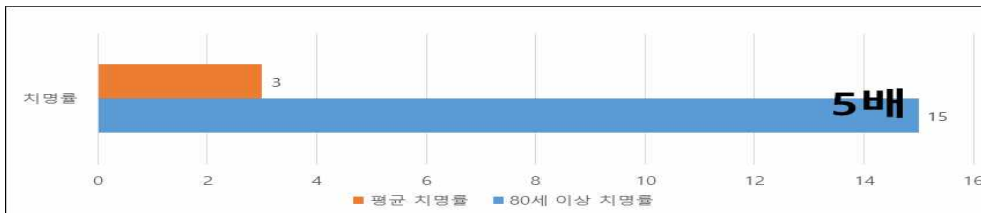
COVID19 Strategy: Current Situation and Key Insights

- 코로나19는 지금까지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새로운 질병이다. 이 질병은 사스(SARS), 메르스(MERS)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전파되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WHO와 여러 국가, 국제 사회 기관들이 합심하여 의학적 치료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백신 및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 코로나19 발생국가 통계로 보면 코로나 감염자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20%는 가벼운 증상, 40%는 폐렴과 같은 중증도의 증상을, 15%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심각 증상을, 5%는 치명적 경각 증상을 호소하였다.

<코로나 확진자별 증상 비율>



- 국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조사망률은 주 국가 내 감염자들의 인구특성, 바이러스 검사 및 치료의 접근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 감염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으면 사망자수가 많았으며 입원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한 국가들도 대대적인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국가에 비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 국가별 평균적인 코로나19 치명률은 3%였으나, 모든 국가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상악화가 심해져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치명률은 15%이상이었다.
  - 코로나에 따른 질병발생률 또한 상당히 높다. 특히 혈액 순환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자, 면역질환자들은 더 위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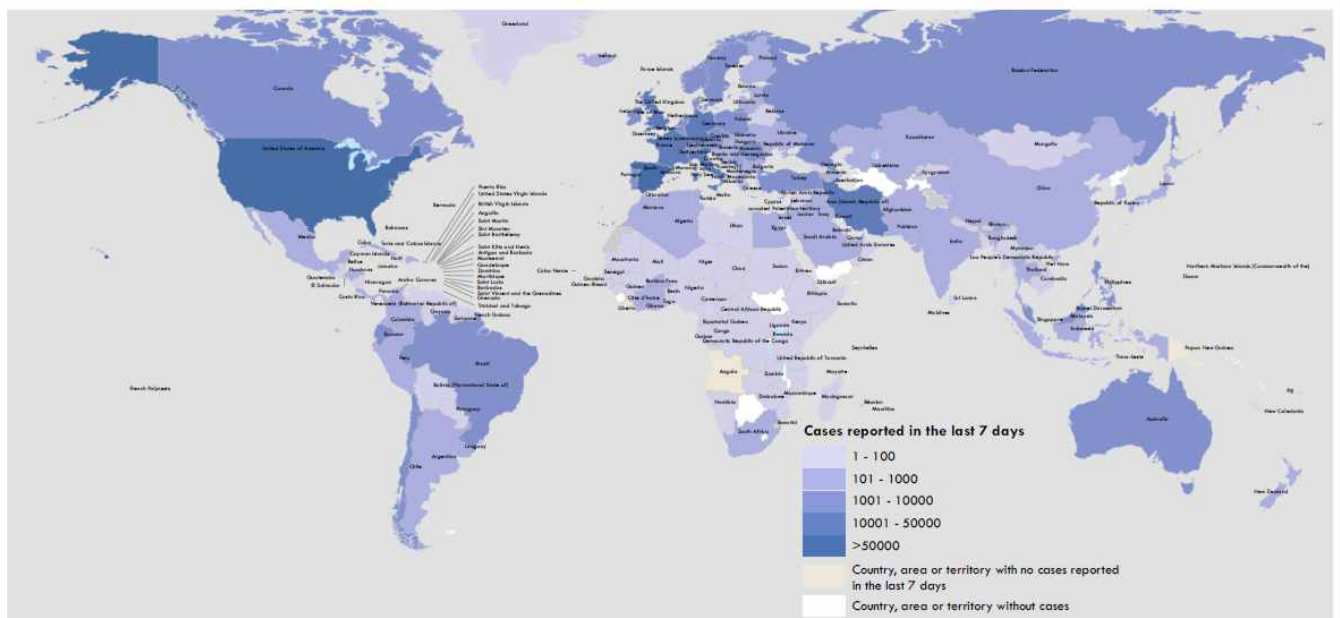
- 각 국가들과 국가 내 지역들은 서로 다른 코로나 확산 단계를 지나고 있다. 그 중 발 빠른 조치들을 수행한 곳은 코로나 19의 발병속도를 늦추어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 신속한 확진자 선별, 검사, 격리, 접촉자 관리 및 격리 등과 같은 조치들은 가장 성공적인 관리 방식인 것이 증명되었다.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지역은 병원에 중증 환자가 쏠려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은 국가 필수의료서비스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 많은 국가들에서 급격한 코로나19 증가 우려 때문에 “셧다운” 조치를 통해 지역을 봉쇄하고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위 조치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낮추어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켰다.
  - 국민들과 사회 전반의 사회적·경제적 활동도 함께 중단되었다.
  - 빈곤계층, 이민자, 난민들과 같이 인구 밀집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구호물품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살이형” 경제 노동에 의존하던 집단들이었기 때문이다.
- 물리적·사회적 사회 봉쇄정책을 도입했던 국가들은 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일상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회복하면서 지속적인 감염 억제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2차 코로나19 파동이 발생할 것이다.
  - 일상회복 조치 전에 대대적인 공공의료 확충, 의료적 역량의 증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아직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은 머뭇할 시간이 없다. 신속히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교훈들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에 대처하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과제〉

- 세계적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병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염속도를 낮추는 것과 보건의료시스템을 보호하는 조치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정확한 진단과 2)효과적인 격리, 3)확진자에 대한 치료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중증도의 환자들도 생활치료, 자가 요양 조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확진자 선별을 위한 선별검사와 중증도 환자에 대한 치료 준비,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고위험 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 하지만 경증, 중증도 환자들에 대한 조치들이나 접촉자 추적관리를 담당하는 역학조사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였다.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 모든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국가 내에서는 공공의료 역량에 대한 대대적인 증대가 가장 긴급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세계는 현재 감염병 대유행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처해있다. 세계 연구진들은 상호 협력하여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체계화 하고 있다. 세계 연구에 힘입어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염력, 여러 가능한 정책들의 효과와 부작용의 크기, 질병의 상태변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resilience)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 속도, 규모, 형평성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바이러스의 엄청난 전파력 때문에 모든 조치와 대응들은 하루라도 더 빠르게 시행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났으며,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이 감염 가능한 대상이므로 전국적 규모의 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했다. 또한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형평적인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했다.
- 더 큰 위험이 발생가능하다면 집중적인 자원 확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적인 위기이며 함께 극복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 세계 국가들 간의 연대가 어느 때 보다 가장 필요하다.

3월 31일 기준 지난 6일간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

Figure 1 Countries, areas or territories with COVID-19 cases reported in the last 7 days, as of 31 March 2020, 10:00 (CET)



[1] All references to Kosovo in this document should be understood to be in the context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244 (1999).  
 Number of cases of Serbia and Kosovo (UNSCR 1244, 1999) have been aggregated for visualization purposes.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on this map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city or area or of its authorities, or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ts frontiers or boundaries. Dotted and dashed lines on maps represent approximate border lines for which there may not yet be full agreement.

Data Source: WHO and ministries of health

서울시 내부 보도자료 2020.4.17.(금)

서울시민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 결과(불안심리, 생활방역 전환 등)

2020.04.10.~13(3일간) 1,000명 온라인패널조사

조사대상	서울 만18세~69세 남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방법	자체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표본추출	성/연령/권역 비례 할당추출
표본수	1,000명	응답률	글로벌리서치 보유 패널
조사기간	2020년 04월 10일~13일(3일간)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
조사기획	서울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여론조사 개요

-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이 경험하는 실제적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관련 시민의 불안심리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생활방역, 민생경제 등에서의 선제적 정책개발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함

**A**    코로나-19 전망 및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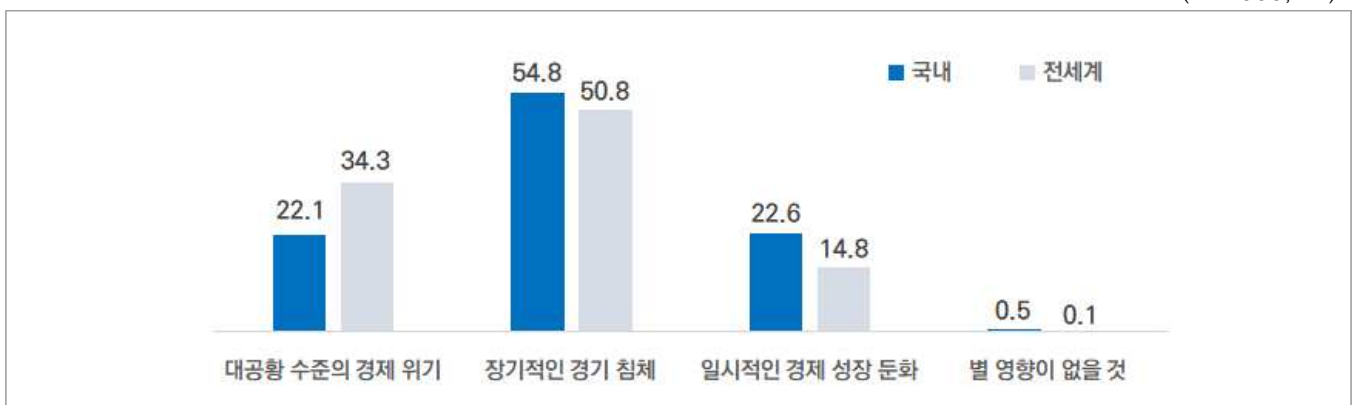
A01.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전세계)

(N=1000, %)



A02.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전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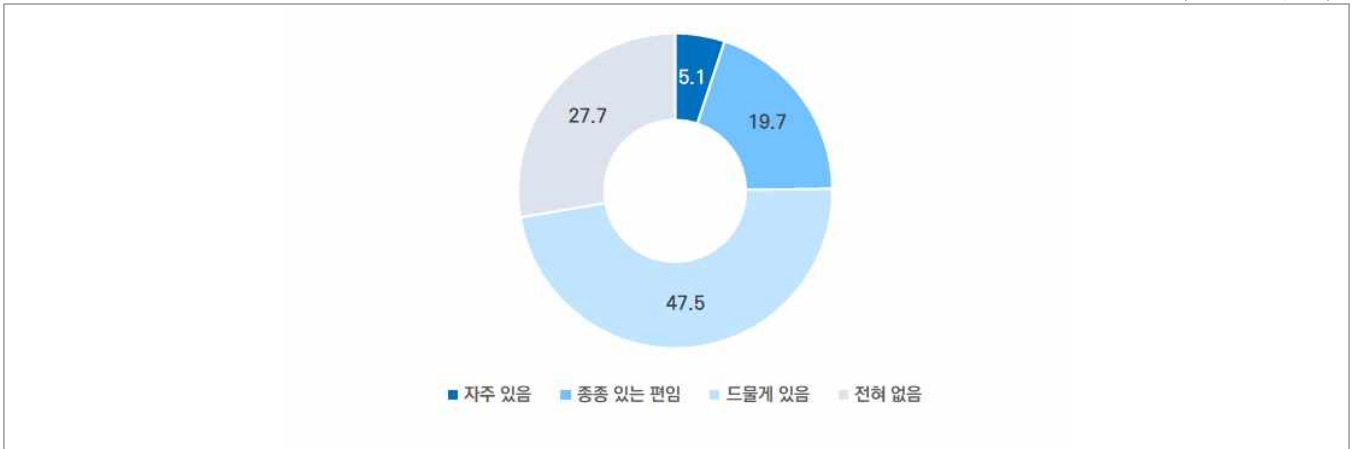
(N=1000, %)



## B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상태 및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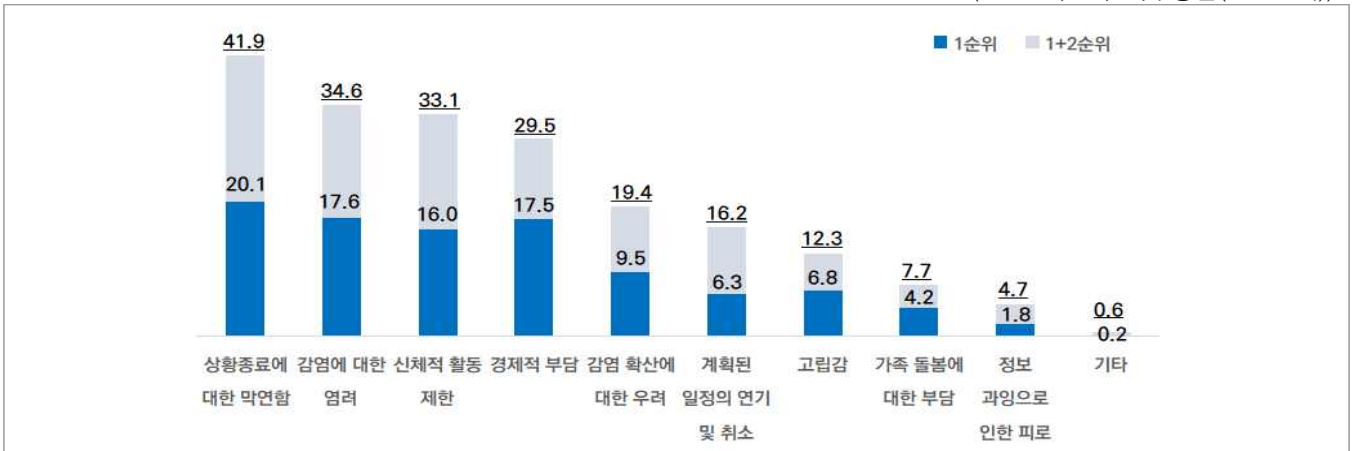
B01. 선생님께서는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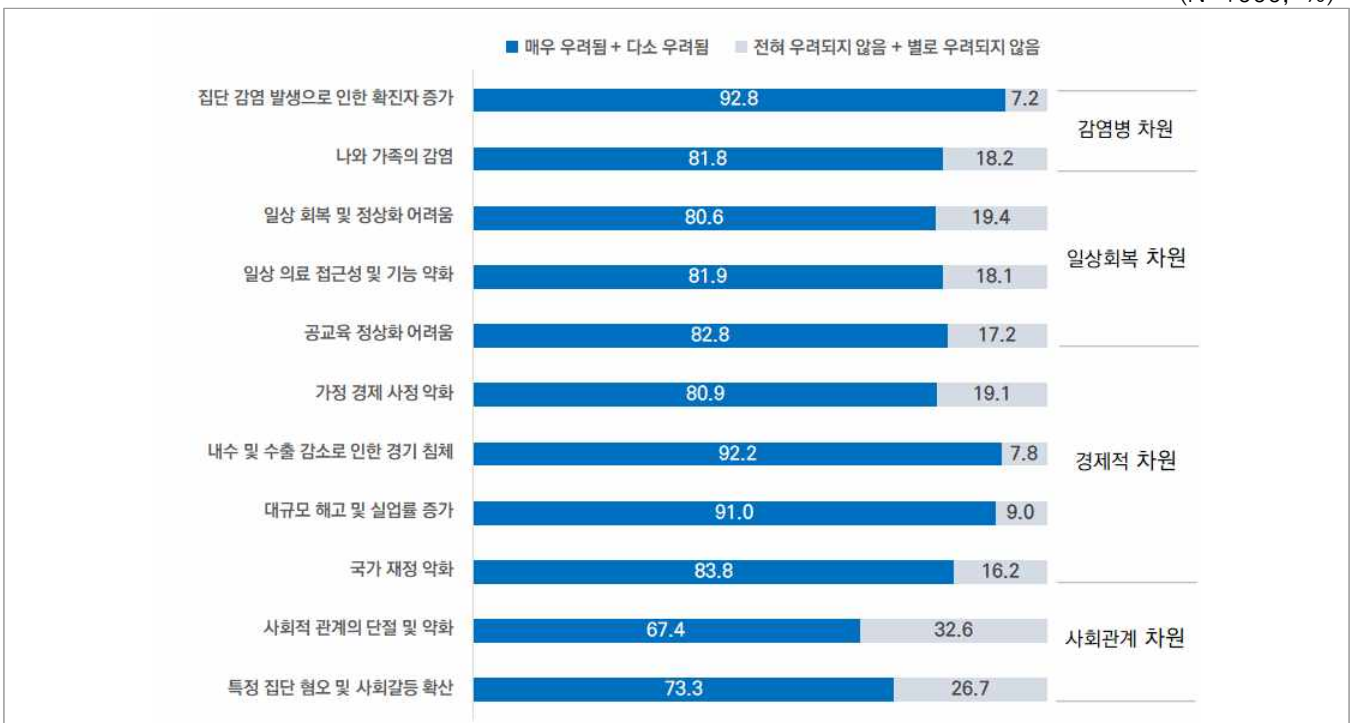
B02. [코로나 블루 경험자] 선생님께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N=723, %, 복수응답(1+2순위))



B03.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의 각 상황이 어느 정도 우려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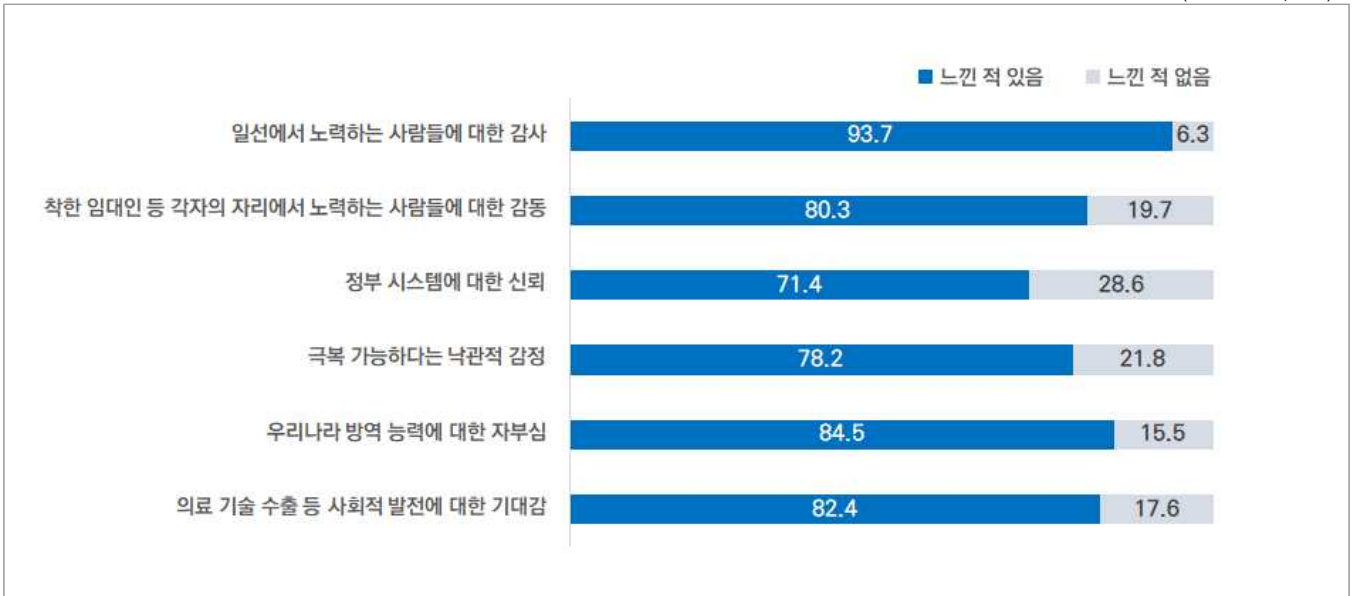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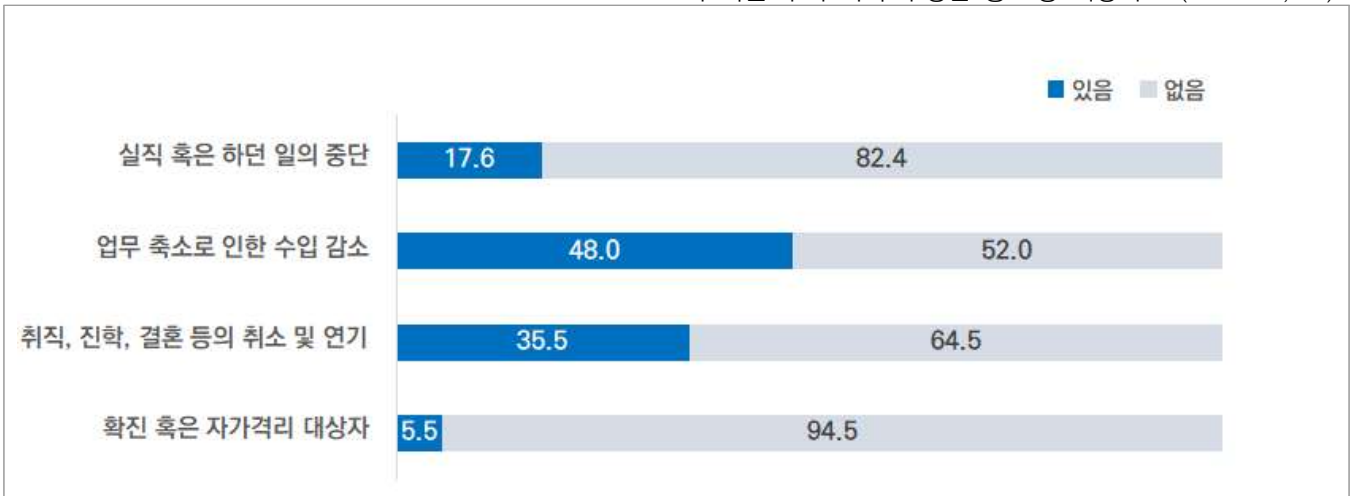
B04. 코로나19를 경험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감정을 최근 2주일 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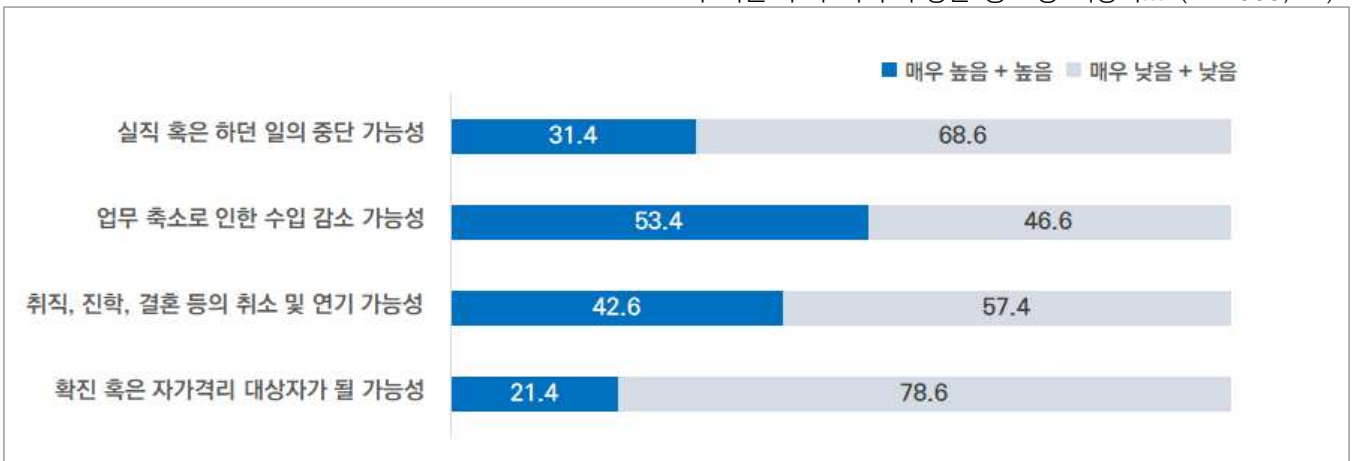
B05.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해 각 사항별로 응답하여 주세요.

나 혹은 우리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N=1000, %)



B06. 코로나19가 계속됨으로 인해 다음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세요.

나 혹은 우리 가족 구성원 중 1명 이상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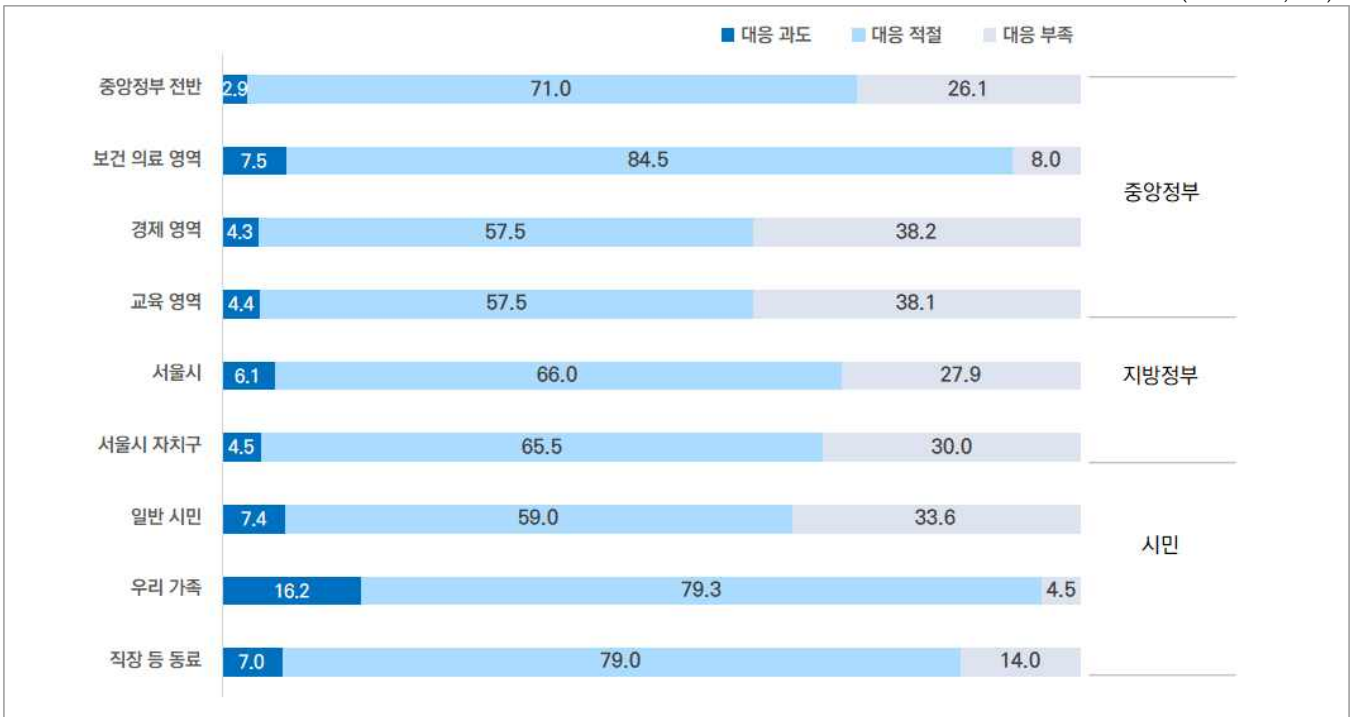


C

코로나 대응 역량 및 생활 방역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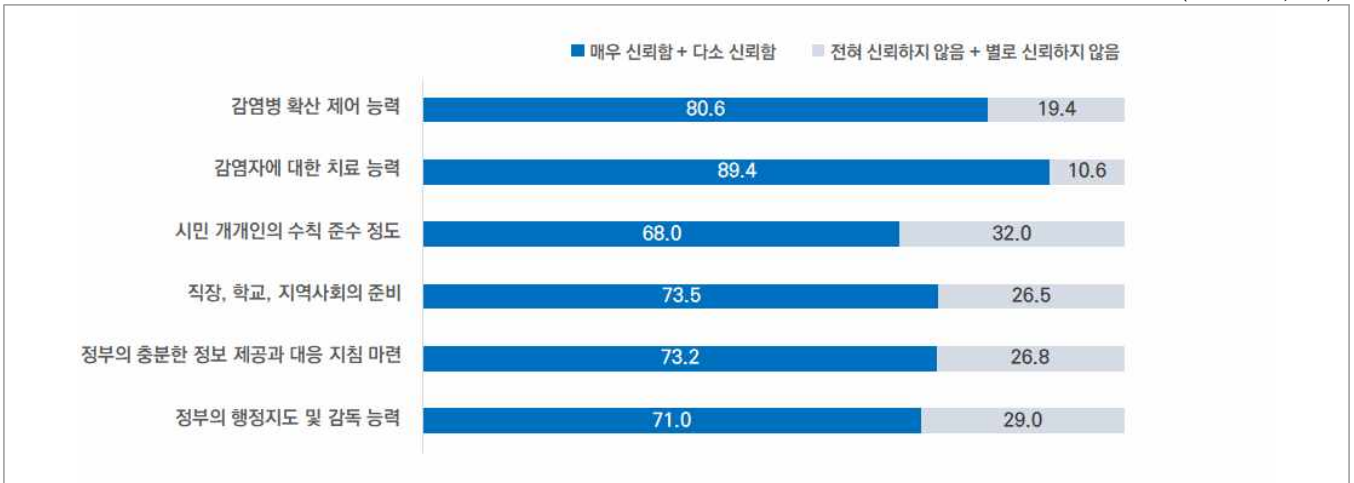
C01.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해 다음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주요 영역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N=1000, %)



C02.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과 관련한 우리 정부 및 사회의 대처 능력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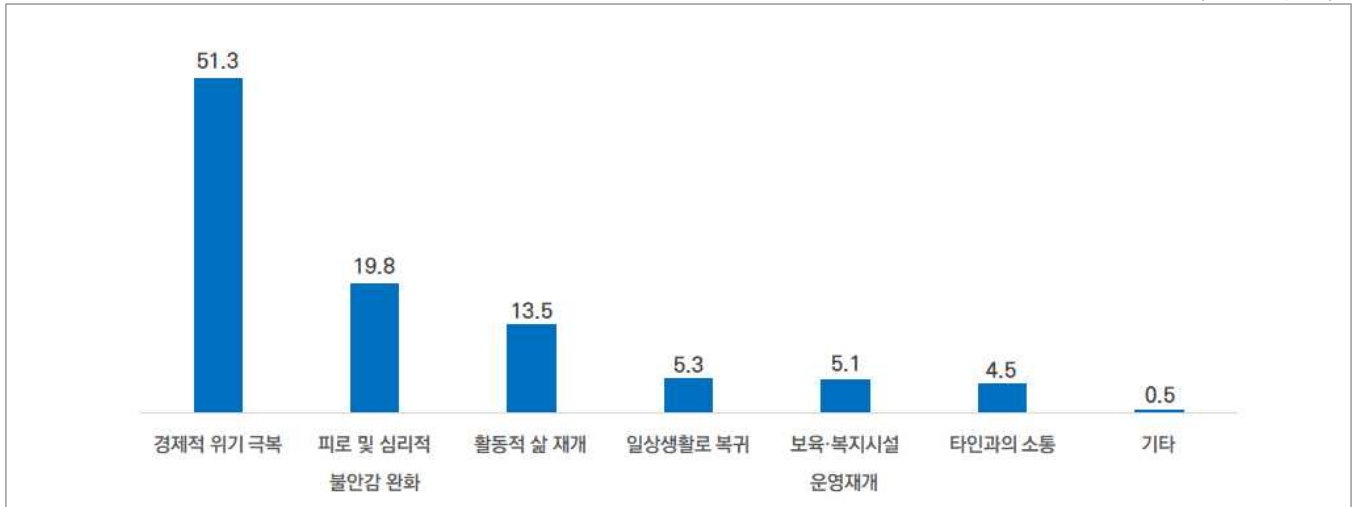
C03. 선생님께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예고 시점인 4월 19일 이후에 일상생활을 회복하여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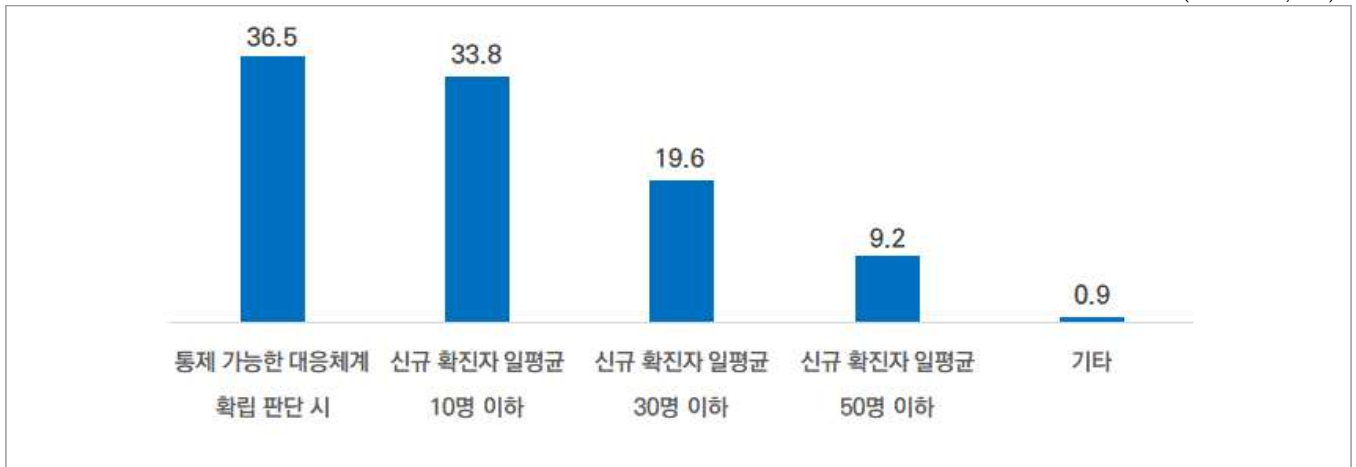
C03-1. [생활방역체계 필요 응답자]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이유는 무엇입니까?

(N=9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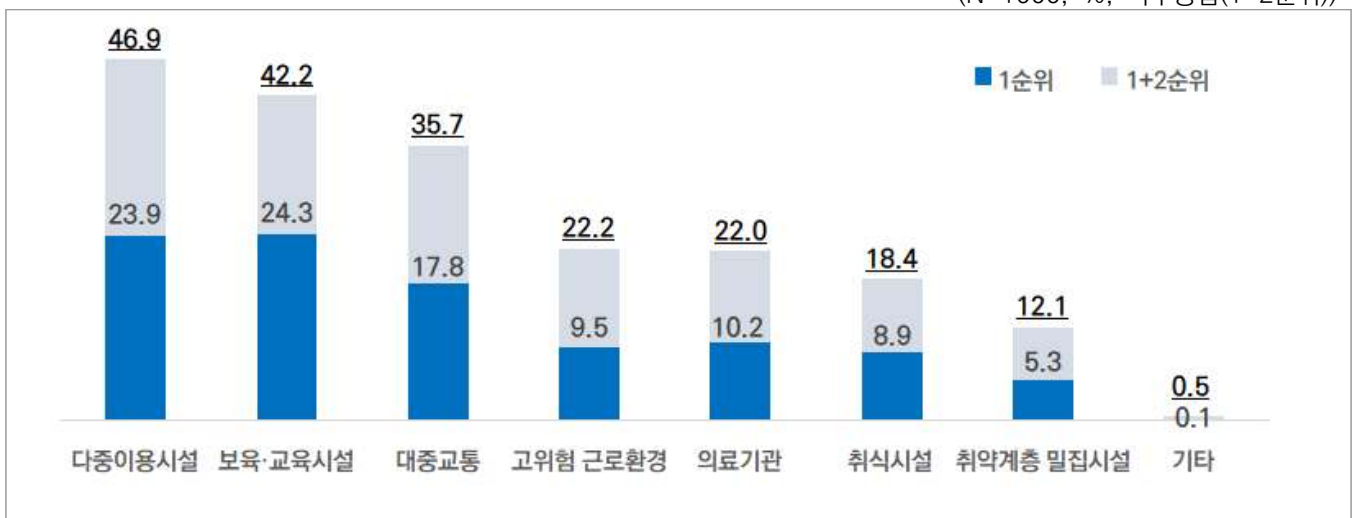
C04. 귀하께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생활습관처럼 실천하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점은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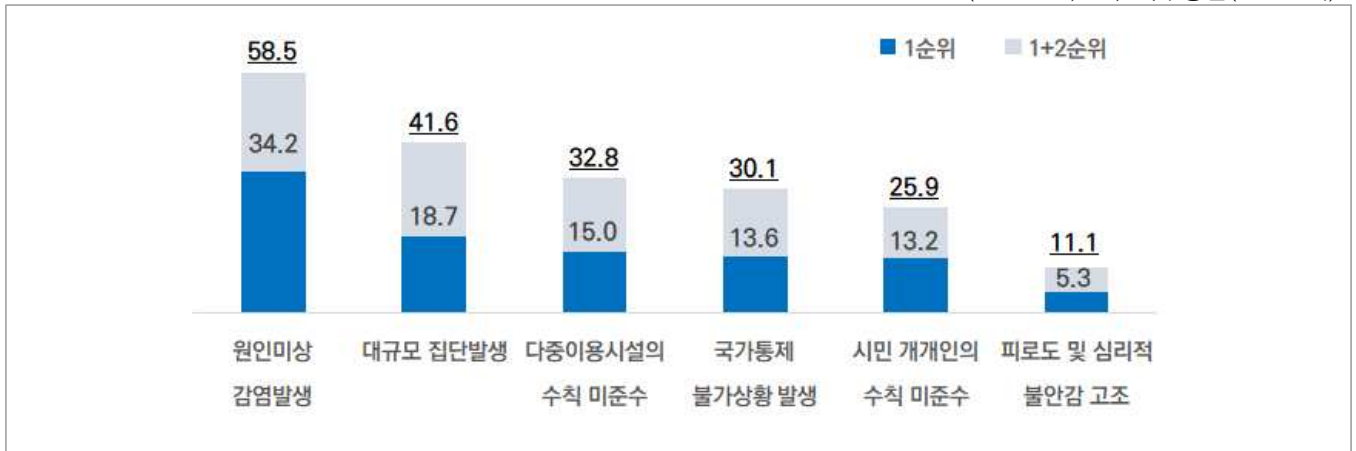
C05.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일상 생활이 정상화 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N=1000, %, 복수응답(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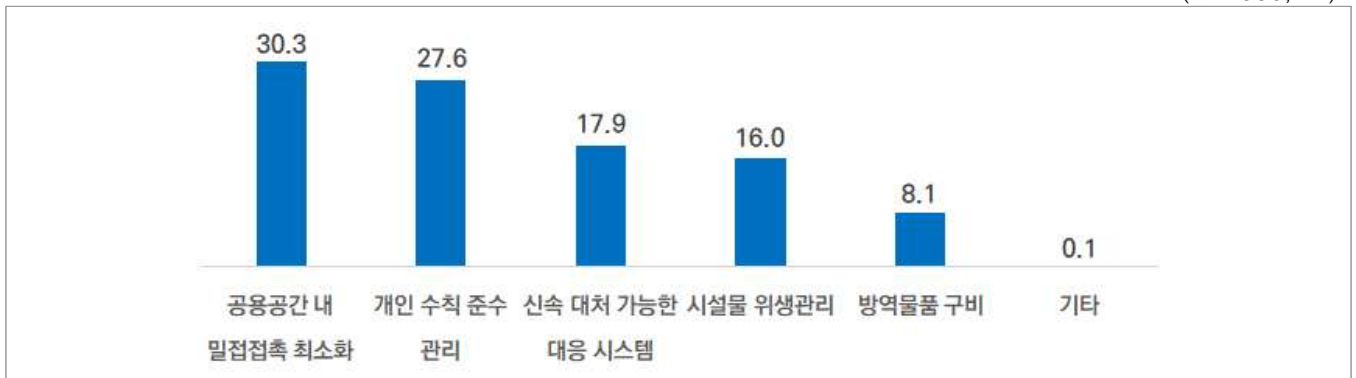
C06.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여 일상 생활이 정상화 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대로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N=1000, %, 복수응답(1+2순위))



C07. 생활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직장, 병원, 학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N=1000, %)



## D 서울시 대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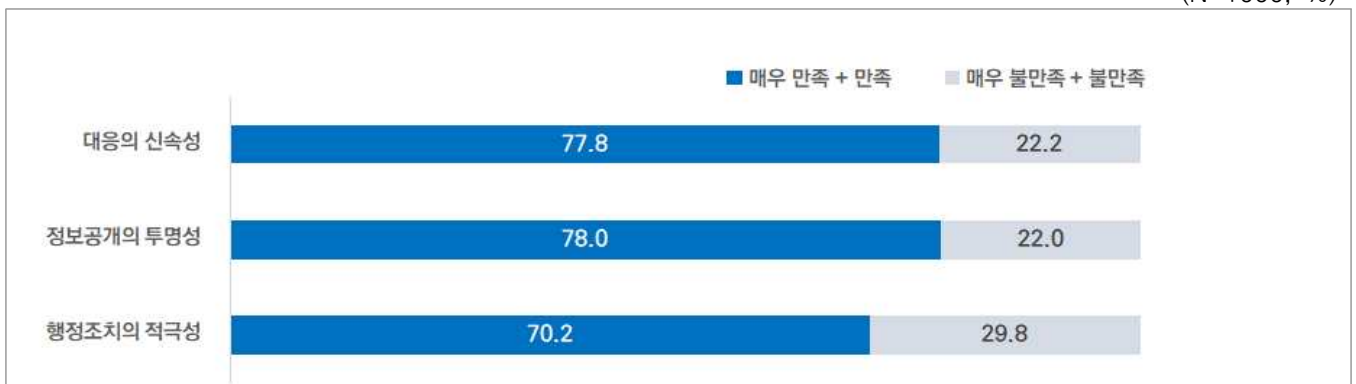
D01.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1000, %)



D02.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서울시 대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N=1000, %)



국내 코로나19 재양성자 발생 현황

□ 개요(4.17. 0시 기준, 163명)

- 4.8일 첫 보고 사례 이후 4.17일 0시까지 총 163명의 재양성자 발생
  - 격리해제 된 확진환자 총 7,829명 대비 2.1%

□ 재양성자 특성

- (인구학적 특성)
  - (성별) 남자 54명(33.1%), 여자 109명(66.9%)
  - (연령별) 20대 38명(23.3%), 50대 32명(19.6%), 30대 24명(14.7%), 40대 19명, 60대 18명, 80대 이상 15명, 10대·70대 6명, 10대 미만 5명
  - (지역별) 대구 67명(41.1%), 경북 54명(33.1%), 경기 13명(8.0%), 서울 7명, 세종 5명, 강원·충남·경남 각 3명, 울산·충북 각 2명, 인천·대전·제주·검역 각 1명
- (재양성까지 기간) 격리해제 이후 재양성까지 평균 13.5일(최소 1일~최대 35일)
- (임상 및 역학 분석) 재양성자 163명 중 임상 및 역학정보가 있는 137명 대상 분석 결과
  - (증상여부) 있음 61명(44.5%), 없음 72명(52.6%), 조사중 4명(2.9%)
    - \* 모두 경미한 증상(경증)을 보임
  - (접촉자 모니터링) 접촉자 294명 중 38명의 모니터링 완료, 256명 모니터링 중
  - (접촉자 모니터링 결과) 동거가족 162명, 그 외 접촉자 132명
    - \* 동거가족에서만 13명의 확진자 보고(신규사례가 아닌 재양성자)

국내 코로나19 재양성자 발생 현황

구분	명	비율(%)
총 재양성자 수(4.17. 0시 기준)	163	(100.0%)
성별	남	54 (33.1%)
	여	109 (66.9%)
연령별	80세 이상	15 (9.2%)
	70-79세	6 (3.7%)
	60-69세	18 (11.0%)
	50-59세	32 (19.6%)
	40-49세	19 (11.7%)
	30-39세	24 (14.7%)
	20-29세	38 (23.3%)
	10-19세	6 (3.7%)
10세 미만	5 (3.1%)	
신고지역	서울	7 (4.3%)
	대구	67 (41.1%)
	인천	1 (0.6%)
	대전	1 (0.6%)
	울산	2 (1.2%)
	세종	5 (3.1%)
	경기	13 (8.0%)
	강원	3 (1.8%)
	충북	2 (1.2%)
	충남	3 (1.8%)
	경북	54 (33.1%)
	경남	3 (1.8%)
	제주	1 (0.6%)
	검역	1 (0.6%)

※ 신고 및 보고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추후 수정·보완될 수 있음



일자	국내 발생(명)	정부	서울시
'20.01.03.	-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 우한시 발 항공편 입국자 검역 강화 - 중국 보건당국,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우한 방문 또는 체류자 발열, 호흡기증상 시 1339 신고 당부	
'20.01.08.	-	· 국내 조사대상 첫 유증상자 발생 - 중국 국적 36세 여성 1명, 유증상자 분류되어 격리, 치료, 검사 실시 - 접촉자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시작(29명)	
'20.01.11.	-	· 첫 유증상자 PCR 검사 결과 음성 - 유증상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
'20.01.13.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석·검사법 개발 착수	
'20.01.16.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 강화 -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 유증상자 신속한 사례분류,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절차(3판)' 배포('20.1.17.) - 각 시·도 대책반 구성,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 가동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PCR 검사 이관, 지역별 신속검사 가능하도록 계획	
<b>stage 1 중국 유입,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b>			
'20.01.20.	확진:1(+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b>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b> - 35세 여성(중국국적) 인천공항 검역과정 발열 등 유증상	· 서울시 확진자 최초발생 ※ 공식자료 기반 후향적 확진일자 재추정
'20.01.23.	확진:1(-) 확진:1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로 상향	
'20.01.24.	확진:2(+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확진자 확인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근무자(55세, 한국인 남성), 김포공항 검역과정 유증상 확인 · WHO 긴급위원회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아니야"	· 서울시 '신종 코로나 방역대책 반 가동' 선언후 24시간 대응
'20.01.26.	확진:3(+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한국인(54세 남성), 1.20. 귀국 · 질병관리본부, 중국 전역 검역대상 오염지역 지정, 사례정의 확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사례정의 확대로 격리 및 감시대상자 큰 폭 증가	-
'20.01.27.	확진:4(+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후 귀국, 55세 남자 한국인 · 보건복지부, 감염병 <b>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b> · 보건복지부, 「 <b>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b> 」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기능 전환	-
'20.01.28.	확진:4(-) ※미발표	·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대응체계 강화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추가 확대(1.28. 현재 288개 운영) - 1339 상담센터 상담 인력(27명→170명) 추가 확보 - 감염병관리병상 추가 확보 계획 수립(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 병원, 161 병실) - 민간의료기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가능 하도록 기술과 자료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수위 '보통→높음'으로 조정	· 보건소(25개), 시립병원(4개) 선별진료소 운영 · 격리병상 7개 상시 가동 준비 · 중국동포 밀집지역 임시 신고·지정 센터 지정 · 예방 등 시민 집중 홍보 안내 강화
'20.01.30.	확진:6(+2) 확진: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환자 2명 확인, <b>첫 2차 감염 사례 발생</b> - 우한 방문 후 귀국(32세 남자 한국인), 세 번째 확진자 접촉자(56세 남자 한국인)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 개최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등 범부처 총력 대응 · 민간 협력으로 진단 빠른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 구축·검증·평가 완료 - real time RT-PCR, 1회 검사로 확진, 6시간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1.31.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실시 · 의료기관 DUR, ITS를 통한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 중국 우한시 입국자 208명 전수 조사 진행 · 관광 위기관리TF 체계 구성 · 서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매일 유튜브 생방송 실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이송지원반 확대 운영
'20.01.31.	확진:11(+5) ※미발표	· <b>우한교민 368명 1차 입국</b> , 유증상 18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역학조사 경과발표, 접촉자 자기격리 및 심층조사 시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기준" 안내 · 보건소 선별진료서 이동형 X-ray 장비 구매 188억원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확산 사건 수사 의뢰 · WHO 현지시각 1.30. " <b>국제보건위기상황</b> " 선포	· 선별진료소 58개소 확대 - 시립병원 4개소 추가 - 서울의료원 응급실 유증상 전용응급실로 전환 - 이동 선별진료소 7개 설치 지원 · 역학조사단 4→11명 확대 · 검사가능 강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1.	확진: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관계부처 합동 확대 개편</li> <li>- 중국 유학생, 여행자, 근로자 등 관련 방역 관리방안 범부처적 안건 논의</li> <li>· <b>우한교민 333명 2차 입국</b>, 유증상자 7명, 국립의료원 이송</li> <li>·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하는 고시가 법제처 검토 완료</li> </ul>	
	※미발표		
'20.02.02.	확진: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선별진료소 288개→532개로 대폭 확대</li> <li>· 1339 상담인력 (1.31.)38명→126명(2.1.)→188(2.4.) 계획</li> <li>· 우한입국 교민 총 701명 검체 채취 검사, 1차 입국자 1명 확진</li> <li>-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56명 입소</li> <li>-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종료 후 한 차례 더 진단검사 시행</li> </ul>	
	※미발표		
'20.02.03.	확진: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차관→장관)주재로 격상</li> <li>· <b>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2.4.0시부터)</b></li> <li>·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li> <li>·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 설치, 특별입국절차 진행</li> <li>- 특별입국절차: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거주지, 실연력처 확인 후 입국 허용</li> <li>·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폐지,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li> <li>· 중국 유입 추정 9명, 일본 확진자 접촉 1명, 국내 2차 감염 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li> <li>- 기금 자금 5,000억원 지원</li> <li>- 금리 0.5%p인하 등</li> <li>- 관광객 집중지역 방역소독</li> <li>· <b>대외협력기금 2억원 지원</b></li> <li>- 우한교민 격리 주변 지역 의약품 지원</li> </ul>
	※미발표		
'20.02.04.	확진: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li> <li>- 지역사회 확산 방지, 조기 진단위해 2.7.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li> <li>· 1339, 129, 공단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포함 총 596명 상담 배치</li> <li>· 우한지역 입국자 명단 서울시 송부, 소재 및 위치 파악 전수조사 협업</li> <li>·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배포</li> <li>- 중국 전 지역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 14일간 업무 배제, 등원 중단 권고</li> <li>-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li> <li>· 16번째 환자, 태국 여행 후 확진(태국 정부 확진자 관련 자료 공유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버스, 택시 감염 예방 본격 돌입</li> <li>- 대중교통 대대적 방역</li> <li>· <b>DDP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b></li> <li>- 방역 매주 실시</li> <li>- 열화상 카메라, 세정제 등 배치</li> </ul>
	※미발표		
'20.02.05.	확진:19(+3) 완치: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번째 환자, 확진자 중 처음 퇴원</li> <li>·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바이러스 분리 성공</li> <l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 BetaCoV/Korea/KCDC03/2020</li> <li>- 유전정보 공개,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li> <li>· 국립보건연구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착수</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와 마스크 수급 대책 마련</li> <li>· 국민 정보 제공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홈페이지 개설</li> <li>-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ncov.mohw.go.kr</li> <li>-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팩트 체크, 대응지침, 홍보자료 등 신속 제공</li> <li>·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일본 직원 사칭에 대한 수사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업소 802곳 집중점검, 확산 차단</li> <li>- 3개 시장 75명 투입, 선제적 점검</li> <li>- 야생동물 등 취급여부 점검</li> <li>- 1개 시장 방역·소독 실시</li> </ul>
	확진:7		
'20.02.06.	확진:23(+4) 완치: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코로나 대응 논의</li> <li>·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급안정화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li> <li>- 마스크·손소독제 생산, 도매업자 출하·판매시 정부 신고 의무 부여</li> <li>· 정부, 민간후원 연계, 마스크 15만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후원</li> <li>·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유증상자 4단계 고강도 검역체계 가동</li> <li>- 검역조사→선별진료→시설격리→진단검사, 확장형 검역 시스템 최초 가동</li> <li>·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대응절차 5번 개정), 검사기관 확대</li> <li>· 첫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 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131개 대학로 소극장, 71개 문화시설 특별방역</li> <li>· 확진자 다중이용시설 이동 동선 지도 서비스 제공 준비</li> <li>· 확산 방지 위한 개선방안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li> <li>- 7개 건의 5개 반영, 2개 추진중</li> </ul>
	확진:10		
'20.02.07.	확진:24(+1)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 검사 대상 확대, 의사환자 검사비 지원</li> <li>-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되는자</li> <li>- 확진자·의사환자로서 진단받은 경우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li> <li>· 선별진료소 556개소로 확대, 1일 검사 가능 건수 3천여건 정도</li> <li>· 위험성 큰 집단 대상 우선순위 평가하여 검사대상 확대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격무시설 2.8부터 운영</li> <li>- 자가격리자 중 독립생활 어려운자 대상</li> <li>- 서울시 인재개발원 활용</li> </ul>
	※미발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8.	확진:24(-) 완치: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사고수습본부 17개 시도와 확산 방지 대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 논의</li> </ul> </li> <li>·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 위해 법률 근거 관계부처 협의·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li> <li>-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0,000원 지급</li> <li>- 유급휴가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급</li> </ul> </li> <li>·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표준 소독 수행 지침, 각 부처와 지자체 배포</li> <li>· 국내 초기 방역 신속 조치로 다수 경증, 전파 속도 메르스 비해 빠른 편</li> </ul>	
'20.02.09.	확진:27(+3) 완치:3(+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입국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가진단 앱' 사용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0.~11. 시범운영, 2.12. 이후 시행</li> </ul> </li> <li>· 지자체 총력 동원 태세, 보건소 방역활동 집중 체계 구축</li> <li>· 환자 조기발견 위한 진단검사 물량 대폭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 말까지, 1일 만 건의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확충</li> </ul> </li> <li>· 다수 환자 발생 대비 병상·인력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압)1차 국가지정 198 병상 활용→2차 공공병원 및 군병원, 일반 종합병원 활용</li> <li>- (인력)10개 즉각대응팀→30개,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 개선</li> <li>- (치료)국립중앙의료원 주관 "중앙임상TF", 표준적 치료방법 권고안 수립</li> </ul> </li> </ul>	
'20.02.10.	확진:27(-) 완치:4(+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시적 국내 크루즈선 입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336명 중 70명 양성(2.9. 기준)</li> </ul> </li> <li>· 11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 2회 연속 음성 확인, 퇴원</li> </ul>	· 자가격리자 8명, 서울시 인쇄 개발원 입소
'20.02.11.	확진:28(+1) 완치:4(-)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국 외 홍콩·마카오 오염지역 지정, 검역 강화</b> 밝힘</li> <li>· 중앙사고수습본부 중국 외 환자 발생 6세 지역, 여행 최소화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 중국 후베이성 철수 권고(3단계), 그 외 중국 지역 여행자제(2단계)</li> </ul> </li> <li>· 중국 외 감염 확인 국가 여행이력 정보 의료기관, 약국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 DUR 통해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신종코로나 8개 언어로 상담 안내</li> <li>· 서울시, 공행버스 김화은행 승인</li> </ul>
'20.02.12.	확진:28(-) 완치:7(+3)  확진:10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한교민 147명 3차 입국, 유증상자 5명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일간 임시 생활시설 국방어학원에 입소</li> </ul> </li> <li>·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 권고 지침 마련·시행</li> <li>·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홍콩, 마카오), 자가진단 앱 설치</li> <li>· 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 <b>"COVID-19"</b> 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 코로나, VI:바이러스, D: 질환, 19: 2019 의미</li> </ul> </li> <li>· 3번째, 8번째, 17번째 환자 증상 호전 및 2회 검사 음성, 퇴원</li> <li>· 국내 분리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양, 진단·치료·백신 개발 적극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대처(검체) 조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동선 6개소 긴급점검</li> <li>- 향후, 확진자 동선 내 다중 이용시설 조사 확대</li> </ul> </li> </ul>
'20.02.13.	확진:28(-) 완치:7(-)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지자체 중심의 자가격리 관리 강화, 격리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일 15개 시·도 17개소 766실 → 2.12일 16개 시·도 19개소 864실</li> </ul> </li> <li>· 진단 시약 생산 확대, 검사기관 확충, 1일 5천명 수준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민간기관 46개</li> </ul> </li> <li>· 중앙임상TF, 코로나19 임상연구 기반 진료권고안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에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서울형 긴급복지) 지원</li> <li>· 피해 회복능가 지원 캠페인</li> </ul>
'20.02.15.	확진:28(-) 완치:9(+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한교민 1차 입국자 366명(확진자 2명 제외) 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소 전 증상 발생 대처요령, 건강관리, 단기숙소 및 일차 등 교육</li> <li>- 희망 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 분산하여 이동 예정</li> </ul> </li> <li>· 2.17.부터 입원·격리자들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접수</li> <li>·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1.29.부터 심리지원 실시</li> <li>- 국가·영남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유선 상담, 고위험군 선별 치료 연계</li> </ul> </li> <li>· 7번째, 22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결과 2회 연속 음성, 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 관광시장 조기 회복 중 합대책 발표</li> <li>· 2.14. 코로나19 극복 위한 관광업계 간담회 개최</li> </ul>
'20.02.16.	확진:30(+2) 완치:9(-)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확진자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유입사례(57.1%), 국내 감염사례(35.7%), 전파 경로 조사중(7.1%)</li> <li>- 임상 증상 경미 또는 비특이적, 발열, 인후통 호소가 각 32.1%로 가장 많음</li> <li>- 입원 후 영상검사상 폐렴을 보인 환자는 64.3%</li> </ul> </li> </ul>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16.	확진:30(+2)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소견에 따른 진단검사 확대, 환자 조기발견, 사회 감시체계 구축</li> <li>·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보호 조치 강화</li> <li>· 지자체 자가격리자 업무 전담관리, 접촉자 격리 시설 23개소, 872실 확대</li> <li>·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li> <li>· 중국 입국 유학생 7만여 명 14일 자가격리 등 보호·관리 방안 논의</li> <li>· 고용노동부, 사업장 방역 및 어려움 겪는 사업장 고용안정 적극 지원</li> </ul>	
	※미발표		
'20.02.17.	확진:30(-) 완치: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병원 대상 중국 등 여행력 있는 종사자·간병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2.17.~2.18.) 여행이력, 업무배제, 폐렴환자 여부 등 점검</li> </ul> </li> <li>·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증 병원체 감시체계 코로나19 검사 추가 실시, 참여 기관 확대</li> <li>·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긴급 연구과제 공모 시작</li> <li>·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등, 대학 체계적 관리 지침 배포</li> <li>· 한·일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상호협력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환지원, 이송방안 협의</li> <li>- 코로나19 양국 현황 및 방역대책 정보 공유, 향후 협력방안 논의</li> </ul> </li> <li>· 28번째 환자 완치하여 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에 긴급혈액 나서</li> <li>·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러스 총 3,208명 확산예방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숙박업소 1,403개 전수조사</li> <li>- 취약계층 수시 모니터링</li> <li>- 취약계층 마스크, 세정제 전달, 감염예방 교육 실시</li> </ul> </li> <li>· 방역조사 안전 '클린존 마크'</li> </ul>
	확진:12 완치:3		
<b>stage 2_대구·경북 중심 지역사회 전파 확인</b>			
'20.02.18.	확진:31(+1) 완치: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31번째 환자 발생</b>(59년생, 대구), 외국 방문 이력 없음</li> <li>· 12번째, 14번째 환자 증상 호전으로 격리해제, 퇴원</li> <li>·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구입비 65억 62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클린시장 운영, 피해 기업 지원 등</li> </ul> </li> </ul>
	※미발표		
'20.02.19.	확진:51(+20) 완치: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20명, 18명 <b>대구·경북</b>, 15명 31번째 확진자(<b>신천지</b>) 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진료소 거침없이 3차 의료시설 직행, 대구·경북 지역 내 다수 응급시설 폐쇄</li> <li>- 당일 기점으로 국내 확진자 수 폭증 시작</li> </ul> </li> <li>·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어려움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 메르스때도 시행한바 있으며, 청구확인만 거쳐 10일 이내 90% 조기 지급</li> </ul> </li> <li>· <b>일본 크루즈선 7명 이송</b>, 14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 생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국민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 총 7명</li> <li>- 김포공항 검역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격리 생활 시작</li> </ul> </li> <li>·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협조 요청</li> <li>· 6번째, 10번째, 16번째, 18번째 환자 완치되어 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확진자 첫 발생</b></li> <li>·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공영차고지 방역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관리 29개 공영차고지 내 주차장 주1회 소독</li> <li>- 천만 시민과 운전자 감염 예방</li> </ul> </li> </ul>
	확진:13 완치:5		
'20.02.20.	확진:104(+53) 완치:16(-) 사망: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최초 사망자(청도 대남병원 관련)</b> 발생, 신규 확진자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li> <li>· 정부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9명, 중앙사고수습본부 6명 등 현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선별진료소 8개 추가(14→22개소),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 예정</li> </ul> </li> <li>· <b>지역사회 전파 확인</b>, 진단기관 46개→77개 추가 확대</li> <li>· 서울지역 확진자, 선별진료소 세차례 방문했으나 검사 거부</li> <li>· 제주 지역 대구 휴가다녀온 군인 확진 판정</li> <li>·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6판), 0시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진 환자 의사·해외여행 경력 관계없이 의심될 경우 적극 검사 시행</li> </ul> </li> <li>·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 구체적 기준 등 심의·의결 예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 설명회</li> </ul>
	※미발표		
'20.02.21.	확진:204(+100) 완치:17(+1) 사망: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최초 확진자 발생</li> <li>· 대구·경북 지역 병상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음압 9개 병원 50병실 확보, 향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병상 확보</li> </ul> </li> <li>·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코로나19 전수 검사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수행 민간 의료기관 4개소 추가 지정,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li> </ul> </li> <li>· 청도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 실시</li> <li>· <b>정부,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구성·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li> </ul> </li> <li>·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준비</li> <li>· 대구지역 전체 학교, 3월 1주 개학연기 협의 완료</li> <li>·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은평성모병원 관련 서울시 확진자 최초 발생</b></li> <li>·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코로나19 격리자 8명, 21일 퇴소</li> <li>· 서울시, 의심증상 시민까지 확대하여 지역감염 차단 노력</li> <li>· 간강추위계층 복지시설 방역관리 총력</li> <li>· 중국입국 유학생 픽업·임시거주공간·모니터링 전방위 지원</li> </ul>
	확진:19 완치:6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2.	확진:433(+229) 완치:18(+1) 사망: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약 9,336명) 모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336명 중 1,261명(13.5%) 유증상 응답</li> <li>- 2.7. 1차, 2.14. 2차 발병 추정, 종교 모임 내 지속 전파 시사</li> </ul> </li> <li>· 청도 대남병원 종사자 및 환자 전수조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까지 256명 중 111명 확진(사망자 2명 포함, 의료진 9명, 환자 102명) 확인</li> </ul> </li> </ul>	
'20.02.23.	확진:602(+169) 완치:18(-) 사망:6(+4)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 대비, <b>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발령 통해 적용</li> <li>- 해외 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정책,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 전략 추진</li> </ul> </li> <li>· <b>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로 격상</b></li> <li>·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지역 최소 2주간 자율 외출 자제, 이동 제한, 증상자 신속 검사</li> <li>- 빠른 치료 위한 전담병원 병상·인력 확보 계획</li> </ul> </li> <li>· 지역별 코로나19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환자 음압병상, 경증환자 전담병원 등 병상·인력 확보 계획</li> </ul> </li> <li>· 경주시 40대 남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일상 감염자 중 최초 사망 발생</li> <li>· 서울 은평성모병원 사례 중심 조사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병원 내 2명의 확진자 발생</li> </ul> </li> <li>· 복지부 장관, 대구·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 개최</li> </ul>	
'20.02.24.	확진:833(+231) 완치:22(+4) 사망:8(+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 한층 전원 확진판정(113명)</li> <li>· 서울 은평성모병원 간병인 근무자 확진 판정</li> <li>· 대구, 경북지역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 적극 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4.09시 기준, 대구 지역 환자 446명, 경북지역 환자 186명</li> <li>-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의료인 봉사자 모집</li> </ul> </li> <li>· <b>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개학 연기(3.1.→3.9.)</b></li> <li>· 개인정보 유출·확산 엄중 대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7대 선제적 대응책 기동</b></li> <li>·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관리비 감면</li> <li>·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총 1,700개 참여자 모집</li> <li>· 코로나19관련 서울시 안전판리위원회</li> <li>·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li> </ul>
'20.02.25.	확진:977(+144) 완치:22(-) 사망:11(+3)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 지역 병상·인력,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물량 지속 확충</li> <li>·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 협조 받기로 합의</li> <li>·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 조기 지급 특례, 인력·시설 신고 유예, MRI 집중검사 시기 연기 등</li> </ul> </li> <li>·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지정</li> </ul> </li> <li>·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대상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 여행 이력, 업무 배제, 입원 환자 폐렴 증상 여부 등</li> </ul> </li> <li>· 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코로나19 유행지역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배포</li> <li>· 코로나19 총력 위한 공공 2부제 일시 중단</li> <li>· 1회용품 규제 제외 적용, 지자체별 탄력적 운용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은평성모병원대책본부' 구성(총 40명, 전원 검사 및 병원 내 집중구역 등 감염 차단 조치</b></li> <li>· <b>코로나19 관련 종교계 지도자 긴급회의</b></li> <li>· <b>신천지예수교 263개소 점검 188개 폐쇄지역 집회금지 명령</b></li> <li>· <b>확인불가 66개소 합동점검</b></li> <li>· <b>재보 등을 통한 주·적 한동점점 폐쇄시설 집회·종교활동 적발 시 법적 조치</b></li> <li>· <b>집회금지 위반 범투본 고발조치</b></li> </ul>
'20.02.26.	확진:1,261(+284) 완치:24(+2) 사망:12(+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 3.1.까지 전담병원 외 인근 지역병상 포함 총 1,600개 병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원 대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 논의</li> </ul> </li> <li>· 대구 의료인 봉사자 현 205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li> </ul> </li> <li>· 신천지 약 21만 2000명 전체 신도 명단 확보, 지자체와 전달</li> <li>·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및 시행</li> <li>· 1차 '국민안심병원' 91개 의료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흡기 환자 병원 방문·입원 모든 진료 과정, 다른 환자와 분리 진료 병원</li> <li>-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 신청</li> </ul> </li> <li>· 코로나19 밀접접촉 방지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li> <li>·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2.27.~3.8.)</li> <li>·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li> <li>· 경기도 고양시, 최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에 탄 채로 검사 받는 것으로, 10분 만에 검체 채취 완료</li> </ul> </li> <li>·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검사·입원 거부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평성모병원에 이어 <b>서울지하철 병원 상계백병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b></li> <li>·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도심내 집회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장소 서울역, 효자동삼거리까지 확대</li> </ul> </li> </ul>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7.	확진:1,766(+505) 완치:26(+2) 사망: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의미있는 변이 발견 못해”</li> <li>· 중앙임상위원회,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 의료자원 운영 필요</li> <li>· 경북지역 음압병상 26개, 전남 총 811병상 확보 계획</li> <li>· 대남병원 치료중인 정신질환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송</li> <li>·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 시행</li> <li>· 2.27. 기준 총 127개 ‘국민안심병원’ 지정</li> <li>· 코로나 19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li> <li>· 국방부,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동참</li> <li>· 외교부, 우리 국민 입국 제한 또는 여행 제한 조치 외교력 적극 투입 대응</li> <li>·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돌봄 공백 대응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대비 광화문세종대로 집회차막 철거</li> <li>·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한 예산 긴급지원</li> </ul>
	확진:59 완치:9		
'20.02.28.	확진:2,337(+571) 완치:27(+1) 사망: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관 협력 백신·치료 개발 추진</li> <li>·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 모범사례 표준운영모형 마련</li> <li>· 신천지 전체 국내 신도 194,781명 중 53.7% 확인, 유증상 1.4%</li> <li>·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 19 확진자 60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li> <li>· 코로나19 긴급 대응 위한 재난 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li> <li>· 2.28. 기준 총 174개 ‘국민안심병원’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집단발생 확진 증가</b></li> <li>· 서울시 신천지 28,317명 전수 조사, 유증상 217명, 고위험군 3,545명</li> <li>·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li> <li>· 서울시와 일부 민간병원 음압 병상 부족사태 대응</li> <li>· 코로나19 피해자원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li> <li>· 서울 지하철 총력다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li> <li>· SNS 코로나19 응원 캠페인</li> </ul>
	확진:65 완치:9		
'20.02.29.	확진:3,150(+813) 완치:30(+3) 사망: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893개 병상 사용중, 3.5.까지 1,000여개 병상 확보 예정</li> <li>- 검사 인력: 공중보건의 165명, 간호인력 10명 지원/군 운전인력 61명 지원</li> <li>- 전담병원 인력: 의사 50명, 간호인력 68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li> <li>· 경북지역 전담병원 지정, 환자 소개로 950병상 확보</li> <li>- 검사 인력 의사 9명, 청도 대남병원에 간호인력 46명 지원</li> <li>· 신천지 전수 조사 88.1% 완료, 1.9%(3,381명) 유증상</li> </ul>	-
	※미발표		
'20.03.01.	확진:3,736(+586) 완치:30(-) 사망: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중 대구 2,569명, 경북 514명, 경기 84명, 서울 82명 등</li> <li>· 중앙방역대책본부, <b>사회적 거리두기</b> 실천 당부</li> <li>· 건강취약계층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li> <li>-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li> <li>· 국민안심병원 214개 지정</li> </ul>	-
	※미발표		
'20.03.02.	확진:4,212(+476) 완치:31(+1) 사망: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등 밝힘</li> <li>-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강화, ▲신속대응위한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 ▲주요 감염병 예방·상시 관리 강화, ▲코로나19 사후 평가 및 과제 지속 발굴 등</li> <li>· 대구·경북 경증환자 위한 <b>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b>(대구1 센터 개소)</li> <li>· 대구·경북 등 진료·방역 종사 의료인의 보호장구 지속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 진료소’ 4개소 운영</li> <li>· ‘보건소 선별진료소’ 50개로 확대</li> <li>· 박원순 시장, ‘<b>사회적 거리두기</b>’ 적극 동참 제안</li> <li>· 은평성모병원, 서울제할 병원 지속 조치</li> </ul>
	확진:92 완치:13		
'20.03.03.	확진:4,812(+600) 완치:34(+3) 사망: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신천지 전수조사 49.6% 완료, 양성판정률 62%</li> <li>· 코로나19 대구 진단검사 우선순위 변경 ‘신천지신도→일반시민’</li> <li>· 대구1 생활치료소 경증 확진자(138명) 입소 시작</li> <li>· 환자 중증도 따라 분류하여 병상 배정, 입원치료 병상 지속 확보</li> <li>· 중대본 1차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개최(2.17.구성)</li> <li>· 대구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모집</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036명, 사망자 52명 증가, 이란 총 확진자 2,336명, 사망자 77명 등 <b>해외 확진자 증가 추세</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공백, 긴급돌봄 지원</li> <li>· 취약계층 마스크 20만 개 지원</li> </ul>
	확진:98 완치:15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04.	확진:5,328(+516) 완치:41(+7) 사망: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li> <li>·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 102명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중자 33명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전원, 29명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 33명 대남병원에 남아 코로나19 치료</li> </ul> </li> <li>·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 첫코로나19 완치, 정신질환자 진료지침 확정</li> <li>·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254개 지정</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502명(+446명) 3월 15일까지 학교 폐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대문구 교회·PC방 관련 확진자 첫 발생</li> <li>·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li> <li>· 코로나19 2차 격리시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추가 지정</li> <li>· 대구 장애인 시설 확진자 5명 시립병원 입원 지원</li> </ul>
	확진:99 완치:26		
'20.03.05.	확진:5,766(+438) 완치:88(+47) 사망: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의료복지시설 푸른요양원 47명 집단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 2명 확진 포함 총 49명 확진자 발생</li> </ul> </li> <li>· 경기도 분당제생병원 관련 확진자 첫 발생</li> <li>·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경북 경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신천지 신도 확진자 중 절반가량 거주(135명), 지역 내 2차 감염 및 집단감염 사례 나타나고 있음</li> </ul> </li> <li>· 대구·경북 3개 생활치료센터 584명 경증환자 입소</li> <li>· 공중보건의 742명 조기입용, 대구·경북 470명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스트레스·불안' 심리상담</li> </ul>
	확진:105 완치:26		
'20.03.06.	확진:6,284(+518) 완치:108(+20) 사망: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한마음아파트 46명 확진자 발생, 코호트 격리</li> <li>· 치료역량 높은 상급종합병원 등 100여개 기관 중심 음압병상 확충 추진</li> <li>· 대구·경북 6개 생활치료센터 756명 경증환자 입소</li> <li>·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등과 함께 격리자, 가족, 의료인 등 전방위 심리지원</li> </ul> </li> <li>· 국민안심병원 290개 지정</li> <li>· (해외)전 세계 감염자 10만명 돌파, 중국(80.6%), 한국(6.5%), 이란(4.7%), 이탈리아(3.8%) 순</li> <li>· (해외)이탈리아 일 확진자 796명, 이란 1,234명 증가. 유럽 및 미국, 일본 등지에서 지속 증가 추세</li> </ul>	-
	확진:106 완치:26		
'20.03.07.	확진:6,767(+438) 완치:118(+10) 사망:4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생활시설 예방적 보호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3.1.) 경북(3.5.) 생활 시설 코호트 격리조치 시행</li> <li>- 전국 요양병원 추가 전수조사 시행(3.12.까지)</li> <li>-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감염병 예방지침 시행</li> </ul> </li> <li>· 대구·경북·천안 8개 생활치료센터 1,110명 경증 환자 입소</li> <li>· 국민안심병원 303개 지정</li> <li>· 대구시 사회복지서비스원 격리 등 돌봄 필요한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실시</li> </ul>	-
	확진:112 완치:26		
'20.03.08.	확진:7,134(+367) 완치:130(+12) 사망:50(+6)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충남·충북 지역 10개 생활치료센터 개소, 1,180 입소</li> <li>· (해외)이탈리아 총 확진자 5,883명(사망자 233명), 롬바르디아 및 북부 14개 주 4월 3일까지 봉쇄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운동 '잠시멈춤' 확대</li> </ul>
stage 3_국내 수도권 중심 취약집단 집단감염 증가 / 해외 확진자 급증, 중국 외 국가 유입 확산세			
'20.03.09.	확진:7,382(+248) 완치:166(+36) 사망: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 증가(서울 35.1%, 경북 28.1%, 대구 17.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지역 방문 속임, 격리 상태이나 외부 활동 하는 등의 사례 지속 발생 영향</li> </ul> </li> <li>· 대구·경북 지역 확산세 둔화, 천안시 운동시설, 경로당, 노래방, 병원 등 집단발생 증가</li> <li>· 대구·경북지역 치료 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개소 등 조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치료센터 총10개소, 1,663명 경증환자 입소</li> </ul> </li> <li>· 코로나19 관련 <b>마스크 5부제</b> 시작</li> <li>· 이탈리아, 이란, 일본 급증세로 이란 교민 귀국 지원 결정</li> <li>· 일본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 시작</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7,375명, 사망자 366명으로 높은 치명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li> <li>· 자차구 역학조사 강화, 시 차원 '즉각대응반' 지원 강화</li> <li>· 신천지 법인 현장 실태조사</li> <li>· 시청 등 재택근무(SVPN 확대) 기반 구축</li> </ul>
	확진:130 완치:29		
'20.03.10.	확진:7,513(+131) 완치:247(+81) 사망: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 본격화</li> <li>·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 2,071명 경증환자 입소</li> <li>· 개학 연기로 인한 긴급돌봄 조치, 요양병원 지속 현장 점검</li> <li>· (해외)전 세계 109개국 확진자 11만4천여명, 치명률 3.52%(4,029명)</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9천명대, 한국보다 확진자 많아짐. 스페인 확진자 급증으로 1,650명, 사망자 35명</li> <li>· (해외)WHO 전세계 국가 4가지 유형화(미발생국/발생국/집단감염 발생국/지역사회감염 발생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콜센터 긴급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 구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직원 및 가족 등 집단 확진</li> </ul> </li> <li>·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li> <li>· 「재난 긴급생활지원」 정부 긴급의</li> <li>· 약국 마스크 판매 일손 지원</li> </ul>
	확진:156 완치:30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11.	<p>확진:7,755(+242) 완치:288(+41) 사망:60(+6)</p> <p>확진:205 완치: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구로 콜센터, 대구 콜센터 등 확진자 지속 발생</li> <li>·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마련</li> <li>·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li> <li>· 국민안심병원 312개소 지정 및 이행상황 점검</li> <li>· 생활치료센터 13곳, 2,358명 경증환자 입소</li> <li>· 코로나19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li> <li>· (해외)미국(1,075명) 및 스페인(2,115명) <b>확진자 대량 발생</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로콜센터관련 65명, 해외접촉 17명, 은평성모관련 14명 등</li> <li>· 취약계층 마스크 1만장 지원</li> </ul>
'20.03.12.	<p>확진:7,869(+114) 완치:333(+45) 사망:66(+6)</p> <p>확진:219 완치: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WHO 질병 경계 수위 최고단계인 팬데믹 선언</b></li> <li>·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li> <li>· <b>특별입국절차 대상 5개 국가 확대, 총 11개 국가 실시</b> - (현)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추가)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li> <li>· 14개 생활치료센터 2,470명 경증환자 입소</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12,462명, 사망자 827명, 전국 봉쇄령</li> <li>· (해외)미국 영국 제외 전 유럽 여행 30일간 금지, <b>유럽 각국의 방역 대응방식 급변, 국가별 확진자수 폭증</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년 긴급지원 사업 추진</b> - 알바 끊긴 청년 월50만원 청년수당 제공 등</li> <li>· 시민에 온라인 무료 공연 제공</li> </ul>
'20.03.13.	<p>확진:7,979(+110) 완치:510(+177) 사망:67(+1)</p> <p>확진:231 완치: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약20여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li> <li>· 신천지 신도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전수 진단 검사 계획 발표</li> <li>·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 보조금 290억 원 지급</li> <li>· 금융당국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대문구 교회·PC방 집단감염 확인</b></li> <li>·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자원로봇 도입</li> <li>·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li> <li>· 서울시 쪽방촌 전 세대에 긴급 구호품 지원</li> <li>· 25개 자치구 모든 임산부에 마스크 총29만매 지급</li> <li>·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li> </ul>
'20.03.14.	<p>확진:8,086(+107) 완치:714(+204) 사망:72(+5)</p> <p>확진:244 완치:4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청사 방역관리 강화</li> <li>·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 시행</li> <li>· 대구·경북지역 등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현황 점검 - 대구·경북의 생활비지원, 유급휴가비 지원 현황 등</li> <li>· (해외)프랑스 16일부터 프랑스 내 모든 교육기관 휴교령</li> <li>· (해외)미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감염질환 인해 '09년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li> </ul>	
'20.03.15.	<p>확진:8,162(+76) 완치:834(+120) 사망:75(+3)</p> <p>확진:248 완치: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1. 이후 23일만에 확진자 수 100명 이하로 내려감</li> </ul>	
'20.03.16.	<p>확진:8,236(+74) 완치:1,137(+303) 사망:75(-)</p> <p>확진:254 완치: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일일 확진자 40명 이상 집단감염 발생 보고</b></li> <li>· 격리해제율 8.8%, 치명률 0.91%, 약 80.7% 집단발생과 연관</li> <li>·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li> <li>·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발표 - 건강보험지원 강화, 코로나 치료 필수비용 신속지원, 의료기관 응자 지원 등</li> <li>· 생활치료센터 16개, 2,620명 경증환자 입소</li> <li>· <b>특별입국절차 유럽발(發) 모든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b> - (현)11개 국가→(확대)아시아5개국+유럽발 항공노선 전체</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만4천여명, 스페인 8,744명, 전세계 치명률 4.0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 시민 71.4% 찬성</li> <li>· 돌봄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 제공</li> <li>·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li> </ul>
'20.03.17.	<p>확진:8,320(+84) 완치:1,401(+264) 사망:81(+6)</p> <p>확진:267 완치:5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43명' vs '대구·경북 37명' 확진자 발생 역전, 수도권 방역 강화</li> <li>· <b>전국 유·초·중·고 4월 5일까지 2주 개학 연장</b></li> <li>· <b>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b> - (현)아시아5개국+유럽발 항공노선 → (확대)모든 내·외국인 입국자</li> <li>·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 마스크 1만5천여장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치료시설 1,800병상 확보</li> <li>· 서울시, 복지일선 요양보호사에 마스크 6만8천매 지원</li> <li>· 집단감염 높은 사업장 시민제보, 불이익 노동자 구제 등</li> <li>· 신천지교 서울내 2개 지파 일부 종합행정조사</li> </ul>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18.	확진:8,413(+93) 완치:1,540(+139) 사망:8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 확진, 집단감염 발생</li> <li>· <b>코로나19 추경, 대구·경북 지원 1조394억원, 감염병 대응 대폭 증액</b></li> <li>· <b>보건복지부 추경 3조6675억 원 확정,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민생경제 지원 등에 투입</b></li> <li>· 한국-WHO 코로나19 임상연구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개최</li> <li>· 정부 코로나19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li> <li>· (해외)세계 총 감염자 20만명 돌파, 중국 40.4%, 이탈리아 15.7%, 이란 8%, 독일 5.1%, 대한민국 4.2% 순</li> <li>· (해외)이탈리아 25일만에 누적 확진자 3만 넘어, 2,503명 사망</li> <li>· (해외)국가별 경기부양책, 국민 지원대책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접촉자 중심 확진 증가</li> <li>· <b>서울시 전국 최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b></li> </ul>
	확진:270 완치:55		
'20.03.19.	확진:8,565(+152) 완치:1,947(+407) 사망: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일만에 확진자 100명대 진입, 대구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에 의한 증가</li> <li>· 총 확진자 8,565명, 격리해제 1,947명, 사망자 91명, 치명률 1.06%</li> <li>·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li> <li>· 이란 재외국민 귀국 지원, 방역 및 의료지원 대책 논의</li> <li>·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3만5천여명, 이란 1만8천여명, 프랑스·미국 9천여명</li> <li>· (해외)보건의료체계별(공공vs민간주도) 감염병위기 대응 역량 논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원 편성, 117.7만 가구 재난 긴급 지원</b></li> <li>· 다산콜센터 공공콜센터 최초 원격 재택근무시스템</li> </ul>
	확진:282 완치:58		
'20.03.20.	확진:8,652(+87) 완치:2,233(+286) 사망: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대실요양병원(64명), 경북 서요양병원 관련(30명) 등 다수 집단감염 발생</li> <li>·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li> <li>·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li> <li>· (해외)총 사망자수 10,000명 이상, 이탈리아 34%, 중국 32.5%, 이란 12.8%, 스페인 8.3%, 프랑스 3.7%...잠정 치명률 4.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 중증응급 진료센터' 9개소 지정, 유증상 중증환자 즉각 진료</li> </ul>
	확진:300 완치:64		
'20.03.21.	확진:8,799(+147) 완치:2,612(+379) 사망: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 교민 귀국(80명), 유증상자 2명, KOICA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시작</li> <li>·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li> </ul>	
	확진:324 완치:64		
'20.03.22.	확진:8,897(+98) 완치:2,909(+297) 사망:1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유럽발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재유입 막기 위한 조치 강화</b></li> <li>- 음성이어도 14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통해 사후관리 진행</li> <li>· 복지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li> <li>·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li> <li>· (해외)총 확진자 4일만에 20만→30만 돌파, 중국(27%), 이탈리아(17.8%), 스페인(8.4%), 독일(7.8%), 미국(7.5%) 순, 한국(2.9%)은 8번째</li> <li>· (해외)이탈리아 총 확진자 53,578명, 사망자 4,825명, 잠정 치명률 9.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배강행 의사 밝힌 2,209개 교회 현장 점검, 예배 중지 요청 및 7대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 점검</li> </ul>
	확진:324 완치:64		
'20.03.23.	확진:8,961(+64) 완치:3,166(+257) 사망: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확진자 64명 중 해외유입 14건(21.9%), 유럽, 미주 유입 사례 지속 발생</li> <li>· 중대본 정례브리핑 비대면 방식 전환,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li> <li>· 유럽발 입국자 유증상 152명 격리시설, 무증상 1,290명 임시생활시설 입소</li> <li>· (해외)전 세계 확진자 전일대비 10.66% 증가, 치명률 4.49%</li> <li>· (해외)이란 중남미 등 코로나19 진단 키트 요청 및 한국 대응법 공유 요청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종교집회 및 감염병 고위험사업장(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점검 및 중단 권고</li> </ul>
	확진:330 완치:64		
'20.03.24.	확진:9,037(+76) 완치:3,507(+341) 사망:1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확진자 76명 중 해외유입 22건(28.9%), 유럽 18건, 미주 4건 등</li> <li>· 중대본, 지자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지속 실시</li> <li>· (해외)중국 신규확진자 78명 중 74명 해외 역유입, 역유입 대책마련 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유입 지속 증가, 미국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검토</li> <li>· 서울시,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지원</li> </ul>
	확진:336 완치:72		
'20.03.25.	확진:9,137(+100) 완치:3,730(+223) 사망:1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유입 51건(51.0%), 유럽 29건, 미주 18건, 아시아 4건 등</li> <li>· 3.27.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방안 발표</li> <li>· 저소득층 230만 명 이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쿠폰 지원</li> <li>· 전국 835만명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지정, 월 건강보험료 50% 3개월 간 지원</li> <li>· 코로나19로 운영 어려운 의료기관 위해 총 4,000억원 규모 융자 추진</li> <li>· (해외)미국 27일만에 확진자 5만명 넘어 새로운 진원지 오명 10대 사망자도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확진자 발생</b></li> <li>· <b>서울시 8619억원 추경 시의회 본회의 통과</b></li> <li>· <b>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긴급 수혈 '열혈의 약속'</b></li> <li>- 신용공급확대 및 절차 혁신</li> </ul>
	확진:348 완치:7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26.	확진:9,241(+104) 완치:4,144(+414) 사망: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확진자 104명중 해외유입관련 39건(유럽25, 미주11, 아시아 3)</li> <li>· 검역강화 위해 인천공항 옥외 위생소 설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강화</li>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실용화 연구 가속화</li> <li>· 개학연장 지속적인 논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생활방역 전환 가능</li> <li>·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 속속 발표</li> <li>· (해외)이탈리아 일 사망 743명, 총 7,503명 사망, 치명률 10.0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구로콜센터 확진자 160명(콜센터 건물 97명, 접촉자 63명), 수도권 내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li>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 신청, 총117만7천가구에 온라인 5부제, 찾아가는 접수 등으로 신속 지원 계획</li> <li>· 서울시, 산천지 법안허가 취소</li> </ul>
	확진:361 완치:81		
'20.03.27.	확진:9,332(+91) 완치:4,528(+384) 사망:1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시 제이미주병원 62명 집단감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대실요양병원과 동일 건물, 26일 1명 확진 후 직원 72명, 환자 286명 전수조사 결과 61명 추가 확진 판정 받음</li> </ul> </li> <li>· 미국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증상 87명 공항내 진단검사 후 임시대기시설 대기, 무증상 1,207명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생시 즉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li> </ul> </li> <li>· <b>장부, 만 7세 미만 자를 둔 200만 가구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b></li> <li>· 학원, 종교시설 등 휴원 지속 권고 및 사회적거리두기 이행 상황 점검</li> <li>· 보건복지부, WHO에 한국 방역 대응 현황과 경험 공유</li> <li>· 장부, 코로나19 연구 자료·심평원 청구료 및 연구 성과 등 국제 공개 방안 마련</li> <li>· (해외)총 확진자 50만명 돌파, 중국 16.2%, 이탈리아 14.88%, 미국 14.8% 등</li> </ul>	
	확진:376 완치:88		
'20.03.28.	확진:9,478(+146) 완치:4,811(+283) 사망:1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누적 완치자가 확진 격리자 넘어서는 2차 골든 크로스 나타남</b></li> <li>· 대구소재 6개 병원 총85명(제이미주 74, 기타 11)확진됨, 대구시 요양병원 두차례 재검, 대구소재 정신병원 전수조사 결정</li> <li>·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li> <li>· 방호복 및 방역물품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계획</li> <li>· (해외)총 확진자 60만명 돌파, 미국 17.4%, 이탈리아 14.4%, 중국 13.5% 등</li> <li>· (해외)미국 확진자 총 104,463명, 사망자 1,702명, 확진자 10만명 돌파한 첫 번째 나라, 뉴욕 주 44,876명으로 절반 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3월 25일부터 현 재까지 7명 확진자 확인, 접촉자 조사중(교회 4명, 가족 등 접촉자 3명)</b></li> </ul>
	확진:391 완치:93		
'20.03.29.	확진:9,583(+105) 완치:5,033(+222) 사망:1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41건(39%), 누적 412건(유럽 235, 미주109 등)</li> <li>· 보건복지부, 전국 약 200만 가구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li> <li>· (해외)이탈리아 총확진자 92,472명 사망자 10,023명 최초 사망자 1만명 넘음</li> <li>· (해외)미국 확진자 12만명 넘음, 사망자 이탈리아에 두배 증가, 2천명 돌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박원순 시장 세계 45개 주요도시 시장들과 '코로나19 공동대응 화상회의' 서울의 노하우 공유</b></li> </ul>
	확진:413 완치:93		
'20.03.30.	확진:9,661(+78) 완치:5,228(+195) 사망:1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전원 14일 원칙적 격리 실시</li> <li>· 심평원 세계 확산 대응 돕기위해 국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공개</li> <li>· (해외)전 세계 확진자 60만 넘은지 이탈리아에 70만명 넘어, 미국(18.7%)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5인 미만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관광업 100억원 지원 등</b></li> </ul>
	확진:434 완치:92		
'20.03.31.	확진:9,786(+125) 완치:5,408(+180) 사망:1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부, 최초 초중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4.9.이후 순차적 온라인 개학)</b></li> <li>·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 연장,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li> <li>·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li> <li>· 이탈리아 교민(530명)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 도착 예정(4.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로 매 출금감·임대료 이종고 겪는 임차인지원 위한, '착한 임대인' 선정등 다양한 지원 발표</li> </ul>
	확진:454 완치:107		
'20.04.01.	확진:9,887(+101) 완치:5,567(+159) 사망:16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4.1.0시부터 모든입국자 14일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시설격리</b></li> <li>·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휴원연장, 아동 긴급보육 이용률 등 점검</li> <li>·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li> <li>·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3차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 외출 자제, 모임종교행사 불참 92.3%</li> <li>· (해외)유럽 코로나19 이탈리아 주춤, 프랑스·스페인서 기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2일만에 첫 지급 완료</li> <li>· 치매돌봄 등 비대면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속 제공</li> <li>· 청년 상인이 만든 도시락 취약계층 전달</li> <li>·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li> </ul>
	확진:478 완치:117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02.	확진:9,976(+89) 완치:5,828(+261) 사망:1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발생 약 83.3%는 집단발생 연관성 확인, 기타 조사·분류 중 사례 10.7%, 해외유입 사례가 6.0%</li> <li>· 국내 코로나19 사망 대구 117명, 경북 41명, 경기 6명, 부산 3명, 울산 1명, 강원 1명으로 대구·경북에 집중(93.5%)</li> <li>· 경기도 전체 확진자 중 약 50%는 교회,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최근 의정부성모병원의 환자 발생</li> <li>·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임시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그 직계 가족 총 309명 4월 1일 1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li> <li>·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등 국내 자체 백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 투자, 10년간 2천151억원 지원</li>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현장 적용을 위한 임상연구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인식, 서울시 대처 긍정평가 80.5%</li> <li>· 종합운동장 대규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해외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li> <li>·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14만2369명, 25명 지급 완료</li> <li>· 서울시, 교육청·자치구 협력하여 노트북 5만2천여대 지원</li> <li>· 사회적경제기업에 총150억원 규모 '코로나19 특별응답' 지원</li> </ul>
	확진:494 완치:127		
'20.04.03.	확진:10,062(+86) 완치:6,021(+193) 사망: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확진자수 1만명 초과, 첫확진자 발생(1.20.) 이후 74일만</li> <li>· 대구 지역사회전파 시작 이래로(2.18.) 45일만에 일일 확진자 10명 미만</li> <li>· 경북 경산시 60대 개원 내과 의사 사망, 국내 첫 의료진 사망자 발생</li> <li>· 정부, <b>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원칙 마련</b>,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li> <li>·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준비완료, 4.13.부터 지급</li> <li>·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여의도 윤중로 버스노선 임시 우회, '벚꽃축제 보다 잠시 멈춤'</li> <li>·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li> <li>· 서울시, 코로나19 'AI 모니터링 콜시스템' 도입</li> </ul>
	확진:513 완치:131		
'20.04.04.	확진:10,156(+94) 완치:6,325(+304) 사망:1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잠정 완치율 62.27%(50% 돌파 일주일 만), 잠정 치사율 1.72%</li> <li>· <b>중대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4.19.까지)</b></li> <li>- 목표: 일 확진자 수 50명 수준, 감염경로 알 수 없는 사례 5% 이하로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 강화, 자가격리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li> <li>· 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특별수송</li> </ul>
	확진:533 완치:144		
'20.04.05.	확진:10,237(+81) 완치:6,463(+138) 사망:1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본, 코로나19 상황가운데 의료인력 안전한 환경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 마련·시행</li> <li>· 해외입국자 GIS 통합상황판 통해 다중 감시체계 구축,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li> <li>- 감염병예방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4.5 시행) 부과</li> </ul>	
	확진:558 완치:145		
'20.04.06.	확진:10,284(+47) 완치:6,598(+135) 사망:1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치 후 재확진 사례 51건, 현재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판단</li> <li>·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호소, 국민 피로도 급증</li> <li>·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li> <li>· (해외)일 확진자 10만명 초과, 전세계 확진자 130만명, 미국 확진자 33만명, 사망 9,500여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코로나19 타격' 문화예술계에 총50억 긴급지원</li> </ul>
	확진:563 완치:151		
'20.04.07.	확진:10,331(+47) 완치:6,694(+96) 사망:1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 강행하던 서울시 유흥업소 확진자 발생</li> <li>· 자가격리자 4만6천명, 75명 관련법 위반 사법처리 진행 중</li> <li>·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제작</li> <li>· WHO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조 발제 요청</li> <li>· WHO 국가별 치명률 격차, 전염 확산 수준, 국가 내 주요 감염군, 의료 인프라, 검사 진행 수로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울시 첫 사망자 발생</b>, 폐암 투병 구로 콜센터 가족</li> <li>·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li> </ul>
	확진:571 완치:164 사망:2		
'20.04.08.	확진:10,384(+53) 완치:6,776(+82) 사망: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태원 술집(J바), 서래마을 술집(L바) 각각 1명, 3명 확진자 발생</li> <li>· 일본, 동선 거짓진술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li> <li>· 보건복지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방역 대응 경험 공유</li> <li>· 고위험집단 방역강화, 학원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li> <li>·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li> <li>· (해외)미국, 코로나 확진자 40만542명(치명률 약 3.2%)...최대 발생지 뉴욕 사망자수 9.11 테러 넘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강도 '잠시 멈춤' 지속 당부</b></li> <li>· 서울시장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생업소 118명 전원 자기격리, 전수조사</li> </ul>
	확진:581 완치:169 사망:2		
'20.04.09.	확진:10,423(+39) 완치:6,973(+197) 사망:2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경북 사태 이후 신규확진자 51일만에 최저 수준, 그러나 재확진 사례 증가</li> <li>· <b>국내 사망 204명(4.9.0시 기준)평균연령 77.4세, 203명이 기저질환자</b></li> <li>· 국내 최초 온라인 개학(고3, 중3)</li> <li>· 일본, 유전자 변이 추적 지속, 의미있는 유전자 변이 발견되지 않아</li> <li>· 단기 대량 검사 위한 "취합검사법" 프로토콜 제작, 집단 감염 선별 유용</li> <li>· 코로나19 대응 손실입은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 개산급 지급</li> <li>· (해외)전세계 확진자수 150만명 돌파,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급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한미미달무허가 영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li> <li>· 소형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10만여개 비치</li> </ul>
	확진:592 완치:174 사망: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10.	확진:10,450(+27) 완치:7,117(+144) 사망:208(+4) --- 확진:597 완치:18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li> <li>· 스페인 교민 4월 11일, 13일 두 차례 특별 항공편으로 인천 도착 예정</li> <li>· 보건복지부, 3~5월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 외 지역 하위 40% 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30~50%)</li> <li>· 매칭서비스 통해 코로나19 진단도구 수출용 허가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여의도 윤중로 버스 노선 우회...주말 한번 더</li> <li>· 서울시, 시내버스 100% 방역...“에어컨 세척으로 코로나19 안심”</li> </ul>
'20.04.11.	확진:10,480(+30) 완치:7,243(+126) 사망:211(+3) --- 확진:600 완치:19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 방안 논의</li> <li>·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방안 마련</li> <li>· 단거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의무적 14일 격리(4.1.0시 이후), 현재 81.7% 입소</li> </ul>	
'20.04.12.	확진:10,512(+32) 완치:7,368(+125) 사망:214(+3) --- 확진:602 완치:202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확진자 나흘째 30명 안팎, 완치율 70% 넘어. 그러나 해외 유입, 재확진(111명) 사례 늘어나</li> <li>·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 원칙</li> </ul> </li> <li>· 4.13.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4월 신규확진자 중 57%가 20~30대, 나와 추약자들 위해 '잠시 멈춤' 당부</li> </ul>
'20.04.13.	확진:10,537(+25) 완치:7,447(+79) 사망:217(+3) --- 확진:610 완치:214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재확진 현재 116명(4.13.0시), 누적 확진 중 약 1.1%(대구경북 다수)</li> <li>· SNS '사회적 거리두기' 키워드 정보량 최근 5일 사이 약 60% 감소</li> <li>· 금주 후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평가,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여부 논의</li> <li>·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2차례 위반 60대, 구속영장 첫사례</li> <li>·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약 230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돌봄포인트 지급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알바 잃은 892명 청년수당(2개월 1인당 50만원) 조기지급</li> <li>·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규모 인력 투입 보증처리속도↑</li> <li>· 서울시 코로나 블루 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li> </ul>
'20.04.14.	확진:10,564(+27) 완치:7,534(+87) 사망:222(+5) --- 확진:613 완치:228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재확진 124명(4.14.0시), 방역당국 바이러스 변이 관계 조사</li> <li>· 美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li> <li>·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 마련</li> <li>· 일본 4.14.(화)부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참여희망기관 공모</li> <li>· WHO 코로나19 특사, 마스크 착용 보편적 일상 될 것...1850년 콜레라 후 적응했던 혁명과 같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3월 감소했던 통행량 4월 증가추세,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li> <li>· 서울시, 주민참여형 마스크 생산단체에 MB필터 74만장 지원</li> <li>· 집에서 박물관 체험...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온라인 VR서비스</li> </ul>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현황자료 기반 작성/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회색영역)

\*서울시 확진자 및 완치자 수는 공식 보도자료 발표일 기준 기입(미발표일 미기입), 발표 시간에 따라 당일 최종 확진자 수와 차이 있을 수 있음

#### ● 발생·치료 현황

- [코로나19 어제8명 증가·총1만661명…61일만에 하루 10명 아래로\(연합뉴스\)](#)
- [코로나19 완치율 75.4%…70대 62.3%·80대 31.5%\(뉴시스\)](#)
- ['코로나19' 해외유입 1000명 코 앞…내국인 91.7%\(뉴스1\)](#)
- [격리해제 후 재양성 179명…일본 "2차전파 여부 단정 못해"\(뉴시스\)](#)
- [코로나19 환자 1018명 감염경로 '미궁'…"예고없는 재확산 대비"\(뉴시스\)](#)
- [간호사 확진, 코로나 전담 부산의료원 '부분 코호트'\(조선일보\)](#)
- ["논산훈련소 확진자 3명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 아직 없다"\(한국경제\)](#)
- ["열흘 동안 매일 확진자…사실상 고립된 경북 예천"\(국민일보\)](#)
- [해외교민 첫 코로나19 사망…스페인 거주 80대 한인 남성\(뉴스1\)](#)
- [스리랑카인 대구 유학생, 확진 사실 모른채 자국 귀국\(파이낸셜뉴스\)](#)
- [서울 어제 확진 1명 늘어 누계 624명…열흘 연속 한자릿수\(연합뉴스\)](#)
- [확진자 최다 강남구, 코로나19 검체검사 1만건 돌파…TK외 처음\(뉴시스\)](#)
- [코로나19 백신 임상…혈장치료 지침 조만간\(파이낸셜뉴스\)](#)
- [일본 "코로나19 기온과 상관 없이 밀폐 공간서 발생"\(뉴시스\)](#)
- [코로나19 치료제 환자마다 효과 달라…"전문가 의견 일치 안 돼"\(연합뉴스\)](#)

#### ● 정책대응

- [코로나19 첫 확진 3개월…신규환자 '주춤'·새로운 일상 '준비'\(연합뉴스\)](#)
- [고강도 거리두기 4주만에 확진자 76% 감소…오늘 연장 여부 발표\(뉴시스\)](#)
- [정부, 5월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유지…종교시설 등 제한 완화\(연합뉴스\)](#)
- [일본 "코로나 통제 성공한 나라 없어…유행 반복할 것"\(뉴시스\)](#)
- [방역당국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대응계획 마련 중"\(한국경제\)](#)
- ['고강도 거리두기' 끝나도…"방역수칙 준수케 할 방안 검토"\(한겨레\)](#)
- [일본 "생활방역 전환, 방역망 내 관리돼야 가능…수칙 다듬는 중"\(뉴시스\)](#)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지금까지 외국인 총 41명 추방\(조선일보\)](#)
- [일본 "요양병원 등 입원환자 매일 4천~8천건 검사…전수검사 검토"\(뉴시스\)](#)
- [340만명 입국했는데 직원 확진 0명, '코로나 방역관문' 인천공항의 기적 \(한국일보\)](#)
- [한국 등 12개국 외교장관, '필수여행 허용 독려' 공동선언\(뉴시스\)](#)
-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 美 FDA 첫 정식 승인받아\(조선일보\)](#)
- [코로나19 한국 경험, 온라인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한겨레\)](#)
- ['진단시스템·IT 활용 관심' 코로나19로 서울에 쏠린 '세계의 눈'\(한국일보\)](#)
- [사랑제일교회 4주째 현장예배 강행…서울시 "세번째 고발"\(서울신문\)](#)
- [서울 지하철 '코로나19' 제로 비결 알려달라 '러브콜'\(국민일보\)](#)

#### [북한현황]

- [북한 "평남·황북도·라선시 코로나19 감시대상 전원 격리해제"\(연합뉴스\)](#)

- [“북한 평양·황해남도·함경북도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겨레\)](#)
- [한미정상 “코로나 인도적 대북지원” 재확인…대화 모멘텀되나 \(뉴스1\)](#)

## [교육]

- [“교육부, 5월 고3부터 단계적 등교 개학… 다음 주 확정\(국민일보\)](#)
- [내일 초1~3 온라인개학, 접속장애 '최대 고비'…교육부 "등교개학일 미정"\(중앙일보\)](#)
- [3차 온라인개학 앞두고 긴급돌봄 초등생 8만5천명…한달 반만 3.6배↑\(뉴시스\)](#)
- [EBS, 등교개학 때까지 '온라인개학 프로그램' 방송\(서울경제\)](#)
- [“자리 앉히기도 어려운데”…발달장애 학생들, 힘겨운 온라인개학\(연합뉴스\)](#)

## [경기부양 및 재난지원금]

- [“긴급재난지원금, 신속한 지급이 중요” … 중앙-지방 역량 결집키로\(아시아경제\)](#)
- [당정, 내일 재난지원금 '막판 줄다리기'…전국민 지급 가능할까 \(뉴스1\)](#)
- [나라 곳간 비었다는 정부…7조 재난지원금 어디서 당겨왔나\(중앙일보\)](#)
- [‘코로나19 대응’ 대출여력 확보 위해 금융규제 완화\(한겨레\)](#)
- [서울 거주 재외국민도 재난긴급생활비 받는다\(연합뉴스\)](#)
- [서울 모든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100만원 신청가능\(국민일보\)](#)
- [“코로나로 실직했는데”…서울시 재난생활비 지급 형평성 논란\(노컷뉴스\)](#)
-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현금 지원' 현황은?\(헤럴드경제\)](#)
- [일본, 주민표 등재 외국인에도 1인당 10만엔 지급\(아시아경제\)](#)
- [모든 게 느린 캐나다 재난 지원은 전광석화\(시사인\)](#)
- [홍콩 입법부, 21조 6000억원 코로나19 지원책 승인\(뉴시스\)](#)
-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책 '역대 최대 예산안 깜짝 발표'\(뉴스케이프\)](#)

## [고용 및 실업대책]

- [기재차관 “코로나 실업, 실업급여로 커버안돼…응급조치 필요”\(KBS뉴스\)](#)
- [정부, 청년긴급일자리 만들고 특수고용노동자 지원 확대\(연합뉴스\)](#)
- [“상반기도 못 버틴다”…항공업계 추가 지원책 어떤 내용 담길까\(연합뉴스\)](#)
- [소상공인 3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선지급 후정산으로 바꿔야”\(한겨레\)](#)
- [“코로나 고용위기 막자”…노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추진\(뉴스1\)](#)
- [실직자에 생계비, 기업에 고용보조금…세계 각국 실업대책 총력\(동아일보\)](#)
- [세계적 경제공황에 맞설 비상대책 나올까\(한겨레\)](#)
- [영국, 휴직 시 '임금 최대 80% 보전' 6월까지 연장\(연합뉴스\)](#)

## ● 고용 경제현황

- [코로나 대응 빛난 한국, 올 성장률 OECD 1위 예상…美 -5.9%, 日 -5.2%\(뉴스1\)](#)
- [코로나 고용충격 속 '그냥된다' 237만명 사상최대…20대 급증\(연합뉴스\)](#)
- [코로나19에 경영난까지…기업들 '공채' 사라진다\(헤럴드경제\)](#)
- [일시휴직자 일터 복귀 골든타임 한 달…실직 전환 우려\(연합뉴스\)](#)
- [세계 각국 코로나발 실업대란 우려 현실화\(세계일보\)](#)
- [IMF "아프리카 코로나19 대응 위해 54조원 추가 지원해야"\(아시아경제\)](#)
- [EU "코로나19로 인한 약탈적 인수 저지할 것"\(뉴시스\)](#)
- [미국 실업자 한달새 2200만 증가…트럼프, 경제활동 재개지침 발표\(뉴데일리\)](#)

- ["코로나19 사태에 이탈리아 국민 300만명 수입없이 버텨"\(연합뉴스\)](#)

## ● 사회일반

- [국민 65% "코로나19 대응 보며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느껴\(한국경제\)](#)
- ["우울해요" 서울시민 10명 중 7명 '코로나블루' 경험\(한국경제\)](#)
- [코로나19에 정신질환자들 고통...대면상담 어려워 증세 악화\(연합뉴스\)](#)
- ["돌봄의 사회화, 그 이상의 상상력이 필요하다"\(한겨레\)](#)
- [코로나가 쓰아올린 '뉴노멀'...원격과 로봇, 그리고 기본소득\(뉴시스\)](#)
- [보험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땀 소득불평등도 심화"\(뉴시스\)](#)

## ● 국제현황

- [WHO "코로나19 '항체有=면역有' 증거 없어" 경고\(뉴시스\)](#)
- [전 세계 확진자 233만명·사망자 16만명 넘어...치명률 6.9% ↑\(녹색경제신문\)](#)
- ['긴급사태' 日 코로나19 확진·사망자 모두 韓 추월\(연합뉴스\)](#)
- [中 우한 '코로나19 사망자 1290명 더' 뒤늦게 정정...커지는 불신 \(한국경제\)](#)
- [WHO "통계수정은 중국의 노력"...트럼프 "미국보다 많을 것"\(뉴시스1\)](#)
- ["코로나 진실 밝혀라" 미국·영국·프랑스 일제히 중국 압박 \(뉴시스1\)](#)
- [러시아 코로나19 확진자 3만6천명 넘어..."하루 4천785명 추가"\(연합뉴스\)](#)
- [이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000명 넘어...누적 확진자 8만 868명\(뉴시스\)](#)
- [아프리카, 코로나19 적극 대처해도 30만명 사망 가능성\(연합뉴스\)](#)
- [미 버지니아 소년원서 코로나19 집단감염...'핫스팟' 우려\(연합뉴스\)](#)
- [노인요양시설서 코로나 사망자 쏟아진다...美 15%, 유럽 50%\(국민일보\)](#)
- [코로나19 확산 막아라...이탈리아, 한국형 동선 추적 앱 도입\(한국경제\)](#)
- [싱가포르, 기숙사 이주노동자 감염 폭증에 코로나 환자 약 6천명\(연합뉴스\)](#)
- [코로나19 새 거점된 日 '의료붕괴 위기'...美 봉쇄완화 돌입\(한국경제TV\)](#)
- [코로나19 속 개혁 덴마크 초등학교...거리두기·손씻기 일상화\(연합뉴스\)](#)
- [伊봉쇄 완화 두고 동상이몽...북부 "서두르자" 남부 "아직 일러"\(연합뉴스\)](#)
- [3일 이상 코로나19 확진 '0' 베트남, 출구 전략 모색\(연합뉴스\)](#)
- [세계 각국, 의료과부하 & 지역봉쇄로 다른 전염병마저 속수무책\(조세일보\)](#)

## ● 연구현황

- [코로나19가 심장질환 유발...국내 첫 사례\(경향신문\)](#)
- [코로나19, 뇌에도 악영향...흡연자들 더 위험하다 \(SBS\)](#)
- [일본 "렘데시비르 국내임상 2건 진행...5월말 결과 목표"\(뉴시스\)](#)
- [희망 커진 '렘데시비르'...코로나 중환자 대부분 완치\(매일경제\)](#)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성공... 엔지켐생명과학, 시험계획안 식약처에 제출\(글로벌경제\)](#)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올인 지구촌... 규제 풀고 신탄 지원까지\(조선비즈\)](#)
- ['사스'보다 바이러스 3배 생산...'삼십육계'로 본 영악한 코로나\(중앙일보\)](#)
- [영국 연구진 "코로나19, 작년 9월 첫 발병 가능성" \(SBS\)](#)



#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무증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 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경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예시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C)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중(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중(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예시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변수	3	2	1	0	1	2	3
산소포화도	≤91	92~93	94~95	≥96			
산소투여여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맥박	≤40		41~50	51~90	9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	≤90	91~100	101~110	111~219			≥220
호흡수	≤8		9~11	12~20		21~24	≥25
체온	≤35.0		35.1~36.0	36.1~38.0	38.1~39.0	≥39.1	
의식수준				정상			이상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 예시2,3 출처 : 대한중환자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흉근요법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4판)」(지자체용)

## [붙임2]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현황

###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2020. 3. 13. 보도자료

지역(시도)	개소	기관명
서울	5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부산	1	부산의료원
대구	7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달서구)
인천	5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길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백령병원
광주	2	빛고을전남대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대전	4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울산	5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세종	1	NK세종병원
경기	7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5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충북	2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	4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북	3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3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경북	6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경산)
경남	4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제주	3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b>총합</b>	<b>67</b>	17개 시도, 67개소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2) : 울진군의료원(경북), 고려요양병원(울산)

※ 출처(3.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

## [붙임3] 전국 국민안심병원 현황

###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외]

2020. 4. 17. 기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33	5	24	9	17	3	5	2	6	4	9	1	1	-	81	3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9	2	10	-	12	4	11	3	14	7	16	2	30	4	4	2

출처 : 4.1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 [붙임3] 전국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4. 17. 기준

연번	2차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1	강남구 강남메트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2	강남구 강남차병원	외래진료	02-3468-3000
3	3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4	4	강남구 리봉한방병원	외래진료	02-546-1358
5	5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6	6	강남구 우리들병원	외래진료	02-513-8000
7	7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외래진료	1577-0007
8	8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9	1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10	2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11	3	강동구 남기세병원	외래진료	1577-2533
12	4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13	1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14	2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5	1	관악구 심장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6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앙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7	3	관악구 연세건우병원	외래진료	02-1644-4630
18	1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9	2	광진구 해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20	1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21	2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외래진료	02-2067-1500
22	3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23	1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24	1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25	2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26	3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7	1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8	2	도봉구 바로선병원	외래진료	1666-5853
29	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30	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31	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32	4	동대문구 코리아병원	외래진료	02-2281-9999
33	1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02-870-2114
34	2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35	3	동작구 더본병원	외래진료	02-587-2299
36	1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37	2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38	1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39	1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40	1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41	2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42	3	성북구 서울척병원	외래진료	1599-0033
43	1	송파구 경찰병원	외래진료	02-3400-1114
44	2	송파구 한솔병원	외래진료	02-2147-6000
45	3	송파구 서울병원	외래진료	02-405-8501
46	1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47	2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48	3	양천구 흥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49	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50	2	영등포구 대림성모병원	외래진료	02-829-9000
51	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52	4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53	5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54	6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55	7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56	1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57	1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58	2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811-7755
59	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60	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01-2001
61	2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62	3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63	4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64	1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02-2260-7114
65	2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66	1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67	2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68	3	중랑구 서울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76-7000
<b>총합</b>	<b>23개 자치구</b>	<b>68개소</b>	<b>외래 44개소 / 외래 및 입원 24개소</b>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40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41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42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3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4	성동구	성동군자의원*	02-499-7785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5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6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인암병원)*	02-1577-0083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7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8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9	송파구	경찰병원(아간 및 주말 미운영)*	02-3400-1124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50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51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52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3	양천구	홍익병원*	02-2600-0620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4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5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6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7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8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20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59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21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60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2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61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3	금천구	희명병원*	02-2219-7231	62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4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63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5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64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6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5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02-383-0129
27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6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8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7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9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8	종로구	서울직업자병원*	02-2002-8650
30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02-1577-3675	69	종로구	서울지구병원*	02-397-2018
3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70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32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71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3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72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4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73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5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74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6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75	서초구	홍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7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6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8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7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9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78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 검체채취 가능

\* 출처 : 4.1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 건강한 '실내활동' 어떻게 할까요?

- 신체활동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 건강한 '실내활동'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 1. 바른 자세

재택근무로 마음껏 편한자세로 일하고 있나요?  
그런데... 목, 어깨, 허리... 건강에 좋은 자세일까요?  
움츠린 어깨를 내리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계속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 건강한 '실내활동'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 2. 스트레칭

틈틈이 스트레칭도 해주세요  
긴장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맨손체조도 좋고, 수건이나 밴드를 이용해도 좋아요



## 건강한 '실내활동'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 3. 근력운동

외출하지 못해 줄어든 활동량을  
간단한 근력운동을 통해 늘려요  
오래 앉아있는 생활습관으로 약화된  
엉덩이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는 자세들을 소개해요



## | 출처

- ① 메디컬투데이, 근골격계 질환, 나쁜 자세로 피로도 증가하면 휴식이 우선, (2019.05.07)
- ② Lowe, B. D., & Dick, R. B. (2014). Workplace Exercise for Control of Occupational Neck/Shoulder Disorders a Review of Prospective Studies. *Environmental Health Insights*. <https://doi.org/10.4137/EHI.S15256>

글꼴  
네이버 나눔글꼴

이미지소스  
<https://www.flaticon.com/>